

Ⅲ. 3·1운동

1. 3·1운동의 배경
2. 3·1운동의 전개
3. 3·1운동의 해외 확산
4. 3·1운동의 영향과 의의

Ⅲ. 3·1운동

1. 3·1운동의 배경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이유궁에서 독일이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자본주의 후발국이었던 독일은 오스트리아·터키와 함께 자본주의 선발국가들인 영국·프랑스 등과 해외시장 분할을 놓고 1914년부터 4년간 싸웠던 전쟁이었다.

이 대전의 영향은 막대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20세기 초 과학과 이성을 기초로 한 “끝없는 진보”라는 인류의 보람빛 미래를 산산조각내었을 뿐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새로운 세계질서 주도국으로 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른 한편 이 전쟁은 일본이 자본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게 만들었으며, 한국독립운동에는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일본은 이 세계전쟁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 반사이익을 많이 본 국가였다. 대전의 특수 경기 덕택에 1913년 12억 2,400만 엔 적자국이던 것이 1915년 흑자국으로 올라섰으며, 1917년에는 11억 5,000만 엔의 正貨를 보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 중 중국의 산둥반도 남단의 膠州灣의 독일 조차지와 태평양상의 독일령 群島들을 점령하였다.

대전의 와중이었던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세계혁명을 목표로 하는 볼셰비키 정부에 대항하여 이를 와해시키려는 자본주의 열강들의 노력이 또한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켰다. 극동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낼 임무를 일본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1918년 8월 시베

리아에 11개 사단을 파견하여 1922년까지 4년간 자바이칼·아무르·연해주를 아우르는 바이칼호 以東지역을 실질적으로 점거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만주·연해주 동포사회를 기반으로 국외독립운동 기지건설과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해 온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일제와 타협한 중국·러시아 당국에 의해 이 지역 우리 독립운동이 禁壓 당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이런 정세는 계속되었다. 더구나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은 20만 연해주 동포들에게 조국해방투쟁 이전에 연해주 해방을 위해 파르티잔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2)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사조 등장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사이 서구 산업사회는 社會進化論이 각종 사회불평등과 인종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면서 제국주의적 침략과 군국주의적 확장을 뒷받침하였다.¹⁾ 이런 사회진화론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어 서구 산업국가들에서는 강자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약자의 패배를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하는 반면, 동양의 일본, 한국에서는 그들 국가가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입장과 요구에 따라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초기에 문명화의 법칙성과 일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이론으로 환영받았다가 1880년대 들어서면서 근대 자연권 사상과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국가 유기체설과 결합하여 봉건절대군주인 천황의 권위와 그 관료지배체제를 강화해 주는 이론으로 기능하게 되고, 이것이 후에 ‘가죽국가’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확산을 이론적으로 변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²⁾

중국에서는 일본보다 조금 늦게 1880년대 중엽에 수용되었는데, 중국 지식인 가운데 일본에서 망명생활하는 중에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중국의 경우 생존경쟁적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외부와 경쟁하기

1)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한울 아카데미, 1996), 185쪽.

2) 전복희, 위의 책, 186쪽.

위해 내부적 단합을 최우선시하며, 근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수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전제군주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국가주권설과 입헌국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한적이나마 民權의 확대를 주장하며,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였다.³⁾

한국에서의 사회진화론은 동아시아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서구의 부와 물질문명, 강력한 군사력에 강한 충격을 받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의 독립과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한말 한국 지식인들은 서구 부강의 원동력과 한국의 낙후 원인을 밝혀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이론적 수단으로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서구에서 사회진화론이 발전해 온 사상사적 배경과 이론적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의적이고 희망적인 이해와 평가에 따라 변형하여 사회진화론을 해석하고 적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은 강자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서구의 이데올로기에서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한 의식적 행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형되어 실력양성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며,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근대적 국가사상과 민권사상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였다.⁴⁾

한편에서 사회진화론은 일본 제국주의와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친일파들은 진화론을 빌어서 당시의 국제환경을 황인종과 백인종의 인종싸움 시기로 단정하고, 황인종 사이의 반목은 백인종의 아시아 침략과 그 지배를 초래하게 된다는 명목 아래 반일민족운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희석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친일적 인사들은 일본을 맹주로 하는 황인종의 단결을 주장하고, 독립보다는 한반도의 근대화가 긴박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일본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였다.⁵⁾

1910년 국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진화론의 미몽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각성이 일어났다. 신민회를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주의자들은 사회진화론 가

3) 전복희, 위의 책, 187쪽.

4) 전복희, 위의 책, 188~189쪽.

5) 전복희, 위의 책, 189쪽.

운대 ‘근대문화 지상주의’적 입장보다 경쟁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과, 실력양성과 함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일제의 침략논리인 ‘동양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사회진화론적 사고와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⁶⁾

사회진화론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은 大同思想의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禮記》禮運篇의 대동사회에 대한 묘사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표본으로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근대에 들어와 체계화한 것은 清末 康有爲에 의해서였다. 그의 사상에는 《예기》에 운편의 大同小康說과 더불어 불교의 자비평등설, 루소의 천부인권설, 기독교의 평등자유설, 유럽 사회주의 학설 등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여, 한편에서는 진화와 발전을 선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화의 비약적이고 혁명적인 발전에 대해 반대하였다. 즉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한 중국이 전통적 체제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개량을 통해 중국의 근대화를 추구하였다.⁷⁾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한말에 梁啓超의 저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어 한국 지식인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朴殷植은 1910년 국권상실을 전후한 시기에 강유위의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아 優勝에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優勝劣敗의 질서 즉 정치권력적 국제질서에 대해 도덕적 측면에서 사회진화론을 부정하였다. 그는 1909년 〈儒敎求新論〉에서 공자의 대동사상, 맹자의 民爲重說을 통해 전통 유교가 평등적·민주적·민중적 유교로 발전할 것을 주장하며 우승열패·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부정하였다. 그의 대동사상은 1911년 〈夢拜金太祖〉에서 현재의 민족경쟁·국가경쟁시대에서 하등사회로 하여금 상급사회로 진보케 하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진화의 공리라 하였으며, 제국주의·강권주의를 정복하여 세계인권의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인의 당면과제이며, 한국인은 평등주의의 선봉에 서야한다고 주장하였다.⁸⁾ 이러한 대동사상에 바탕하여 그는 1909년 9월 李範圭·張志淵·元

6) 李浩龍, 《한국인의 아나키즘 受用과 展開》(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20~21쪽.

7) 이호룡, 위의 책, 24쪽.

8) 이호룡, 위의 책, 25쪽.

泳儀·趙琬九 등과 함께 大同敎를 창건하였다. 申采浩나 素昂 趙鏞殷도 대동사상에 입각하여 국가·민족·계급사이의 불평등을 배격하는 평등주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사상의 전개는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⁹⁾

이러한 대동사상은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약육강식·우승열패의 원칙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진화론의 부정은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식상의 한계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대동사상이 社會改造·社會改造論과 결합됨으로써 극복하게 되었다.¹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세계 지성계에 큰 충격과 함께 각성을 가져와 힘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에 눈을 뜨고, 정의·인도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로망 롤랑(Romain Rolland),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 등이 사회개조·세계개조론을 제기하며 사회진화론을 비판하고, 정의·인도·박애·자유·평등을 표방하였다. 한국의 지식인들도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충격을 받고 사회개조·세계개조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하여, 사회개조·세계개조론이 대동사상과 결합하여 1917년 7월 신규식·조소앙·박은식·박용만·신채호 등에 의해 〈대동단결 선언〉로 나타났다. 〈대동단결 선언〉은 독립과 평등을 성스러운 권리라고 함으로써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부정하였다.¹¹⁾ 1918년 11월 28일 창립되어 3·1운동의 단서를 열기 시작한 상해의 신한청년당 黨綱에서 사회개조와 세계대동을 천명했다.¹²⁾

한편 세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연합국과 동맹국들은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전쟁의 목표를 보다 숭고하고 고원한 이념으로 승화시켜 제시하기에 바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민족적 존립’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하였으며, 미국의 우드

9) 이호룡, 위의 책, 26쪽.

10) 이호룡, 위의 책, 27쪽.

11) 이호룡, 위의 책, 30쪽.

12) 《신한청년》 창간호(1920년 3월), 〈신한청년당〉, 78쪽.

《독립신문》, 1920년 2월 5일.

로우 윌슨 대통령은 1916년 5월 27일부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함께 “모든 국민은 그들이 속해 살 주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자결주의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¹³⁾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정러시아가 붕괴하자 연합국들은 이 대전을 민주주의와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의 대결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볼셰비키 정권은 1917년 말 무병합·무배상에 기초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강화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자결선언, 비밀외교 폐지를 주장하여 참전국 국민들과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¹⁴⁾ 이런 볼셰비키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항하여 연합국측의 ‘평화의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조 평화원칙>을 공표했다. 여기에는 공개적인 평화조약, 비밀조약의 폐지, 군축, 해양자유, 원칙, 국제통상의 평등주의, 민족자결, 국제연맹의 창설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원칙은 연합국측의 이념으로서 전세계에 선전되었다. 그러므로 러시아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 붕괴, 주축국 오스트리아·독일·터키 등 전체주의적 군국주의 국가의 패전과 연합국측의 민족자결주의 등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해방·자유와 평등·민주주의가 세계를 풍미하게 되었다.¹⁵⁾

이 가운데 제국주의적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약소국의 민족자결을 주장하자 사회진화론적 사고에서 탈피하고자 하고 있던 한국인들은 ‘세계개조의 신시대’가 눈앞에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개조·세계개조론’은 가장 먼저 발표되었다고 알려진 만주에서의 <대한독립선언서>에도 반영되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을 부정하고, 대동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으며,¹⁶⁾ 서울에서의 민족대표 <독립선언서>에서 “신천지가 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來하도다 …”고 표명하게 된 것도 이러한 세계사상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13) 이만열, <민족운동과 민족자결주의>(《한민족독립운동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92), 263쪽.

14) 이만열, 위의 글, 264쪽.

15) 이만열, 위의 글, 265~266쪽.

16) 이호룡, 앞의 책, 32쪽.

3) 독립운동의 새 기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해외에 망명하여 동포사회를 기반으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여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을 되찾고자 했던 애국지사들의 계획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연해주 동포들의 勸業會와 大韓光復軍政府는 러일협상에 의해 해체되고, 李相高은 추방되었으며,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하바로프스크·간도·북만주 등으로 흩어져야 했다. 1917년 2월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赤白內戰과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으로 3·1운동기까지 여력이 없었다.

북간도의 독립운동가들과 동포들도 제1차 세계대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대비해 왔으나, 1915년 5월 일제의 사주를 받은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이 봉쇄당했다. 서간도의 경학사·부민단도 계속되는 흉작과 풍토병, 일본군의 내습의 위험 등으로 약화되고, 지도자들은 연해주와 국내로 흩어져야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독립운동의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일은 독립운동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 하는 것과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외에서 일제에 의해 폐위된 光武(高宗)황제를 독립운동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국민들의 총 쥔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1914년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정부를 추진하다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도에 무산된 바 있는 이상설은 1915년 상해로 와서 申圭植·柳東說·李春日·成樂馨·劉鴻烈 등과 新韓革命黨을 결성하여 북경에 본부를 두고, 만주 및 국내에 지부를 조직하는 한편, 광무황제를 당수로 추대하여 중국 및 독일과 군사협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 계획은 외교부장 성낙형이 국내에 파견되었다가 체포됨으로써 계획이 탄로났으며, 중일관계나 세계대전의 추이도 독일의 우세를 점쳤던 당초 예상과 달리 전개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광무황제를 독립운동의 중심에 세우고자 한 비밀계획은 3·1운동 직전에

도 시도되었다. 1913년 간도에서 경학사를 이끌다가 국내로 들어 온 李會榮은 제1차 세계대전의 終戰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천도교의 오세창,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교육계의 김진호·강매·이상재·유진태·안확·이득년 등과 함께 광무황제의 중국망명계획을 세웠다. 황제가 중국에 망명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의 성명을 내고 독립운동에 친히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이회영 등은 李喬永을 통해 광무황제의 승낙을 얻고 閔泳達로부터 5만환을 받아 북경에 황제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게 했다. 이 계획이 무르익어 가던 중 1919년 1월 22일 새벽 광무황제가 갑자기 서거했다. 광무황제를 독립운동의 중심에 세우고자 했던 이러한 계획들은 황제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의 갑작스런 의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망국의恨이 폭발함으로써 마침내 3·1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¹⁷⁾

한편 천도교 일각에서는 李鍾一을 중심으로 민중봉기론이 제기되고 있었다. 천도교가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면 9년 동안 질곡과 신음 속에 있었던 대한의 민중들이 호응하여 참여할 것이므로 대중시위운동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¹⁸⁾

연해주에서 이상설 등의 대한광복군정부 수립도 그러하였지만, 제주도 조친의 유학자 金時學 등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대항관계에 있었던 독일의 승리를 예상하고, 독일과 연결을 통해 국제적 지원을 획득하여 독립을 추구하고자 사회 각계 인사들과 준비를 추진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독일의 패전이 확실해 가자 실현가능성이 없어져 갔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들은 우리 민족이 결코 일제의 불법적 국권강탈과 지배를 결코 용인하거나 묵종하지 않았으며,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3·1운동은 이러한 1910년대의 흐름 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다.

17) 이관직, 《우당 이회영 실기》(을유문화사, 1985), 159~160쪽.

18) 이종일, 〈목암 이종일 비망록(4)〉(《한국사상》 19, 1982), 223~224쪽.

4) 국내 상황

(1) 식민지 지배의 압박과 고통

“모든 혁명은 썩은 문짝 차 넘어뜨리는 것이다”라는 갈브레이드의 말에 비추어 본다면 3·1운동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체제는 이 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당시 결코 ‘썩은 문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일본 육군대장출신의 무관총독과 헌병경찰제를 기초로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의 전권을 행사하며 강고한 식민지 지배정책을 강행하였다.

조선의 지방사회는 일제하에서 커다란 변화를 강요받고 있었다. 16세기 이래의 士族 중심의 향촌 지배체제는 17세에 들어오면서 농업기술상의 발전과 상업과 수공업,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지주 또는 부농으로 성장하는 층과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는 사족층이 교차되면서 농민층에 대한 사족의 통제가 약화되고, 대신 관권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민간에서는 각종 契와 두레, 樵軍組織 등 새로운 농민조직이 나타나고 있었다. 1906년 개화파는 향회설치와 농민층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제 통감부의 간섭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1910년 조선의 국권을 병탄한 일본은 1914년을 기해 전면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여, 전통적인 향촌사회의 ‘동리본위주의’를 面을 중심으로 하는 관일방의 지방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1910년 68,819개 동·리를 1918년까지 28,277개로 58.9%를 철폐하고 통합하였으며, 군은 317개에서 99개 줄어 218개로(-31.2%), 면은 4,351개에서 2,509개로 42.3%를 철폐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래의 면장을 친일적 인사로 전면적으로 교체하여 식민지 지배의 동반자로 삼고, 종래 군과 동리간의 전달사무만 담당하던 面을 식민지 말단 행정기구로 강화하였다.¹⁹⁾ 이런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각종 식민지 악법과 규칙, 온갖 종류의 세금을 통해 민중을 고통스

럽게 몰아갔다. 그리하여 “일상의 생활은 巨細 모두 법규에 규율되고, 願屈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 煩累에 견딜 수 없다”²⁰⁾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많은 밀정을 풀어 국민을 감시하며, 소위 ‘법과 규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로 강제하였다.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과료의 형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또는 헌병대장이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할 수 있게 규정한 <범죄즉결례>는 한국 민중들에게 악명이 높았다. 이러한 즉결처분이 악용되어 1911년에 18,100여 건이던 즉결처분이 1918년에는 82,100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²¹⁾ 원래 농민은 하늘을 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지라, 일제의 지배와 같은 사사건건 강압적·직접적 규제를 견디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경작권 등 제 권리를 박탈하고 소수 지주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일인들의 이주 증가와 토지수탈을 쉽게 하였고, 일본인들의 植民을 통하여 농업침탈과 함께 지역사회 향촌공동체의 결속력을 해체해 갔다.

한국의 시장과 무역은 일인과 일본에 의해 독점되고, 한국은 쌀을 비롯한 일본의 원자재 공급지, 직물을 비롯한 일본 공업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하였다. 결사와 집회,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철저하게 억압되었으며,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시행하고, 일본의 통치에 저항할 경우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한국인의 교육·산업활동은 제한·통제되었으며, 같은 노동에도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또는 2/3에 불과하였다. 우리 민족은 열등한 민족으로 간주되어 멸시되었다.

(2) 식민지 지배의 모순 격화와 민생 피폐

3·1운동이 일어나던 때 조선의 민중들에게는 10년간의 조선총독부와 헌

19) 이정은, <일제의 지방통치체제 수립과 그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1992).

20) <조선소요사건상황>(《독립운동사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784쪽.

21) 박경식,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청아출판사, 1986), 52쪽.

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만이 고통이었던 것은 아니었다.²²⁾ 쌀값폭등으로 인해 민생이 도탄의 극을 달리고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10년대를 통하여 조선의 무역은 미곡의 수(수입)출, 직물의 수(수입)입이라는 전형적인 식민지적 종속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미곡의 경우 일본으로 이출율이 1910년의 66%에서 1919년에는 98.6%로, 직물의 수입의 경우 1910년 54%였던 것이 1919년에는 85.1%로서 각각 일본 단일창구에 집중되어 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쌀값은 일본의 쌀값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었다. 일본은 대전기간 중에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달하여 도시 비농업 인구의 급증, 1인당 쌀 소비량의 증가, 酒類 수요의 증대, 시베리아 출병으로 인한 군량미 조달 등으로 인해 쌀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반해 농업 노동력의 도시 유출,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폭풍우 피해 등으로 인하여 1917년도 쌀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농민의 7할이 소작농인 상태에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쌀 생산을 늘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요인으로 쌀값이 상승하자 보유미 매출을 주저하게 하여 1918년에 들어 쌀의 출하량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의 대미곡상과 지주들은 매점매석을 하여 1918년 일본의 쌀값은 이전에 볼 수 없던 狂騰의 양상을 띠어 ‘米騷動’이라고 하는, 쌀값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소요가 있었다.

조선의 쌀값은 1914년부터 1916년까지의 3년간에는 精米 1석당 12圓에서 16.7圓 사이로서 1913년의 21원 50전에서 하향 안정을 나타내었다. 3년간 계속 1,100만 석에서 1,250만 석의 풍작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쌀값의 안정은 지주들에게는 불리했지만, 소농을 비롯한 민중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1917년에 들어서자 이러한 안정된 쌀값 기조가 깨어지면서 5월에 석당 18원 33전, 6월에 21원 16전, 10월에 23원 50전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러한 쌀값등귀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전쟁특수경기를 타고 대금을 모은 자들이 일본의 미가분등을 기회로 미곡투기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쌀값의 등귀는 戰後 제반 물가의 등귀와 더불어 조성된 것이어서 서민의 생활에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공황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

22) 1910년대 식민지 통치에 관해서는 ‘제1장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을 참고.

다. 1917년에 조성되기 시작한 이러한 상황은 1918년에 들어와 더욱 악화되어 갔다. 1918년 전반기에 26~28원대로 등귀하더니 8월에 접어들면서 전월에 비해 석당 10원이 폭등했다.

마야호로 쌀값 폭등장세가 일어나 이해 후반기에는 38~39원대까지 등귀를 계속했으며, 1919년 1월에 40원대, 2월에는 43원 57전을 돌파하며 폭등세가 계속되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사람 죽일’ 시세라고 표현했다.

일본정부는 자국내 쌀값 진정을 위하여 오사카(大阪)의 스즈키(鈴木)商店을 대리로 내세워 비밀리에 조선 쌀 20만 석을 매점하게 했다. 이 명령에 따라 스즈키상점은 오사카의 朝鮮米商, 코니시 타츠지로(小西辰次郎)를 매개로 하여 부산·군산·인천에서 조선미를 매수하고, 이것이 《關門日日新聞》에 보도됨으로써 국내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매점 때문에 8월중에 10원이 폭등했고, 이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1919년 3월 석당 40원 이상까지 천정을 모르고 쌀값의 폭등세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부랴부랴 조선 궁민들을 위해 구제회를 조직하고, 廉賣 쌀을 공급 하였으나, 그 양도 적고, 파는 곳도 몇 곳 되지 않아 굶주린 민중들은 종일 열을 지어 1인당 2되씩 파는 쌀을 기다리다가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1918년 8월 28일 종로소학교에서는 염매 쌀을 사려고 기다리던 200여 명의 군중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곧 군중이 1,000여 명으로 불어나 학교 건물을 파괴하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민중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8월 22일 목포 철도工夫들이 쌀집을 습격한 사건도 그것이었으며, 부산·서울·원산 등지에서는 대중의 궐기를 호소하는 전단이 뿌려지기도 하였다. 1918년에 들어와 노동자들의 동맹파업과 임금투쟁이 급격히 증가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다. 1916년도 동맹 파업은 6건에 참여인원 362명, 1917년 8건에 1,128명이던 것이 1918년에 가서는 50건에 4,442명으로 급증한 것은 일제의 지배에 대한 민중적 저항이 폭발직전에 와 있다는 표시였다. 23)

23) 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5) 3·1운동의 태동

(1) 상해 신한청년단의 활동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

1918년 8월 20일 경 呂運亨·張德秀·金澈·鮮于懋·韓鎮教·조용은·趙東祐 등 청년들은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에서 찰스 알 크레인을 대통령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여 전후 평화회담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고, 산둥반도 처리문제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표 파견을 적극 권고하게 하였다. 크레인 특사가 상해에 오자 중국정부는 환영집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신한청년당 대표 여운형이 범태평양회의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크레인 특사는 전후 식민지 처리문제가 피압박 민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될 것이며, 중국도 평화회담에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을 하였다. 여운형은 이 연설을 듣고, 파리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에 한국 대표도 참석시켜 한민족의 독립의사를 발표하고,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한반도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개인적으로 크레인을 찾아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대표의 참석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여운형은 당원 긴급회의를 열어 〈한국 독립에 관한 진정서〉 2통을 파리 평화회의 의장과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전달해 주도록 크레인 특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같은 문서 2통을 파리 평화회의 중국 대표단 고문으로 파리로 떠나는 상해 《밀라드 리뷰》(Millard Review) 잡지 사장 토마스 밀라드(Thomas Millard)에게 전달을 부탁하였다. 또한 金奎植을 신한청년당 대표 겸 한국대표로 선정, 1919년 2월 1일 파리로 출발시켰다.

신한청년당은 파리 평화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한국민족 전체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선우혁과 김철을 1차로 국내에 파견하고, 이어서 서병호·김순애(김규식의 부인)·백남규를 제2차로 파견하였다. 선우혁은 1919년 2월 초 평안북도 선천에 도착하여 양전백 목사와 정주의 이승훈·길선주 목사 등을 만나 독립운동을 일으

키는 것에 적극적인 찬동을 받고 상해로 돌아갔다. 평안도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은 당초 기독교 교회와 학생들이 연합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김철은 서울에 와서 천도교측과 접촉하여 3만 엔의 송금을 약속받고 상해로 돌아갔다. 서병호와 김순애는 대구지방의 애국인사와 접촉하고 상해로 돌아갔다.

신한청년당은 일본에도 제1차로 조용은을, 제2차로 장덕수와 이광수를 파견하여 일본의 한국유학생들과 접촉하게 하였다. 장덕수는 동경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접촉하여 김규식의 파리 평화회의 한국대표 파견사실을 전하며 독립운동을 권유하고, 서울로 잠입했다가 일제 관헌에게 체포당했다. 뒤이어 이광수가 서울을 거쳐 동경으로 와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신한청년당에서는 또 여운형이 직접 만주 간도와 노령 연해주를 순방하였다. 여운형은 간도에서呂準을 만나고 다시 연해주로 가서 그곳의 박은식·문창범·이동휘 등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북간도 간민회 회장 金躍淵, 총무 鄭載冕 등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종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하고, 국내외에서 민족의 독립의사를 표명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함으로써 3·1운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를 주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1919년 2월 만주를 중심으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망라하여 大朝鮮獨立團을 조직하고 金敎獻·金奎植·金東三·金躍淵·金佐鎭·金學萬·鄭在寬·趙鏞殷·呂準·柳東說·李光·李大爲·李東寧·李東輝·李範允·李奉雨·李相龍·李世永·李承晚·李始榮·李鍾倬·李沔·文昌範·朴性泰·朴容萬·朴殷植·朴贊翊·孫一民·申稷·申采浩·安定根·安昌浩·任溍·尹世復·曹煜·崔炳學·韓興·許赫·黃尙奎 등 39명 명의로 〈大韓獨立宣言書〉가 나온 것이었다. 이 선언서는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조소앙이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선언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은 국내 동포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민족과 동아시아, 국제사회, 인류의 차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적이며, 항일 독립전쟁은 “天(하늘)의 인도와 대동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성하고도 정의로운 전쟁이며, 자기희생의 비장한 결단에 의해서만 민족의 독립이 성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의 安昌浩는 1918년 12월 1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워싱턴에 대표를 파견하여 파리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대표로 鄭翰景·李承晩·閔贊鎬를 선정하였다. 세 대표는 여권수속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전승국인 일본의 항의로 미국 정부가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출발할 수 없었다.

1918년 12월 13일부터 뉴욕에서는 제2차 약소민족동맹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신한협회(New Korea Association)를 대표해서 뉴욕의 金憲植, 중서부 지역을 대표해서 시카고의 정한경, 대한인국민회를 대표하여 캘리포니아의 민찬호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파리 평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소민족들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한편 미주 동포들이 한국대표로 정한경·이승만·민찬호를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일본의 영자신문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에 보도되고, 약소민족 동맹회의의 약소민족 독립결의가 《저팬 어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에 보도되자 일본의 한국유학생들은 큰 자극과 고무를 받았다.

(2) 2·8독립선언

미주 한인동포들의 독립운동 보도기사는 일본에 있던 한국유학생들의 행동을 촉발시켰다.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은 1918년 12월 29일 유학생 학우회의 망년회와 12월 30일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동서통합옹변대회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의제로 하여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생명을 바쳐서 조국독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19년 1월 6일 한국유학생들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옹변대회를 개최하고, 구체적 운동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위원으로 최팔용·서춘·백관수·이종근·김상덕·전영택·김도연·윤창석·송계백·최근우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을 하여 일본정부와 각국 대사·공사, 일본 귀족원과 중의원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1

월 7일 200명의 회중에게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 이 무렵 상해의 신한청년당에서 보낸 조용은과 장덕수가 동경에 도착하여 유학생들의 궐기를 고취하였으며, 뒤이어 이광수가 도착하여 한국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게 되었다.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은 실행위원 10명 중 병으로 사임한 전영택 대신 이광수·김철수를 추가하여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와세다대에 유학 중이던 송계백을 국내에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자금을 모집하며, 선언서 인쇄활자를 구해 오도록 하였다. 송계백은 〈2·8독립선언서〉 원고를 비밀리에 휴대하고 국내에 들어와 현상운·최린 등을 만났다. 이것이 국내 지사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 3·1운동 준비를 본격화시키게 되었다.

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선언서〉와 〈결의문〉·〈민족대회소집 청원서〉를 귀족원과 중의원, 조선총독부, 동경 및 일본 각지 신문사와 잡지사, 여러 학자들에게 우송하고 오후 2시 유학생학우회 선거를 청하고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약 400명이 모여 유학생 대회를 열었다. 최팔용의 사회로 대회의 명칭을 조선독립청년단 대회로 바꾸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박관수가 조선독립청년단대표 명의의 〈선언서〉를 낭독하고, 김도연이 4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장내의 독립만세 소리로 열광은 극에 달했다.²⁴⁾

〈2·8독립선언서〉에서 유학생 대표들은 첫째 한국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역사상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음을 천명하고, 둘째 사기와 폭력에 의한 국권탈취의 불법성과 침략정책을 고발하였으며, 셋째 10년간의 식민지 통치가 상호이해에 상반됨과 한국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넷째 동양평화의 건지에서 볼 때 소련이나 중국이 군국주의적 야심이 없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구실이 없으며, 다섯째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식민지 통치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일본에 대해 혈전을 할 것임을 밝히고, 여섯째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

24) 강재연, 〈2·8독립선언과 3·1운동〉(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 1988), 203쪽.

——, 〈日本在住朝鮮人情況〉(總督府支署, 19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 1968), 642~665쪽.

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에 공헌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4개항의 결의문은 첫째 한일의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에서 독립을 주장하며, 둘째 일본 의회와 정부는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구하며, 셋째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각국 대사가 본국에 이 의사를 전달할 것과 우리 대표자 3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할 것을 밝혔다, 넷째 이러한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하여 3·1운동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오후 3시 50분 니시간다(西神田) 경찰서의 경찰에 의해 포위된 집회장은 곧 경찰과 유학생들간에 일대 난투극이 벌어졌으며, 미리 상해로 탈출한 이광수를 제외한 임시실행위원 10명과 함께 27명이 검속되어 그 중 최팔용 등 9명은 금고 1년에서 7개월 15일의 형에 처해졌다. 당초 일제는 이 사건에 내란죄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법조계에서 명망있는 하나이 다쿠조(花井卓藏) 등 여러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청하고 나서²⁵⁾ “학생의 신분으로 자기 나라 독립을 부르짖는 것이 어찌 일본 법률의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민족자결의 사조가 팽창함에 비추어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니 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등의 변론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의 출판법 위반죄가 적용되었다.²⁶⁾

일본 유학생 100여 명은 2·8독립선언에 이어 2월 12일 히비야(日比谷)공원 음악당 근처에 모여 일본의회에 독립을 청원할 대표자로서 李達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한 학생이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2월 23일에는 <독립선언서>와 <국민대회청원서>를 일본의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자 <朝鮮靑年獨立團國民大會促進部趣旨書>를 인쇄하여 히비야 공원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인쇄물이 사전에 발각됨으

25) 이외 무료변론 일본 변호사들은 우자와 후사아키(鵜澤聽明)·후세 다츠지(布施辰治)·이아이 오시유키(今井嘉幸)·사쿠마 고조(作間耕造) 들이다.

26) 강재언, 앞의 글(1988), 208쪽.

로써 卞熙溶·姜宗燦·崔承萬·張仁煥이 구금되었다. 그러나 오후 2시 경 약 150명의 유학생이 히비야공원에 모여 있는 주도자 중 구금되지 않은 崔在宇가 나타나 이 유인물을 배포하며 다시 한 번 시위를 기도하였으나, 곧 일경에 의해 집회는 해산되고 최재우도 체포되었다.²⁷⁾

(3) 광무황제의 붕어와 인산

1919년 1월 22일 高宗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다. 일제 헌병대 보고서에 조차, “1월 22일 ‘돌연히’ 李太王 승하의 소식이 발표되자, 상하 모두 그 급격한 訃音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경기)”²⁸⁾, “... 이태왕 전하의 승하의 報가 전해지자 상하 일반이 경악하였고(충북) ...”²⁹⁾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양위를 당하고 절치부심하던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은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정략에 의해 일본에 끌려 갔다가 일본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된 셋째 황태자 영왕 李垠의 혼례날을 앞두고 그 혼례를 좋아하지 않아서 자결하였다는가 하는 소문도 그 중 하나였는데, 이 중 일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3·1운동 발발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독살설’이었다. 광무황제가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은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적 울분을 촉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배일사상이 갑자기 비등하게 되었다. 민족대표의 일원이며, 1918년 초부터 민족봉기를 주장해 왔던 李鍾一은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어제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당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대한인의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일대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민중시위 구국운동은 이제 진정한 민중운동으로 성숙될 것이다. ... 이 운동에 아니 참여할 자가 있겠는가 (이종일, <목암 이종일 선생 비망록(4)>, 《한국사상》 19, 1982, 226쪽).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지방마다 주민들은 흰 갓을 쓰고 양반·유생 주

27) 강재언, 앞의 글(1968), 657쪽.

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조선소요사건상황>(《독립운동사자료집》 6), 476쪽.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조선소요사건상황>(《독립운동사자료집》 6), 472~473쪽.

도하에 望哭式을 행하였는데 경북지방 1부 23군에서만 230개소에서 망곡식이 거행되었던 데서 전국민적인 추모의 정서를 알 수 있다. 3월 3일 국장일이 결정되자 국장배관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3월 3일 고 이태왕 전하의 국장 집행 전날이래 본도(경남)로부터 양반, 유생, 기타 지방 유력자로서 상경하는 자가 뒤를 이었고 …”³⁰⁾ 기차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은 육로로 밤길을 걸어서 간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³¹⁾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오륙 명씩, 십여 명씩 단체로, 아니면 배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남대문 정거장에는 매일 평균 1,500~1,600명의 승객이 이용하던 것이 1919년 2월 26일에는 3,000여 명, 27일에는 6,000여 명이 서울로 왔다.³²⁾

3·1운동의 기획자들은 거사일을 광무황제의 장례식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잡았고, 장례식 참관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운집한 수만 명이 자연스럽게 참여 또는 목격하고, “많은 ‘불온 인쇄물’이 살포됨으로써 그 중 호기심에 찬 자들이 몰래 이것을 주워 두루마기 속에 껴매 넣어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우편으로 친지에게 보낸 자들도 있어”³³⁾ 자연스럽게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국장참관이 시위운동 전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일제는, “갑자기 3월 1일 경성에서의 소요는 민심에 일대 자극을 주었고, 이에 더하여 國葬儀에 拜觀하고 돌아온 자는 소요 목격담을 한층 과대하게 향간에 전하여 더욱더 민심을 험악하게 유도하여, 언제 소요의 발발을 볼지 예측하기 어려운 형세를 나타내었다”³⁴⁾고 할 정도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李廷銀〉

3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 483쪽.

3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 474쪽.

32) 《매일신보》, 1919년 3월 1일.

3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조선소요사건상황〉(《독립운동사자료집》 6), 474쪽.

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조선소요사건상황〉(《독립운동사자료집》 6), 484쪽.

2. 3·1운동의 전개

1)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1) 민족대연합전선의 형성

1919년 1월 20일 權東鎭·吳世昌·崔麟은 천도교 교주 孫秉熙의 사저인 常春園으로 찾아가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래 전부터 그러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손병희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로써 독립운동의 추진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다음의 세 가지 독립운동의 원칙이 결정되었다.

첫째, 독립운동을 대중화하여야 할 것.

둘째, 독립운동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

셋째, 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할 것.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권동진·오세창·최린에게 위임되었다. 권동진과 오세창은 천도교 내부의 일을, 최린은 천도교 외부와의 관계를 담당하여 2월 초순부터 민족대연합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최린이 중심이 된 천도교측은 2월 상순 경에 최남선·송진우·현상윤 등과 재동 자택에서 극비리에 수차례 회합을 갖고 운동계획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중의 신망을 받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였다.¹⁾ 그리하여 대한제국시대 구관료계의 尹用求·韓圭高·朴泳孝·尹致昊 등과 접촉하여 그들을 민족대표로 추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유보 또는 거절의 반응을 보여 크게 실망하였다. 구관 명사들을 접촉했던 것은 당시 종교계 대표

1) 최린, 《최린 자서전》(《여암문집》 상, 1971), 185쪽.

들의 명망과 위상이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만 하지 못했던 현실에서 나온 고려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들이 너무 약체여서 대중화를 기대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였다.²⁾

최린은 “독립운동의 신성한 제전에 늙은 소보다 어린 양이 좋다”는 말로 자신들이 대표로서 나서기로 하였다. 며칠 뒤 최남선이 최린을 방문하여 기독교측에서도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최남선은 金道泰를 통하여 정주의 李昇薰에게 상경해 주도록 연락을 취했다. 이승훈은 2월 11일 서울로 올라왔다. 최린은 일경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송진우로 하여금 이승훈을 만나 그간의 독립운동계획을 설명하게 하고, 기독교에서도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운동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때 이승훈은 이미 상해로부터 선우혁의 방문을 받고, 관서지방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민족대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데 찬성하여 쾌히 승낙하였다.

2월 12일 평북 선천으로 돌아온 이승훈은 장로교 목사 梁甸伯의 집에서 장로 李明龍, 목사 劉如大·金秉祚 등과 천도교측의 제의를 의논하고, 즉석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상경채비를 차렸다. 이승훈은 2월 14일 평양으로 가서 장로교 목사 吉善宙, 감리교 목사 申洪植 등과 만나 서울과 선천에서의 결정을 설명하였다. 두 사람 역시 참여를 승낙하였다.

이승훈은 2월 17일 다시 상경하여 소격동 김승희의 집에서 박희도를 만나 서울 기독교계의 이런 소식을 듣고 2월 20일 수창동 229번지 박희도의 집에서 남감리교 목사 吳華英·鄭春洙, 북감리교 감리사 오기선·신홍식 등과 회합하고, 또한 남대문로 5가의 威台永의 장로교 집에서 세브란스병원 사무원이갑성, 평양기독서원 총무 安世桓, 장로교 조사 吳尙根, 장로교 목사 玄楯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관해 협의하였다. 대체로 이때까지의 기독교측 논의는 천도교와 단합을 포기하고 기독교 단독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되, 독립운동의 방법은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며, 연고에 따라 지역별로 분담하여 동지를 모을 것을 합의해 가고 있었다. 이튿날인 2월 21일 최

2) 최린, 위의 책, 186쪽.

남선은 이승훈이 은거하고 있던 집을 방문하여 일제 경찰의 주목 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함께 최린의 집을 방문하여 기독교측과 천도교측간에 독립운동 추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이 기독교측의 독자적인 계획 추진을 밝히자 최린은 민족독립운동이 절대 통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³⁾ 이승훈은 이 문제를 기독교 동지들과 의논하여 오겠다고 하며, 기독교측에서 곤란을 받고 있는 자금문제를 위해 3천 원에서 5천 원 가량의 자금을 천도교측에서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린은 그날 저녁 동대문 상춘원의 손병희 교주에게로 가서 이를 보고하고, 5천 원을 융통해 주도록 허락을 받았다. 다음날인 22일 천도교 금융관장 盧憲容이 5천 원을 최린에게 가져 왔고, 최린은 소격동의 이승훈 거처로 직접 전달하였다. 기독교측에서는 그 전날 최린과 이승훈의 회동 이후 남대문 세브란스 병원 내 이갑성의 집에서 이승훈·박희도·오기선·신홍식·함태영·오화영·현순, 수원 삼일여중학교 교사 김세환 등이 모여 의논 끝에 천도교측의 운동방법을 정확히 탐문해 본 후에 합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그 교섭을 이승훈과 함태영 두 사람에게 일임하였다.⁴⁾ 기독교측에서 천도교측의 운동방법을 탐문해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천도교측에서 만주로부터 무기를 들여와 폭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풍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2일 저녁 최린의 집에 온 이승훈과 함태영으로부터 기독교측의 의논결과를 전해 듣고, 또 천도교측의 무장투쟁 계획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최린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해명하였다.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독립청원’이나 ‘독립선언’이나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측은 독립청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최린은 이번 독립운동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외적인 환경과 우리의 자주적 정신의 전통에 의한 독립운동이므로 독립청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며,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에 의한 독립운동의 일원화가 아니면, 민중을 총동원할 수 없고, 민족정신의 위대성을 발휘할 수 없음을 역설하자 두 사람도 이에 찬성을 표하고, 동지들과 의논한 후 회답하기로 하였다. 이날 3인의 회합은 3·1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이었다. 그날밤 기독교측의 두

3) 최린, 위의 책, 188쪽.

4) 최린, 위의 책, 189쪽.

대표는 돌아가 천도교측과 합동할 것과, 천도교측의 주장과 같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승훈·함태영 두 사람을 기독교측 대표로 선정하고, 이후의 천도교측과의 제반 교섭을 일임하였다. 2월 24일 이·함 두 사람은 다시 최린의 집에 와서 기독교 대표 자격으로 무조건 천도교측과 합동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의 연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또 독립운동의 추진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거사일은 3월 1일 오후 2시로 하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독립을 선언한다.
- ② 〈독립선언서〉는 비밀리에 인쇄하여 서울에서는 독립선언 당일 군중에게 배포하여 만세를 부르게 하며, 지방에는 이를 분송한다.
- ③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에 분송할 때 서울에서의 일시 및 〈독립선언서〉 배포 절차를 전달하여 각 지방에서도 서울을 따르게 할 것.
- ④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기초와 〈독립선언서〉의 인쇄는 천도교측에서 담당할 것.
- ⑤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분송은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에서 각각 담당할 것.
- ⑥ 일본 정부와 일본 귀족원·중의원의 양원에 보내는 통고문은 천도교측에서 담당하여 보내고, 미국 대통령과 파리 평화회의의 각국 대표에게 보내는 청원서는 기독교측에서 담당하여 보낼 것.
- ⑦ 조선민족대표로서 각 서면에 연명할 사람은 천도교와 기독교에서 각각 십수 명을 선정하도록 할 것.
- ⑧ 독립운동에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불교도도 연명에 참가시킬 것.

최린은 기독교측과 연대를 성사시킨 후 운동의 민족적 통일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불교측에 대해서도 교섭상대를 물색한 끝에 2월 24일 밤 서울 재동 43번지 韓龍雲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시국관을 떠보며 의향을 확인한 후 그 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한용운은 불교측에서도 동지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고 일제의 감시가 심하여 불교측에서는 한용운과 白龍城 두 사람만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일제하에서 많은 불교인들이 친일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혁신운동을 통하여 민족불교의 확립과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던 이 두 사람은 당시의

민족불교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한용운은 월간지 《唯心》을 발간 하면서 청년 계몽활동을 펴고 있었던 까닭에 불교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⁵⁾

천도교·기독교·불교의 연대를 이룩한 위에 儒林과의 연대를 이루어야 완전한 민족운동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유림의 대표격인 김윤식·윤용구 등은 초기에 민족대표로 나서 줄 것을 교섭하려 접촉을 시도했을 때 참가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이었으며, 한용운이 지방 유림의 대표격인 郭鍾錫을 경남 거창으로 방문하여 접촉을 시도했으나, 촉박한 시간과 일제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경북 성주의 金昌淑에게도 成泰英을 통해 독립운동계획을 알려 주고 유림으로서 참여를 권유했으나, 모친의 병환 때문에 2월 그믐에야 서울에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다음 날 발표가 예정되어 連署를 할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 이에 김창숙은 유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것을 통곡하며 아쉬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유림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천도교·기독교·불교의 3교만 통일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림들은 민족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쳤으나, 많은 지역에서 광무황제의 인산에 참여차 상경하여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계 인사들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 데에는 일제에 의해 모든 사회 단체가 해산당하였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어 다른 조직이 없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피해 해외 망명함으로써 국내의 대중들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조직적인 힘은 종교단체와 학교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문학교 학생들은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에 큰 자극을 받아 이에 호응하여 독립운동을 하고자 비밀리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박희도와 이갑성은 독립운동을 위하여서는 학생층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1919년 1월 하순 경 연희전문학교 金元璧, 보성전문학교 康基德, 경성

5) 김광식, 《용성》(민족사, 1999), 108~109쪽.

의학전문학교 韓偉健·金炯璣, 경성공업전문학교 朱鍾宜, 경성전수학교 김공후를 서울 시내 관수동 중국요리점 大觀園에서 만나 독립운동에 학생들이 나설 것을 권유하였다. 이갑성은 따로 2월 12일과 14일 음악회를 가탁하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구내 자택에서 김원벽·김형기·尹滋璘·金文珍·裴東奭·한위건 등 전문학교 학생 지도자들을 불러모아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독립운동의 추진을 격려하였다. 박희도는 종교계의 독립운동 추진에 참여하면서 강기덕·김원벽 등과 만나 운동준비의 진전 상황을 알려주며 학생단의 결속을 격려하였다. 이들 서울 시내 전문학교 학생대표들은 2월 20일 경 승동 예배당에서 제1회 학생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합의하였다.

- ① 각 학교의 제1선 대표자로 진성득(경성전수학교)·김형기(경성의학전문학교)·김문진(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金大羽(경성공업전문학교)·강기덕(보성전문학교)·김원벽(연희전문학교)을 선정하여 각자가 그 학교를 대표한다.
- ② 위의 각 학교 대표가 일제 관헌에 체포되는 경우 뒷 일을 처리하며 다른 방면의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제2선 책임자로 李容堯(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한위건(경성의학전문학교)·윤자영(경성전수학교)·韓昌桓(보성전문학교) 등을 선임한다.
- ③ 위의 제1선 각 학교 대표들과 제2선 책임자들은 각 학교별로 각각 동창 학생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한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1983, 69쪽).

2월 23일 박희도는 김원벽을 만나 각 학교 대표자들이 종교계 대표들과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할 것을 종용하여, 승낙을 얻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3월 초 독립선언을 하고 시위운동을 개시하도록 결정하여 학생들에게 통고하였다. 이에 학생단 대표들은 2월 25일 정동예배당 李弼柱 목사 방에서 위의 대표자들과 한위건·한창환·윤자영 등이 모여 3월 1일 각 전문학교와 중등학생은 모두 파고다 공원에 집합하여 시위운동에 참가하도록 하고, 그 후 형편에 따라 전문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대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2월 26일 김문진·이용설·윤자영·金鐸遠·崔景河·羅昌憲·朴潤夏·金榮洮 등과 기타 전문학교 대표자들이 다시 이필주 목사의 집에 모

여 제2회의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제1회, 제2회 독립운동에서 체포를 모면한 학생들은 뜻을 굽히지 말고 더욱 독립운동을 계속하여 최후의 목적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였다.⁶⁾

한편 이런 준비과정과 함께 학생단 대표들은 각자가 중등학교 대표자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을 결속하기 위해 김원벽은 경신학교 강우열·姜昌俊, 경성고등보통학교 朴快仁 등을, 강기덕은 평안도·함경도 출신으로 조직된 서북친목회의 회원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월 초부터 경성고등보통학교 金栢杵·朴老永, 중앙학교 張基郁, 선린상업학교 李奎宋, 보성고등보통학교 張彩極·全玉珏 등을 안국동 박희용의 집에 초대하여 각자 학교의 학생들에 대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한 날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였다. 각 중등학생들도 이에 찬성하여 그 때가 오는 것을 고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학생단 또한 종교계와 함께 민족대연합전선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민족대연합전선의 전위로서 3·1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33인 민족대표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천도교에서는 孫秉熙·崔麟·權東鎭·吳世昌 4인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해 오다가 2월 25, 26일 이틀에 걸쳐 교회간부 11인에게 알려 15명의 천도교측 민족대표를 선정하였다. 천도교측 15인은 위 4인과 함께 중앙의 權秉惠·梁漢默·李鍾一·李鍾勳·洪秉箕·金完圭와 당시에 상경해 있던 평양의 林禮煥·羅仁協, 용강의 洪基兆, 중화의 羅龍煥, 임실의 朴準承이었다.

기독교에서는 26, 27일에 걸쳐 비밀회합을 거듭한 결과 장로교에서는 정주의 李昇薰·金秉祚·李明龍, 평양의 吉善宙, 선천의 梁甸伯, 의주의 劉如大, 서울의 李甲成, 감리교에서는 평양의 申洪植, 서울의 朴熙道·李弼柱·申錫九·吳華英·金昌俊, 원산의 鄭春洙, 해주의 崔聖模, 기독교신보사의 朴東完 등 대표 16인으로 선정되었다. 불교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韓龍雲과 白龍城 2명이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운동의 준비과정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천도교의 朴仁浩·盧憲容, 천도교와의 연대과정에서 이승훈과 더불어 기독교계의 대표로서 활약했던 咸台永, 수원의 金世煥 등은 후속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1983), 70쪽.

적인 일을 위해 민족대표에 들지 않았다. 이러한 인물까지 포함하여 민족대표 48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2) 〈독립선언서〉 준비

2월 초순 최린이 최남선·현상윤 등과 운동계획을 협의할 때 운동의 취지를 선언문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때 육당 최남선은 자신이 그 기초를 맡겠다고 나섰다. 육당은 이 일을 맡아 낮에는 연락사무를 하고, 밤에 아무도 없는 때를 타서 3~4일에 한 편씩 2월 22~23일까지 이 일을 완성했다. 육당은 민족대표들에 의한 〈宣言書〉, 일본정부, 귀족원·중의원 양원 및 조선총독부에 보내는 〈獨立通告書〉, 미국 대통령 윌슨과 파리평화회의에 보내는 〈獨立請願書〉를 각각 작성하게 되었다. 육당은 일경의 감시를 피하여 을지로 3가의 林圭의 일본인 부인 집에서 선언서와 그밖의 문건들을 기초하였다.

이 중에서 〈宣言書〉는 2월 10일 경에 초안을 완성하여 2월 15일 최린에게 건네 주었다. 최린이 받아 벽에 걸린 거문고 안에 감추어 두었다가 손병희·권동진·오세창에게 보여 동의를 얻은 후 기독교측의 함태영에게 주어 기독교측의 동의를 구하게 하였다. 최남선은 나머지 문서들을 그 후 완성하여 2월 25일 천도교측에 전달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普成社 사장 이종일에게 인쇄를 맡겼다. 그러나 보성사 직공들의 기술이 부족하여 최남선이 자신이 경영하는 新文館 직공을 시켜 조판을 하여 최린의 집에 두었다가 2월 27일 밤중에 시작하여 11시까지 1차로 2만 5,000장, 2차로 1만 장을 찍어 총 3만 5,000장을 찍었다.⁷⁾ 이렇게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장중한 문체와 고원한 사상을 담은 명문장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과, 독립의 역사적·원리적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7) 이종일, 〈목암 이종일 비망록(4)〉(《한국사상》 19, 1982), 232쪽.

〈독립선언서〉가 최남선의 신문관 조판의 본(5호-10.5포인트 활자)과 보성사 조판본(4호-14포인트 활자)의 2종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오수열, 〈독립선언서의 인쇄경위〉, 《인쇄계》, 1986. 3).

〈宣 言 書〉

吾等은 茲에 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此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大義를 克明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誥하여 민족자존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仗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誠忠을 합하여 차를 佈明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基因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是 1 天의 明命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何物이던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야 유사 이래 누천년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십년을 過한 지라. 我 생존권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이며,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이며, 민족적 尊榮의 훼손됨이 무릇 기하이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세계문화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 기하이노.

噫라, 구래의 억울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고통을 擺脫하려 하면, 장래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廉義의 압축 銷殘을 흥분 신장하려 하면, 각개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遂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苦恥의 재산을 遺與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 완전한 景福을 導迎하려 하면, 최대 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이천만 각개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하고, 인류 通性和 시대 양심이 정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금일, 吾人은 進하여 取하매 何強을 挫지 못하랴, 退하여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병자수호조규 이래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얏다 하야 일본의 無信을 죄하려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我 祖宗世業을 植民地 視하고, 아 문화민족을 土昧人遇하야, 한갓 정복자의 快를 貪할 뿐이요, 아의 구원한 사회기초와 卓犖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야 일본의 少義함을 책하려 아니하노라. 자기를 策勵하기에 급한 오인은 他的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有할 뿐이요, 결코 他的 破壞에 在치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自家의 신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舊怨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타를 嫉逐 배척함이 아니로다. 구사상, 구세력에 羈縻된 일본 위정가의 功名的 희생이 된 부자연, 又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개선 匡正하야, 자연, 又 합리한 正經大原으로 귀환케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써 出치 아니한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압과 차별적 不平과 통계 숫자상 허식의 하에서 이해 상반한 양 민족 간에 영원히 和同할 수 없는 怨溝를 去益 深造하는 금래 실적을 觀하랴.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적인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毗차간 遠隔召福하는 淸경임을 明知할 것 아닌가. 또 이천만 含憤蓄怨의 民을 위력으로써 구속함은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리가 아닐 뿐 아니라, 차로써 인하여 동양 안위의 주축인 사역만 支那人의 일본에 대한 危懼와 猜疑를 갈수록 농후케 하여, 그 결과로 동양 全局이 共倒同亡의 비운을 招致할 것이 명확하니, 금일 吾人의 조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生榮을 遂하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쏠게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여금 몽매에도 면치 못하는 불안, 공포에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오.

아아, 신천지가 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來하도다. 과거 前世紀에 연마 長養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세계에 來하여 만물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호흠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勢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이니, 천지의 復運에 際하고 세계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주저할 것 없으며, 아모 기탄할 것 없도다. 我的 高유의 자유권을 護全하여 生旺의 낙을 飽享할 것이며, 我的 자조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春滿한 大界에 민족적 精華를 結紐할지로다.

오등은 자에 奮起하도다. 양심이 我와 同存하며 진리가 아와 并進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古巢로서 활발히 起來하여 萬彙群象으로 더부러 흔쾌한 부활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歲 祖靈이 오등을 陰佑하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外護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前頭의 광명으로 薦進할 따름 인저.

〈公約三章〉

- 一. 금일 吾人의 此舉는 정의, 인도, 생존, 尊榮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一走하지 말라.
- 一. 최후의 一人까지 최후의 一刻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 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라.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일 조선민족대표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위의 <독립선언서>는 38자 46행으로서 6소절의 본문과 강령인 공약3장, 조선민족대표 33인의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소절 6행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가적 독립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 이 독립선언의 당위성을 보편성(하늘의 명령)과 역사성(시대의 대세)으로 주장하며, 그 성격은 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임을 밝혔다. 이것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던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극복하여 인류 共存同生의 새로운 사회개조·세계개조 사조를 반영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논리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제2소절 4행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치하에서의 피해를 열거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이 구시대적이며, 침략주의·강권주의로서 “신천지”로 대변되는 세시대, 즉 도의의 시대와 대비시켰다. 선언서에서는 일제 지배의 피해로서 역사적으로 누천년 이래 처음 이민족 지배이며, 생존권의 박탈, 문화적·정신적으로 심령상 발전의 장애, 정치적으로 민족적 존영의 훼손, 인류사적으로 세계문화에 기여할 기회 상실을 들었다.

제3소절 6행은 독립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간적으로는 과거(구래의 억울 선창), 현재(현재의 고통 파탈), 미래(장래의 협위 삼제)를 통하여, 주체 단위별로 민족(민족적 양심 흥분 신장), 국가(염의의 신장), 개인(인격의 발달), 자제(고치적 재산 불유여), 자자손손(경복)을 위해 독립이 필요한 것임을 밝혔고, 그 방법으로서 개개인이 결의를 품고, 정의와 인도라는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감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제4소절 19행은 조선독립문제의 성격과 의미를 밝혔다. 이것은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어서는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자기건설이며, 한 일관계에 있어서는 병합 이래의 착오상태의 개선 광정의 과정이며, 동양 전반에 있어 동양평화를 보장하는 일이며, 세계 전체와 관련하여 세계평화에 중요한 한 계단이 됨을 주장하였다.

제5소절 7행은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밝혔다. 조선의 독립은 시대의 대세로서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며, 신문명의 서광이 비치고, 신천지의 전망을 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꺼릴 것이 없음을 밝혔다.

제6소절 4행은 독립의 보편적 당위성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담았다. 양심과 진리가 동존병진하며, 천백세 조령이 음우하고, 전세계 기운이 외호하므로, 즉 우리 내면의 확신과 외부 환경 모두가 독립의 정당성을 굳게하고, 지원하므로 착수가 곧 성공이다. 그러므로 곧장 나아가는 일만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약3장은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첫째 고원한 자유의 이상으로 행동할 것이며, 배타적 감정으로 내달리지 말 것. 둘째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독립을 정당하게 주장할 것. 셋째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비폭력으로 할 것을 촉구하였다.

(3)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최후의 회담

〈독립선언서〉의 배포는 오세창이 총책임을 맡고 실무는 이종일이 담당하였다. 선언서의 배포는 천도교·기독교·불교·학생단 등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주로 서울 시내에 학생단에서, 지방 각처는 천도교와 기독교측에서 분담했다. 천도교측에서는 印宗益-충청도·전라도, 安商德-강원도·함경도, 金洪烈-평안도, 李景燮-황해도 등으로 전달책임을 맡았다. 기독교측에서는 金昌俊-평안도, 李甲成-경상도, 吳華英-경기도·함경도, 咸台永-평안도 지방 보충 등으로 분담했다. 불교측에서는 한용운이 전달책임을 맡았으며, 학생단에게는 이갑성이 책임을 맡았다. 이와 같이 각기 책임 맡은 지역으로 내려가 3·1운동 발발 전에 경상도로부터 평안도·함경도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역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파리 평화회의와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독립청원서〉는 기독교의 金智煥이 그 책임을 맡아 3월 1일 서울역을 출발하여 신의주로 가서 미리 중국 상해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현순에게 압록강 건너 안동에서 우편으로 부쳤다. 일본 정부와 의회에 보내는 〈독립통고서〉는 천도교의 임규가 담당하여 2월 27일 서울을 출발하여 3월 1일 동경에 도착하였다. 임규는 일본에서 〈독립통고서〉와 〈독립선언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민족대표들이 기명 날인한 지면을 각각에 붙여 일본 정부와 귀족원·중의원에 우송하였다. 기독교측의 安世桓도 별도로 3월 1일 일본 동경에 도착하여 3월 4일 일본 경

시청을 방문하여 경시총감을 면회하고, 조선독립의 이유를 설명한 다음 <독립통고서>와 <독립선언서>를 일본정부 각료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2월 28일 오후 5시 서울 가회동 170번지 손병희 집의 산장에서 민족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모임을 열었다. 서로 인사를 교환한 후 손병희의 인사말을 듣고,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첫째 박희도가 독립선언의 장소를 군중심리에 의해 폭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파고다 공원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중국요리점 명월관의 지점 태화관으로 변경하였다. 참석자 모두 이에 찬성하였다. 둘째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서>를 조선총독부로 보내기로 결의하고, 책임자를 이갑성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갖되 33인 전원이 행동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넷째 독립선언 후 일제 경찰이 체포하러 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함께 체포당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과를 주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3월 1일의 독립선언식은 불가피하게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학생·시민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3·1운동의 발발

(1)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1919년 2월 28일 집에 돌아온 최린은 다음날 직면할 일제의 체포와 고문, 어쩌면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까지 지었다.⁸⁾ 아침에 일어난 최린은 대문안에 떨어진 <독립선언서> 2장을 보고 이 역사적인 문서가 이미 시내에 배포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손병희의 집으로 가서 권동진·오세창·손병희와 함께 인력거에 몸을 싣고 낮 12시 쯤에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도착하였다. 주인 안순환을 불러 산정 별관에 회석을 정하고, 30여 명 분의 점심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얼마

8) 최린, 앞의 책, 199쪽.

후부터 민족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오후 2시까지 길선주·유여대·김병조·정춘수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였다. 길선주는 평양에서, 정춘수는 원산에서, 유여대는 의주에서 그날 늦게 도착하였고, 김병조는 상해로 탈출하여 국내에 없었다. 이때 태화관 주변에는 천도교와 기독교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기하고 있었고, 별실 옆방 6호실에는 기독교의 李奎甲, 천도교의 李炳憲 등 청년 6명을 비밀리에 잠복시켜 놓고 기록과 파고다공원과의 연락을 취할 책임을 맡겨 놓았다.⁹⁾

손병희는 이종일에게 <독립선언서>를 직접 인쇄·배포했으니 크게 낭독하라고 하여 오자를 고치고 낭독하였다.¹⁰⁾ 이어 최린에게 경무총감부에 전화로 독립선언의 사실을 통고하라고 하고, 총독부에는 이갑성이 金允珍을 보내어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종로경찰서에는 인력거꾼을 시켜 제출했다. 긴장된 시간이 한 10분 흘렀을 때 일본 경찰 수십 명이 달려와 식당을 포위하였다. 이때 파고다 공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시민들과 함께 긴장 가운데 독립선언의 장소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민족대표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던 학생대표 강기덕·김원벽·한위건이¹¹⁾ 태화관으로 달려와 갑작스런 장소변경에 항의하며 파고다 공원으로 가기를 거세게 요청했다.¹²⁾ 손병희와 최린이 이해를 시켜 그들을 돌려 보냈다.

일경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한용운이 “오늘은 조선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날이며, 공동합심하여 조선독립을 기도하자”는 式辭를 하였다. 일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불렀다. 민족대표들은 경시총감부로 차례로 연행되어 갔다. 이종일·이승훈·나용환이 한 차에 태워져 실려 갈 때에는 200~300장씩의 <독립선언서>를 군중들이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 태화관 바깥과 시내의 군중들이 차를 에워싸고 감격

9) 이병헌, 《3·1운동비사》(시사시보사 출판국, 1947), 5쪽(이규갑 서문)·66쪽.

10) 이종일, 《목암 이종일 비망록(4)》, 229쪽.

《최린자서전》에는 “3시 정각에 선언서 백매를 탁상위에 놓아두고 각인의 열람에 제공하고 낭독만은 생략하였다”고 되어 있다(최린, 앞의 책, 201쪽).

11) 이종일, 《목암 비망록》, 230쪽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태화관으로 몰려왔다”고 되어 있다.

12) 이병헌, 앞의 책, 66쪽.

과 흥분속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따라 외쳤다. 마지막으로 한용운과 최린이 실려 갈 때는 목이 쉬어 군중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¹³⁾

(2) 만세시위운동의 시작

3월 1일 오후 2시 30분 민족대표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학생대표들은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그날의 파고다 공원의 광경을 이미록의 묘사를 통해 볼 수 있다.¹⁴⁾

내가 공원에 갔을 때 이미 공원은 경관들로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 담장 내부는 단 열 발자국도 건지 못하게 사람이 꽉 차 있었다. … 갑자기 깊은 정적이 왔고 나는 누군가가 조용한 가운데 연단에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을 보았다 …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더니 다음에는 그칠 줄 모르는 만세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좁은 공원에서는 모두 전율하였고, 마치 폭발하려는 것처럼 공중에는 각양각색의 뼈라가 휘날렸고 전 군중은 공원에서 나와 시가행진을 하였다. 우리와 같은 만세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뼈라를 날리며 행진하였다(전혜린, 《압록강은 흐른다》, 여원사, 1959).

시민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발표한¹⁵⁾ 파고다 공원의 군중들은 “독립만세”를 연창하며 시가행진을 했다. 서쪽으로 향한 대열의 제1대는 서울역에서 통의동, 정동, 미국영사관, 이화학당, 광화문 앞, 서대문, 소공동, 충무로로, 다른 1대는 무교동, 대한문으로, 동쪽으로 향한 시위대는 창덕궁, 안국동, 광화문, 서대문, 대한문, 충무로, 동대문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온 서울 장안이 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13) 최린, 앞의 책, 203쪽.

14) 작가 이미록은 본명 李儀景.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 그 후 지하 유인물을 만들다가 일경의 추적을 받자 중국을 통해 독일로 망명하여 고국에서의 성장과정과 경험을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로 작품화하였다.

15) 다음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라고 하였다.

이종일, 《목암 이종일 비망록(4)》, 234쪽.

이병현, 앞의 책, 66쪽.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中(탐구당, 1973), 14~17쪽.

동쪽으로 향한 다른 시위대는 창덕궁 앞, 안국동, 광화문 앞, 서대문, 프랑
스영사관에 이르러 일부는 미국영사관, 대한문 앞, 소공동, 충무로(本町)를 거
쳐 종로통, 동아연초회사, 동대문으로 향했다.

그날 대한문 앞 광장에는 광무황제의 돌연한 죽음을 애도하는 각도의 유생
들이 엮드려 곡하는 것을 많은 남녀노소들이 운집하여 지켜보고 있었다. 파고
다공원의 시위대열에 앞서 검은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2, 3명씩 조를 지어 먼
저 달려오더니 군중들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모자를 벗어 들고 열변을 토했다.
학생들을 에워싸고 있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자 금방 군중 전체에
전파되어 만세소리가 대한문 광장을 뒤흔들었다.¹⁶⁾ 상인들은 점포를 철시하고
뛰쳐 나오고, 因山을 구경하러 시골에서 상경한 유생들, 평안도 수건을 쓴 부
녀자들, 백립을 쓴 노인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담하여 몇 십만의 인파가
서울 거리마다 넘쳐났다. 대열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각국 영사관, 일제 주요
기관 등을 누비며 나갔다. 행렬은 꼬리를 물었고, 대열마다 한번씩은 덕수궁
정문 앞에 당도하여 대한문 안으로 몇 길을 들어가서 황제의 빈전을 향하여
절하고 물러갔다. 해가 질 때까지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¹⁷⁾

《조선독립신문》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지하신문과 격문들이 시가에 배포
되었다. 이날 전주에서 상경하여 서울 시가지 시위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은
당시의 시위광경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그때 인심은 극도로 동요되고 학생은 교복을 벗고 白衣에 흰 헌팅을 쓰고
서로 만나는 대로 인사 뿐이요, 말은 하나도 건네지 않고 이처럼 학생들의 鬪
意는 불타고 있었다. 거리의 긴장은 무서웠고, 독립신문을 비롯한 비밀신문이
무려 수십 종이 발행되어 돌며, 거리마다 만세성이 물끓듯 적이 컸는지라. 일경
은 말을 타고 3尺 가량이나 되는 철망치를 휘두르며, 소방부는 몽둥이를 들고
발광하듯이 우리 동포를 사상케 하였고, 거리며 동리 어구마다 변장한 倭警이
서서 加害를 하니 그 수 不知其數라. 그럴수록 민심의 타는 애국의 至情은 더
욱 더 고양의 일로를 달릴 뿐이었다(유병민, <내 삼일운동의 기록>, 《신천지》 1
-2, 1946, 112~113쪽).

16) 윤백남, <3·1운동발발 당일의 인상> (《신천지》 1-2, 1946), 118~119쪽.

17) 최은희, 앞의 책, 18쪽.

시위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시민들이 합세하여 함께 만세를 불렀다.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던 崔恩喜 여사는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독일 영사관에서 회정하여 의주통을 지나갈 적에는 길가에 냉수동이가 즐비하게 놓이고, 평양수건을 쓴 할머니들이 지켜서서 바가지로 물을 떠 주다가 바가지째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르던 것이 꽤 인상적이었다. ... 우리 일대는 거기서 승례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 진고개 골목으로 들어섰다. ... 셀 틈이 없는 좁은 골목이라 본정 2정목에 이르러서부터는 몽땅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상가가 모두 펼쳐 나와 협력하였다. ...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거를 없었다. 헌병들은 양편 손에 한 사람씩 손목을 잡고 남산 밑에 있는 경무총감부로 연행해 갔다. 군중들은 끌려가는 길에서도 힘차게 만세를 불렀고, 총감부 마당에 꿇어앉은 사람들도 새 사람이 잡혀 들어올 적마다 마추들 바라보며 만세를 불렀다(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中, 탐구당, 1973, 100~101쪽).

3월은 해가 짧아 일찍 어두워졌다. 저녁 7시까지 서울 중심가에서는 시위운동이 일단 끝났으나 밤 8시 경 마포전차 종점에서 전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하였고, 밤 11시 경에는 신촌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 학생 약 200명이 집결하여 시위를 하였다.¹⁸⁾

일제 총독부는 서울 중심가의 군경을 총동원하는 한편, 용산의 일본군 보병 3개 중대와 기마병 1개 소대를 시위해산에 투입하였다. 일제는 평화적인 학생, 시민들의 시위에 손을 쓸 방법을 몰라하다가 해가 저물고 난 뒤부터 경찰·헌병·군인들이 일본 진고개 상점가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곳을 통과하는 시위대원들을 모조리 검거했다. 이 날 134명이 검속되었다.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시작된 같은 날에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에서도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이들 지역에 사전에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고, 사전 조직화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18) 《警務日次報告》 제3보.

평양에서는 오후 1시부터 예수교 감리파와 장로파 신도들이 광무황제 奉悼會를 거행한 후 갑자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한 후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진남포에서는 오후 2시 예수교회에 기독교인 및 학생 약 130여 명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정주에서는 기독교인 300~400명이 집합하여 오후 5시 경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에 관한 연설을 시작하였다. 평안북도 선천에서는 예수교 소속 성신학교 생도 수백 명이 오후 2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연호하며 시위행진을 하며 경찰서와 군청에 쇄도하였다. 함경남도 원산에서는 오후 4시 경 약 500명이 악대를 선두에 세워 일본인 시가를 행진했다. 조선인 거리에서는 약 2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였으며, 일경이 쉽게 해산시킬 수 없어 일본인 소방부들과 재향군인회까지 동원하였다.¹⁹⁾

이렇게 서울의 과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위의 7곳에서 이에 호응하여 동시에 점화되었으며, 3월 2일에는 함흥·해주·수안·황주·증화·강서·대동 등지에서 시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3일에는 충남 예산·개성·사리원·수안(재)·송림·곡산·통천 등지에서 일어났다. 이처럼 3·1운동은 서북지방과 경기·충청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 5월까지 계속되어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3) 국내의 만세시위운동

가. 서울의 시위운동

3월 2일 정오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400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종로경찰서 앞으로 나아갔다. 일경이 지휘부 약 20명을 체포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노동자였고, 다수의 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날은 일요일이며 황제의 국장례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 오후 4시까지 시내에서는 시위운동이 없었으나, 각 지방에서 국장배관을 위해 입경한 사람들이 수 만에 달하여 시내의

19)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3, 1979), 3쪽.

혼잡이 극에 달해 있었다.²⁰⁾ 밤 11시 반 경 세브란스병원 사무원 鄭泰榮이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자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보신각에 들어가 종을 계속 울렸다.

3월 3일은 광무황제 장례날이었다. 大興가 덕수궁에서 장례식장인 훈련원(동대문 운동장)으로 향하는 종로거리에는 수십 만의 군중이 운집하여 지켜보았으나 이날은 시위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에는 《조선독립신문》 제 2호·《독립창가》·《국민회보》·《경고 아이천만동포》 등 지하신문과 격문들이 시내 도처에 살포되었다.

3월 5일 서울역 앞에서 학생단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운동이 있었다. 오전 8시부터 각급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서울역 앞에 집결하기 시작하여 9시경에는 수만 명의 대군중을 이루었다. 구동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연희전문학교생 강기덕이 인력거를 타고 나타나 “朝鮮獨立”이라고 크게 쓴 깃발을 휘날리며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쳤다. 군중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높이 불렀다. 여학생들은 감격에 겨워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뒤이어 흰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생 김원벽이 “조선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휘날리며 인력거를 타고 나타나 군중의 선두에 섰다. 선두의 강기덕과 김원벽의 지휘에 따라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며 남대문으로 향했다. 학생 중에는 붉은 형짚을 팔에 두른 자도 있었고,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나아갔다. 남대문에서 경찰관헌의 제지를 받아 강기덕·김원벽 등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남대문 시장으로 해서 조흥은행, 종로 보신각으로 향했으며, 다른 1대는 남대문에서 대한문 앞 무교정을 지나 보신각에서 합류하여 행진을 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²¹⁾

3월 5일의 제2차 시위 이후 서울에서의 시위운동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20)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3, 1979), 8쪽.

21) <김형기 등 예심종결결정서>.

최은희, 앞의 책, 113쪽.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3, 1979), 13쪽.

각종의 격문들이 시중에 살포되는 가운데, 상인들은 철시하고, 공장의 노동자·고용인·행상인·일반 서민들이 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상인들은 3월 1일부터 대부분 철시에 들어가 8일에는 완전철시, 시위운동에 참여를 결의하여 3월말까지 완전철시에 들어갔다. 당황한 일제는 상인 대표 60명을 초청하여 수 차례 개점을 설득하였으나 거부되자 4월 1일부터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개점을 시켰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3월 8일 오후 6시 서울 용산의 조선총독부 인쇄소 노동자 20명이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야간작업을 위해 남아 있던 200명의 노동자들이 시위운동을 벌여 주동자 19명이 일경에 구속당하였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전차회사 차장과 운전수 120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여 전차운행이 중단되었다. 이 파업은 3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되어 시내교통이 마비되었다. 3월 9일 12시에는 동아연초회사 소년노동자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개시하였다. 10일에는 서울 시내 각 회사의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종로 4가에서는 노동자들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계속되어 15일 노동자들이 출근율은 10%에 불과하였다.

탄압이 가중되는 속에서도 22일 봉래동에서 노동자 약 300명이 태극기를 세워놓고 노동자대회를 열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부근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군중은 800여 명으로 불었다. 이로부터 27일까지 서울 시내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운동과 전차 파괴운동이 일어나 서울 시위운동이 다시 한 번 최고조에 달했다.

3월 5일의 독자적인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학생 지도부가 검거되고, 학교의 휴교조치로 학생들의 시위운동 확산에 한계를 맞게 되자 12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 앞에서 文一平 같은 지식인, 金百源·車相晉 등 기독교 목사, 柳濬根·白觀亨 같은 유림이 <12인 등의 장서>(일명 ‘哀願書’)를 낭독하며 제2의 독립선언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꺼져가는 운동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였던 것이다.²²⁾

청년·학생들은 시위운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지하 유인물의 제작 배포와

22) 이정은, <3·1운동기 12인 등의 장서>(《한국독립운동사연구》13, 1999).

지방에의 시위운동 전파, 민중세력과 연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독립신문》의 발행이었다. 처음 이 지하신문은 천도교 이종일의 지시하에 2월 28일 보성전문학교 교장 尹益善의 명의로 발간되어 3월 1일 시중에 배포되었다. 이종일과 윤익선 등이 체포되자 천도교 李鍾麟과 경성서적조합 서기인 張棕鍵이 제2호부터 4호까지 발행을 이어 받았으며, 이종린이 체포되자 경성전수학교생 최치환·임승옥·최기성·강봉두의 도움을 받으며 장종건이 9호까지 발간하고 구속되었다. 장종건이 구속된 이후 학생들이 전적으로 이 지하신문의 발간을 도맡아 보성고보 4년생 장채극, 3년생 이철 등으로 조직화하고, 4, 5일 만에 한 번씩 이를 인쇄 발행하여 4월 26일 제27호까지 발행하였다. 그 후에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해 8월 하순 제43호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국민회보》·《각성회 회보》·《반도의목탁》 등 수백 종의 지하 신문과 유인물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선전활동은 이 운동을 대중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²³⁾

나. 시위의 전국확산

3월 1일 서울·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4개 道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은 서북지방과 경기·충남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파급되어 갔다. 강원도에서는 3월 10일 철원에서 최초의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 전북에서는 3월 3일 전주·군산·이리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4일 옥구에서 최초의 시위가 일어났다. 전남은 3월 3일 목포·광양·구례·순천·여수 등지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0일 최초의 시위가 광주에서 학생들에 의해 일어났다. 경남은 3월 3일 부산과 마산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1일 부산진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경북 대구에서는 3월 8일, 함북 성진에서는 3월 10일, 충북 괴산에서는 3월 19일 각각 최초의 시위가 일어나 도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3월 중순경에 들어서서는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집중적인 시위운동은 최소한 4월 말까지 두 달간 계속되었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매일 10회 이상 시위가 일어났으며, 시위운동의 정점을

23) 이정은, 〈3·1운동기 청년 학생층의 선전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7).

이런 4월 1일은 하루 동안 67회의 시위가 일어났다. 3월 27일, 4월 2일·3일은 50회 이상 일어났으며, 적어도 30회 이상 일어난 날만 15일이었다.

참여인원으로 보면, 수십만이 참여한 서울을 제외하고서도, 의주 3만 명, 강화읍 약 2만 명, 함천·삼가 1만 명, 선천 8,000명, 삭주군 대관 8,000명, 선천읍 6,000명, 순천읍 5,000명, 명천군 화대 5,000명 등 대규모의 시위도 많았다.

시위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시가지 대로상의 만세시위, 시골 장터에서 행한 장터 만세시위, 야간 산상의 봉화시위, 한 장소에서의 1회성 만세시위, 같은 장소에서 몇 차례 거듭된 시위운동, 인근 지역을 찾아다니며 행한 만세꾼들의 시위운동, 지역과 지역이 태극기를 이어 받으며 행한 릴레이 시위운동, 일제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시신을 떠메고 행한 상여시위, 장점 문을 걸어 잠근 상인들의 철시시위, 학생들의 동맹휴학시위, 노동자들의 파업, 광부들의 순사주재소 습격시위, 어린이 시위, 거지들의 시위, 기생들의 시위 등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체층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행한 총 시위 회수는 2,000회 이상, 연인원 200만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맨손의 우리 민중들은 손에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장터와 읍내 또는 시가를 행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서북지방과 경기도 남부 지역, 경남북 산간지역과 해변 지역 일대는 지역의 종교조직 또는 향촌 공동체적 유대를 활용하여 조직적·적극적으로 일본 관공서를 몰아내고, 완전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독립전쟁과 같은 양상도 있었다. 3월 2일 황해도 수안의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한 450~500명의 시위대는 수안 현병분견소를 찾아가 “이제 조선은 독립이 되었으니 일인들은 떠나라”고 요구하였다. 평안남도 성천에서도 천도교인이 중심이 된 시위대 1,000여 명이 현병분견소로 몰려가 식민지 통치를 규탄하였다.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 원곡·양성면에서 순사주재소를 방화, 면사무소, 우편소와 일본인 상점들을 파괴한 시위,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민들의 총기로 인명을 살상한 순사 처단 등은 대표적인 공세적 시위운동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본 군대가 진입할 때 맞서 싸울 준비로서 동리 산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항전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에서는 이 시기 시위대를 “독립군”이라 불렀다.

〈표〉 지역별 시위전개의 양상

유형	전기	중기	후기	지역별
1	A	A	O	서울
2	A	B	A	황해·평북
3	A	B	B	평남
4	B	A	A	경기
5	B	A	B	경북·함남
6	B	B	A	충남
7	B	B	B	전북·전남
8	B	O	A	강원
9	O	A	A	경남
10	O	B	A	충북
11	O	B	B	함북

A : 집중적 발발

B : 산발적 발발

O : 미약, 미발

끝났으며, 평남은 3월 초순에만 격렬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고 중순 이후 산발적인 시위로, 황해도와 평안북도는 3월 초순의 격렬한 시위 후 중순에 들어 산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3월 말 4월초의 후기에 다시 격화되었다. 이 네 지역은 종교조직을 통해 미리부터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경기도는 3월 초 산발적인 시위를 보이다가 3월 중순에서 4월초까지 집중적인 발발, 경북과 함남은 중기에 시위가 집중되다 후기에 들어 산발적 시위로, 충남은 중기까지 산발적 시위를 보이다가 후기에 들어 집중적 시위를, 전남과 전북은 전기간 동안 산발적인 시위를 보였다. 강원도는 초기에 산발적 시위를 전개하다 중기에 휴지기를 거쳐 후기에 집중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경남과 충북, 함북은 초기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중기 이후에 움직임

도별로 시위운동의 유형을 보면 그 유형이 다르다. 집중적으로 일어난 3월 초·중순, 3월 말 및 4월 초의 3기로 나누어 A : 집중적 발발, B : 산발적 발발, O : 미약·미발로 나누어 시위전개의 양상을 나타내보면 〈표〉와 같다.

대체로 시위운동은 서울·황해·평북·평남의 서북 축에서 3월 초순에 치열하게 일어났다. 이후 운동이 경기-충남-전남과 강원-함남의, 서남과 북동의 대각선 축과 경북으로 확산되었다. 각 지역도 전개양상은 달랐다. 서울에서는 초기의 열기가 중기까지 이어지다 후기에 들어서는 거의 시위운동이

이 시작되었다. 경남은 중기에 들어서자 격렬한 시위운동이 시작되어 후기까지 이어졌으며, 충북은 중기에 산발적 시위운동이 시작되어 후기에 가서 격화되었다. 함북은 중기에 시작된 산발적 시위운동이 후기까지 같은 양태로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시위운동은 다양한 양태를 띠고 전개되었다.

다. 중부지방

가) 경기도

경기도의 만세시위운동은 개성을 제외하면 3월 중순에 들어가면서 점화가 시작되어 3월 22·23일 경부터 4월 초순까지 연일 시위가 계속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였다.

개성에서는 3월 3일부터 시위운동이 시작되어 7일까지 매일 지속되었는데, 3일 개성 호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반 군중이 합세하여 1,500명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다음날에도 2,000명의 시위로 이어졌고, 6일에는 1,000명이 읍내에서 시위운동을 벌여 구금된 인사를 탈환하고자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후 30일부터 개성에서는 다시 1주일간 계속되었다.

도내 다른 지역에서는 서서히 시위운동이 시작되어 7일에는 시흥 읍내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와 동맹휴학, 9일에는 인천 읍내 만세시위, 10일에는 양평에서, 14일에는 양주에서 각각 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초순의 이들 시위는 대개 보통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시위운동이 많았으나, 18일 강화 읍내 시위는 경기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위로서 2만 명이 모여 군청에 쇄도하고 붙잡힌 사람들을 탈환하였다. 강화군에서는 3월 13일 운동이 시작된 이후 4월 13일까지 줄기차게 이어졌다. 양주 磨石隅里에서도 3월 18일 1,000명의 시위대가 붙잡힌 사람들을 탈환하고자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시위는 점점 열기를 띠어 공세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3월 하순에 들어 이때까지 조용하던 고양·부천·용인·이천·김포·파주·포천·연천·광주·여주·장연 등지에서 일제히 시위운동이 펼쳐졌고, 시흥·진위·안성·양평·양주·가평 등 초·중순에 산발적 시위

운동을 시작한 후 잠시 잠잠하던 곳에서도 3월 하순에 들자 시위운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3월 하순의 시위운동은 곳곳에서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3월 26일의 고양 羴島에서는 2,000명의 농민들이 면사무소를 습격하였으며, 3월 30일 시흥 읍내, 秀岩面, 31일 남면에서 각각 2,000명의 시위가 있었고, 3월 28일 수원 동남쪽이 있는 사강반도에서는 시위대에 무단 발포한 노구치(野口) 순사를 시위대가 뒤쫓아가 격살하였다. 4월 3일에는 장안면과 우정면 민 2,500명이 연합시위를 벌여 장안·우정 두 곳의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시위대가 화수리 주재소에 이르렀을 때 일제 경찰이 군중에게 발포하여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는 도망가는 일경을 뒤쫓아가 타살하고 주재소를 불태웠다. 4월 15일 일어난 제암리 학살사건은 이러한 이 지역의 격렬한 시위운동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 날 오후 2시 반 경 일제 수비대는 제암리 감리교회에 주민들을 모이게 한 다음 문을 봉쇄하고 불을 지른 후 탈출하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여 현장에서 23명, 인근 고주리까지 37명이 목숨을 잃었다.²⁴⁾

안성군에서는 3월 31일 읍내에서 3,000명이 시위를 벌여 군청과 면사무소를 습격하는가 하면 밤에는 등불행진을 벌였으며, 군내 원곡면 1,000명의 주민들은 3월 25, 26일 경부터 매일 동리 단위로 만세를 부르다가 3월 31일 밤 원곡면 소재지에 집결하여 연합시위를 벌인 후 6km 떨어진 양성면 소재지로 나아가 양성면 1,000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양성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고, 면사무소, 우편소를 파괴하였으며, 다시 이튿날 새벽 원곡면으로 돌아와 원곡면 사무소를 불태웠다.²⁵⁾

용인군에서는 3월 30일 읍내에서 2,000명의 시위가 있었고, 3월 31일 외사면에서는 4,000명이 모여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를 파괴하는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용인군에서는 릴레이 시위도 있었다. 시위는 3월 28일 모현면

24) 홍성창, 《수원지방 3·1운동사》(왕도출판사, 1981).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미래출판사, 1983).

성주현,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미간행원고).

25) 이정은, 〈안성군 원곡·양성면 3·1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초지리에서 시작되어 오전 7시에 포곡면 삼계리로, 삼계리에서 금어리로, 금어리에서 삼계리 사람들은 둔전리로 가고, 금어리 사람들은 내사면 대대리를 거쳐 감랑장 방면으로 이어지면서 각 동리는 앞 지역 시위대로부터 태극기를 인수하고 시위운동을 이어갔다.²⁶⁾

이러한 2,000에서 3,000명의 대군중이 모여 벌인 시위운동은 이 밖에도 3월 23일의 김포군 양곡, 27일 강화 읍내, 파주 교하, 28일의 파주 봉일천, 광주 읍내, 30일 파주 광탄면, 31일의 양평 용문면 광탄리, 포천 신북면, 송우리 시위, 4월 1일의 여주 이포, 장연 진동면 및 강상면, 3일 양평 읍내, 4일 양평 곡수, 5일 양평 석곡 등 규모가 크고 양상이 공세적인 시위운동이 줄을 이어 3·1운동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산상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 고양군·시흥군·광주군·부천군·수원군·개성군·강화군·장단군·파주군·김포군·양주군·진위군·이천군·여주군 등에서 횃불시위가 일어났다. 수원에서는 상인들이 철시시위, 기생들도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한 지역의 하나였다.

나) 충청남도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에서 3월 3일, 부여에서 7일, 논산에서 10일 등 3월 초순에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중순까지는 산발적인 시위가 진행되다가,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공주·연기·대전·논산·홍성·청양·서산·예산·아산·천안 등지에서 치열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고, 천안군 병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의 발포로 인해 많은 인명이 손상되었다. 공주·연기·대전·논산·예산·아산·천안 지역은 3월 초·중순에 산발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가 휴지기를 거친 다음 3월 하순에 가서 다시 뜨겁게 타오른 지역이었고, 서천·홍성·청양·서산·당진군은 3월 하순에 가서야 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런 반면 부여에서는 3월 초에 수십 명의 시위로 그쳤다.

충남 최초의 시위는 예산에서 3월 3일 일어났다. 이발사 尹七榮 등 5명이

26) 이정은, <용인군>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323쪽.

밤 11시에 동쪽 산위에 올라가 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이후 13일 대흥에서 500명, 4월 3일 고덕면 대천에서 1,000명, 신례원 300명, 4월 덕산에서 700명 시위가 있었는데, 고덕면 대천시장시위에서 일본헌병의 발포로 1명이 숨지자, 시신을 들쳐메고 주재소로 나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덕산에서는 구금된 시위 주도자를 탈환하려고 하였다. 같은 날 광시면에서는 4,000명이 모여 면사무소를 습격 파괴하였다. 5일 예산읍내에 2,000명의 시위운동이 전개되어 3명이 부상하고 35명이 체포되었다.

공주에서는 3월 11일 1차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일군경의 저지를 받아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14일 유구에서는 공주군 신상면 천도교인 黃秉周의 주도로 500명의 장꾼들과 시위운동을 벌였는데, 일경이 황병주를 붙잡아 가자 시위대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15일의 읍내에서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4월 1일 정안면 석송리 주민들은 6km 떨어진 면 소재지 광정리까지 나아가 연도의 미송리·운궁리 주민들과 합세하여 경찰관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천안에서는 3월 14일 목천 보통학교 시위로 시작되어 20일 입장 양대리 700명 농민, 28일에는 양대리 직산 금광 노동자 200명이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29일 천안 읍내에서는 3,000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인근 풍세·성환 등지에서도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4월 1일 갈전면(현 병천면) 병천(아우내)시장에서 3,0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는데, 유관순의 활약으로 유명한 시위지역이다. 이곳 시위에서 일본 헌병대의 발포로 유관순의 아버지 柳重權 등 2명이 사망하자 주민들은 시체를 메고 헌병주재소로 나아가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다시 일경이 총격이 가해 이 시위운동에서 19명이 순국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대전군에서는 3월 27일 200명, 4월 1일 400명이 장날을 기하여 시위운동을 벌여 4월 1일의 시위에서는 일본군이 발포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성에서는 3월 16일에 이어 4월 1일에는 70명이 헌병분견대를 습격하였다. 3월 29일 가수원, 31일 유성에서 각각 400~200명의 시위가 있었다.

논산군에서는 3월 10일 강경읍 장날을 기해 500명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4월 1일 두계 1,000명, 27일 읍내 700명, 4월 3일 천동리 200명 시위에

이어 노성에서 2,000명의 시위가 있었다. 4일 강경읍내에서 500명의 군중들이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여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하였다.

연기군에서는 3월 13일 전의면 150명 시위 이후 26일부터 봉화시위가 확산되었고, 30일 조치원에서 1,500명이 참여한 봉화시위가 있었다.

홍성군에서는 3월 7일 홍성읍 시위 이후 21일 은하면 대천에서 시위운동이 있었으며, 4월 7일 500여 농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튿날 밤 60여명의 농민이 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4일 밤에는 홍성면·홍북면·금마면·홍동면·구항면의 5개 면 24개 촌락에서 횃불시위를 벌였다.

청양군에서는 4월 5일 안심리 1,000명 시위, 정산 700명 시위, 6일 운곡 600명 시위, 이튿날 와촌리 500명, 8일 비봉면 600명 시위 등이 있었는데, 운곡과 와촌리 시위는 공세적인 시위양상을 띠었다.

서산에서는 3월 16일과 27일 읍내에서 시위운동이 있었고, 해미면에서는 3월 19일과 24일 있었는데, 정미면 天宜시장에서는 4월 4일 1,000여 시위대가 일제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파괴하였으며, 8일 밤에는 횃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대호지면에서는 3월 19일에 이어 4월 8일 600명이 시위운동을 벌이자 일경이 발포하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운산면에서도 같은 날 농민 400명이 횃불을 올리고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경이 발포하여 2명이 순국하였다.

서천군에서는 3월 29일 마산면 신정리 장터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 송기면 등 주도자 6명이 체포되자 시위군중이 경찰관출장소를 부수고 구금된 6명을 구출하였다.²⁷⁾

아산군에서는 온양면에서 3월 12일 200명이 시위를 시작하여 14·15일 시위운동이 계속되었다. 31일 온정리에서는 염치·배방·온정 각 동리 2,500명이 부근 산상 50여 개소에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4월 2일 신창면에서는 밤에 동리 뒷산에 올라가 만세를 부른 뒤 내려와 헌병주재소와 보통학교 기물을 파괴하였다. 4일 선장에서는 헌병주재소에 쇄도하여 8명이 부상하였다.

당진군에서는 면천 보통학교 학생 200명이 3월 10일 시위운동을 일으켰으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재판기록), 1171~1172쪽.

며, 4월 4일 밤 면천면 8개 리, 당진면의 농민들이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합덕면에서는 4월 2일, 송악면에서는 5일 수백 명이 면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충남의 경우, 탄압이 가해지면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한 저항정신을 보여 주었다.

다) 충청북도

충북의 만세시위운동은 비교적 늦은 3월 중순에 가서야 청주·제천·괴산에서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하순에 들어 영동·옥천·보은·음성·진천·충주 등지에서도 일어났고, 청주와 괴산에서는 며칠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활발하게 타올랐는데, 1,000명 이상의 시위군중이 모여 헌병 또는 경찰주재소에 압박을 가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산상에서 횃불을 올리며 시위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청주군에서는 3월 7일 읍내와 21일 북일면에서 시위움직임이 있었으며, 23일에는 강내면 18개 동리, 강외면·옥산면 일대 수십 군데 산상에서 횃불을 올리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4월 1일과 2일에도 봉화시위는 청주 부근 오창·강외·부용 각 면으로 퍼져 나갔다. 3월 30일 미원면 시장에 모인 1,000여 명의 시위군중은 일본 헌병주재소에 쇄도하여 일군과 충돌함으로써 현장에서 1명이 즉사하고 수명이 부상하였다. 부용리 1,000명의 주민들은 31일 부강리 역 앞에서 시위운동을 벌이다 일본군의 발포로 수 명이 숨졌으며, 문의면에서는 4월 6일 1,300명이 시위를 벌였다.

괴산에서는 3월 19일 괴산시위를 洪命燾가 주도하여 격문과 경고문을 준비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600명이 시위운동을 벌이며 경찰서로 쇄도하여 구금자를 탈환하고자 투석 등으로 일경과 맞섰다. 충주에서는 일군 수비대가 와서 밤 10시 경에야 해산을 하였다가 다시 모여 새벽 2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3월 24일·29일, 4월 1일 계속해서 괴산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읍내의 3차 시위에서는 1,500명이 참여하였다. 3월 30일 청안, 4월 1일 읍내에서 각각 3,000명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청안에서는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전선을 절단하였으며, 청천에서도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였다. 10일

공덕리 주민 300명이 군 초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영동군에서는 3월 25일과 29일의 학산면 농민들과 부역민들이 경찰관주재소를 습격, 기물을 파괴하는 공세적 시위를 벌였으며, 4월 3일에 다시 500명의 시위대가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는 등 군내 여러 지역에서 격렬한 시위운동을 벌였다. 4월 2일 매곡의 100명 시위대는 추풍령 헌병초소에서, 3일 괴목에서는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였다. 4일 읍내에서는 2,000명의 농민들이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압박하는 군내 최대의 시위가 있었다. 6일에는 추풍령 시위가 일어났다.

옥천에서는 3월 27일 이원면 700명의 시위대가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4월 2·3일 연속 일어난 1,000명의 청산시위가 규모가 컸다.

보은에서는 4월 3일부터 100명 내외의 시위가 이석리·읍내·구인리·무서리·선곡리에서 각각 일어났다. 제천에서는 17일 읍내에서 1,000명의 시위운동이 일어나 3회에 걸쳐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충주에서는 4월 1일 신니면에서 龍明書堂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00명의 시위군중이 시위를 벌였다.

음성군에서는 읍내 장날을 기하여 3월 18·28일 수천 군중이 독립만세를 전개하였다. 4월 1일 소이면 시위에서는 1,000명의 시위대가 주재소를 포위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충주 수비대가 출동하여 무단 발포함으로써 12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당했으며, 같은 날 대소면에서도 1,000명이 시위운동을 벌여 2회에 걸쳐 면사무소, 주재소를 공격하여 일제의 발포로 6명이 죽고, 다수가 부상당하였다.

진천에서는 4월 2~3일에 걸쳐 공세적 시위가 계속되었는데, 2일 석현에서 500명의 시위대가, 장양리에서 200명의 시위대가 각각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고, 광혜원에서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600명의 시위대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였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의 시위운동은 초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마치 독립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이 갈수록 격렬해졌다.

라) 강원도

강원도의 만세시위운동은 3월 2~4일 사이에 평강·금화·철원·화천지역

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0~12일 철원·금화에서 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3월 하순이 될 때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3월 23일 화천에서, 27일 횡성과 원주에서 시위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내 전역에서 동시다발의 시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철원에서는 3월 10일 읍내에서 1,000명의 농민들이 시위운동을 벌였고, 11일 철원 읍내 700명 시위, 12일 지포의 800명 시위로 이어졌다. 4월 8일 내문면에서 천도교인이 중심이 된 800명의 시위대가 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금화군에서는 3월 12일 읍내에서 1,000명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이후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昌道에서 기독교인과 농민 500명이 헌병주재소와 우편소를 습격하는 시위를 벌였다. 4월 4일에는 下所里에서 300명의 시위가 있었다.

화천에서는 3월 4일 읍내에 선언서가 배포되었고, 23일 읍내에서 천도교인이 중심이 된 60명이, 28일에는 상서면에서 천도교인과 농민 2,000명이 시위운동을 벌여 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원주·양양·통천·홍천·횡성 등지에서 3월 하순에 들어 지속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원주군에서는 3월 27일 서당생도 중심의 시위 움직임이 있었고, 이후 4월 3일부터 읍내를 비롯해서 소초·귀래면·건동면·지정면·업면·운남면 등지에서 100~200명의 시위가 이어졌다.

통천에서는 4월 3일 장전에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40여 명이 시위를 시발로 6일에는 庫底에서 1,500명의 노동자·농민이 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를 공격하는 시위운동을 벌였고, 7일에도 200명이 같은 양상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홍천에서는 주로 천도교인이 주도하여 4월 1일 읍내에서 200명이 시위한 데 이어, 같은날 북방면에서 시위가 있었다. 2일 읍내 200명, 물걸리 800명, 3일에는 성수리 800명의 시위가 있었고, 도관리에서는 4월 3일과 11일에도 시위가 있었다.

횡성군에서는 읍내에서 3월 27일 300명, 4월 1일 1,300명, 2일 500명의 시위가 이어졌는데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일제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공세

적 시위를 벌였다. 특히 4월 1일의 읍내시위에서 2회에 걸쳐 일제 관공서와 상점을 파괴하였는데, 일병의 발포로 2명이 죽고 다수가 부상당하였다.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시위운동은 양양에서 일어났다. 4월 4일부터 9일까지 읍내에서 4회, 물치·손양·車馬·其土門·西面 등에서 1천 수백 명에서 200~300명에 이르기까지 시위운동이 지속되었는데,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향촌 양반 유지들이 연합하여 전주민의 시위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밖에도 울진·간성·이천·평창·정선·삼척·회양 등지에서도 4월 중순에 접어들며 소규모나마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강원도 시위운동은 천도교인과 일반 지식인, 청년과 학생, 유생, 기독교인과 의병 출신들이 주동하였다. 특히 의병 출신자들은 술장사나 화전민으로 숨어살다가 3·1운동이 발발하자 시위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만세꾼이 등장하여 인근 지역을 돌며 시위운동을 확산해 갔던 것도 특징이었다. 양양과 삼척에서는 유림들이 향촌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대규모의 공세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라. 남부지방

가)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는 초기·중기·후기에 걸쳐 산발적인 시위운동이 이어졌다. 군산·옥구·익산·전주 등지에 3월 3~4일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군산에서 영명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3월 5일 수백 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는데, 23일에는 군산보통학교에 불이 났고, 28일에는 읍내 大和町에 다시 불이났다. 익산에서는 3월 3일에 선언서가 배포되고, 4월 4일 이리에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700명이 시위를 벌여 시위도중에 발포로 인해 3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39명이 체포되었다.

전주에서는 3월 4일 선언서가 배포되고, 13일 천도교·기독교인 150여 명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4일 기전여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600명이 시위를 벌여 90명이 체포되었다. 김제에서는 4월 4일 600명이 보통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는데, 만경보통학교 교사 林昌茂가 이를 주도하였다. 금산에서는 3월 23일부터 31일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에서 200명까지 만세시

위가 읍내와, 제원리·복수면·진산면 등지에서 있었다.

남원에서는 4월 3일 800명의 덕과면 농민들이 경찰관주재소에 쇄도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 시위는 덕과면장 이석기가 독립운동을 선도하였다. 4일에는 읍내에서 1,000명의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여 일제의 발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수명이 부상당하였다.

임실에서는 3월 10일 熨樹공립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 거의 매일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청웅면에서는 100~200명이 15·16·17·21일 계속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밖에 지사면·오수면·읍내 등지에서 시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23일 오수면 시위는 1,200명이 모여 주재소와 면사무소, 일인 가옥을 습격 파괴하는 공세적 양상을 보였다.

그 외에 진안·부안·순창·무주·장수·정읍 등지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한두 차례 있었다. 대체적으로 전북의 시위운동이 타지역과 달리 규모도 적었고, 크게 치열하지 않았던 것은 동학농민운동과 의병운동 때의 가혹한 탄압의 경험과 더불어, 일제가 이 지역 평야지대에 토지의 수탈, 일인 농장의 개설, 일인들의 대거 植民 등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감시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시위 전개 유형은 전라북도와 비슷하다. 3·1운동 전 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약한 편이다. 3월 3~4일에 걸쳐 목포·광양·구례·순천·여수·광주 등지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0일부터 광주 읍내에서 최초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 후 영광·해남·담양·무안·순천 등지에서 시위가 뒤따랐으나, 보통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가 많았으며, 각 군의 읍내와 2~3개 처에서 평화적인 만세시위로 그쳤다. 3월 하순에 들어 목포·곡성·함평·광주·광양·보성·강진·해남·장성·완도·순천·영암 등지에서 1~2차례 시위가 일어난 후 이 지역의 3·1운동은 끝났다.

광주에서는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0일 숭일학교·수피아 여

학교 등 각급 학교 학생들과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500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교사·학생 87명이 禁束되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黃尙鎬는 독립사상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13일 《조선독립광주신문》 제1호를 발간하고 그 후 계속하여 제4호까지 발간, 배포하였다. 광주에서의 시위운동은 10일에 이어 11일에도 300명의 시위, 13일에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4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고, 16일에는 송정리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후 4월 8일 50여 명의 보통학교 상급생들이 동맹휴교를 했다.

영광에서는 3월 14·15일 이틀에 걸쳐 읍내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운동을 벌였다. 15일의 시위는 500명이 참여하는 큰 시위였다.

해남에서는 3월 14일 읍내에서 300명의 시위가 있었는데, 일제의 발포로 해산되었다. 그 후 4월 8일과 11일 다시 시위운동이 있었다.

무안에서는 3월 18일 長山島에서 유지인사 3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고, 20일 외읍면 구 무안 장터에서 친일파의 자숙을 촉구하며 독립경축행진을 하였다.

담양에서는 3월 17일 읍내 청년들이 <경고문>을 준비하고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으며, 4월 4일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순천에서는 3월 3일 읍내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9일 최초의 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4월 7일에도 산발적인 시위운동이 읍내에서 일어났다. 12일에는 인월리에서 소수의 시위가, 13일에는 낙안면에서 군내 가장 큰 규모인 150여 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는데 일경의 발포로 4명이 부상당하였다.

곡성에서는 3월 29일 읍내에서 교사와 보통학교 학생 200명의 시위가 있었다.

광양에서는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3월 27일과 4월 1일 다수가 모인 가운데 시위운동이 있었다.

장성에서는 4월 3일과 4일 북이면에서 시위운동이 있었는데, 연인원 300명의 시위대가 만세시위운동을 벌였으며, 4일에는 현병주재소에 쇄도하는 등 치열한 시위운동을 벌여 첫날 4명, 둘째날 12명이 구금되었다.

강진에서는 4월 4일 읍내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완도에서는 7일 읍내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운동을 벌여 50명이 구금되었다.

목포에서는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읍내에 배포된 후 4월 8일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5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함평에서는 4월 8일 서당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보성에서는 4월 9일 벌교에서, 18일 보성면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 영암에서는 4월 10일 보통학교 학생이 중심이 된 400여 명의 시위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영광에서는 3월 14일 읍내에서 보통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어 120명이, 3월 15일에는 시위규모가 더 커져 5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위운동이 있었다.

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독립만세시위운동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초기와 중기에 안동과 의성·영덕군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시위운동이 상주·예천·영주·봉화·문경·성주·청도·선산 등지에서 주로 일어난 후기 산발적인 시위운동으로 이어졌다.

대구에서는 3월 8일 오후 3시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200명, 계성학교 학생 50명, 명신여학교 학생 50명과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세시위에 들어갔다. 동성동에서 일본 군경의 저지를 받고 일단 해산한 다음 밤 8시 경 약 80여 명이 다시 경찰서로 쇄도하여 붙잡힌 학우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날인 9일과 10일에도 시위운동이 계속되었으며, 30일에는 주요 상점들이 폐점함으로써 시위운동에 동참하였다.

영일군 포항에서 3월 11일 <독립선언서>가 읍내에 나붙고, 22일 일단의 시위대가 시위운동을 벌였다.

의성에서는 비안면에서 3월 11일 시위운동이 있었으며, 16일과 18일에는 읍내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 19일 桃里와 安平에서 각각 1,000명이 집결하여 경찰관주재소에 쇄도하였다. 일경 27명이 출동하여 이들의 발포로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하였다.

김천군에서는 3월 11, 24일 읍내에서, 4월 6일 개녕에서 또한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 경주에서는 3월 13일 읍내에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100명이,

칠곡에서는 같은 날 읍내와 안동에서 각각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

안동에서 본격적인 시위운동은 3월 17일 일어났다. 예안면장 申相晷이 주도하여 예안을 장날을 택해 1,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안동 읍내에서는 18일 오후 6시 경 100여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19일 새벽 1시 약 2,000명의 군중이 군청과 재판소·경찰서 등에 투석을 하였으며, 구금자 석방을 요구했다. 일군 수비병의 발포로 13명이 부상당하였다. 23일 읍내 장날 저녁 7시 30분을 기해 다시 한 번 2,000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에 나섰다. 일본 수비대는 시위군중에 무차별 발포를 하여 현장에서 14명이 죽고 10명이 부상당하였다. 21일 임동면 鞭巷 장날을 기해 임동면 500여 주민들은 독립만세를 부르고 발포하는 일군경의 총검을 빼앗아 우물에 던져 버렸으며,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독립만세를 부르다 해산하였다. 같은 날 임하면민 100명은 광무황제의 인산에 참여하고 온 林燦逸 등의 지휘하에 신덕리 경찰관주재소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에 경찰의 발포로 3명이 숨지자, 분개한 군중들은 밤 11시 400여 명으로 불어나 주재소와 면사무소에 투석을 가하여 건물 유리창과 기물들을 파괴하고 서류를 소각하였다. 같은 날 길안면 泉旨시장에서도 500명의 시위대가 면사무소·경찰주재소를 포위 투석하고 이튿날 다시 주재소 앞에서 시위운동을 하였다. 22일 일직면민 약 200명은 望湖洞 동산 송림에서 시위운동을 하였으며, 임북면민 400명은 면사무소를 습격·파괴하였다. 같은 날 2,000명의 예안 시위대가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3월 18일 도산면 토계동에서, 24일 풍산면 풍산시장에서도 수십 명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영덕군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3월 18일 영덕읍내 장날을 기해 100여 명의 장꾼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날 더욱 큰 규모의 시위운동은 영해읍내에서 일어났다. 정규하 등이 이끄는 2,000명의 시위군중이 영해 읍내 시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한 후 주재소로 쇄도하여 경찰 대검을 빼앗고, 주재소와 보통학교, 일인소학교·우편소·면사무소 등을 파괴하였다. 이들의 시위는 이튿날도 계속되었다. 헌병 분대장 이하 6명이 달려왔으나 제지하지 못하였다. 오후 5시 대

구 보병 80연대 장교 이하 17명이 도착하여 시위군중에 발포하여 8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날 영해읍 시장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한 200명은 병곡면 병곡시장으로 향하였다. 연도의 주민들이 합세하여 400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은 병곡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이 고압적으로 제지하자 돌, 몽둥이 등으로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20일 창수면 오촌동·삼계동·신기동 주민들은 창수동으로 몰려가 창수주재소를 파괴하고 오후 7시까지 시위운동을 전개하다 해산하였다. 4월 4일에는 남정면 장사동의 기독교인과 청년유지들이 100명의 시위대와 함께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영양군 청기면에서는 400명의 주민들이 3월 24일 청기동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 유리창을 파괴한 후 시가행진을 하다 오후 10시에 해산하였다. 25일 정오경 청기면 청기동·상청동, 입암면 금학동·대천동 주민 약 600명은 일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영양읍내로 들어가 오후 5시까지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청송군에서는 영해지역에서 활약한 권태원이 이곳 기독교인과 더불어 3월 25일 진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26~27일 현서면 화목시장에서 500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영천군에서는 3월 26일 금소동에서 1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고, 4월 6일 신녕면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밤 11시 매양동 천변에서 읍내로 들어오면서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8일에도 다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상주군에서는 3월 23일 저녁 800명의 시위군중이 읍내 장터에 모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8일 화북면 장암동의 구장 이성범의 주도로 100명의 주민들은 文藏山臺에 올라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같은 날 화북면 운흥리 유지 김성희 등은 통고문 2통을 작성, 中伐里와 雲興里에 전달하고 9일 정오 100명의 농민을 모아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성주군에서는 4월 2일 유림들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성주 장날을 기해 경산동 關帝廟 뒷산에서 수백 명이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시가지 및 시장통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해가 지자 시위대는 서북쪽 산상으로 올라가 햇불을 올리고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밤 11시 경에도 100명의 시위대가 시

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고령군 덕곡면에서는 3월 29일 뽕나무 심기 부역에 나갔던 20명의 인부들이, 우곡면에서는 4월 6일 모진동민, 8일 대곡동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예천군 용문면에서는 4월 2일 밤 10시 경 100명의 주민들이 금곡동에 모여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풍양면 우망리 동래 정씨 일족 40여 명은 우망리 선록에 모여 밤새 독립만세를 불렀다.

영주군 하리면 은산시장에서 4월 4일 오후 6시 경 시위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일본 수비대의 경계로 시위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9일 풍기읍 시장에서, 11일 장수면 동리 고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갔다.

봉화에서는 3월 18일 내성읍 장날을 기해 시위운동을 벌였으나 곧 일제 군경의 검속을 받아 시위를 주도했던 내성공립보통학교 교사·학생 12명이 검거됨으로써 차단되었다. 4월 5일 춘양면 서벽리 동산에서 정태준 등이 독립만세를 높이 불렀다.

청도군에서는 3월 18일 金鎭孝 등 청년들이 시위운동을 준비하다 주재소에 호출을 받아 조사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각 동리를 다니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밖에 매전면 장연동·대성면 거연동 등지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

문경군 신북면 갈평 시장에서는 4월 15일 도로부역에 나왔던 인부 40명이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라)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시위운동은 초기에는 부산과 마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는 데서 그쳤으나 3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거세게 불타오르기 시작하여 후기에까지 치열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부산에서는 3월 3일 府內에 선언서가 배포되고, 11일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4월 3일에도 기독교인 중심의 100명이, 8일에는 다수의 각급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있었다. 당시 부산부는 일본인들의 침략거점이었던 까닭에 거주민의 78.7%인 27,900명이 일본인들이었다. 따라서 격렬한 시위운동은 전개되지 못하였다.

마산에서도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2일 기독교 계통의 창신 학교와 의신학교 전직원이 일제히 사직하였다. 21일 구마산 장날, 2,000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26일 제2차 시위운동이 구마산 석정동에서 일어났으며 31일 제3차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4월 2·23·24일에는 마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동래군에서는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200명의 시위대가 3월 13일 동래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벌였다. 18일 밤 9시 다시 수십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동래경찰서로 쇄도하였다. 같은 날 동래 범어사의 명정학교(초등과정)와 지방학림(중등과정) 학생들이 동래 서문 부근에서 만세시위를 하였다. 29일 구포시장에서 장꾼 2,000여 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일경이 주도자를 구금해가자 시위대는 주재소로 돌진하여 주재소 기물을 파괴하였다. 일경의 발포로 다수의 부상자가 생겼다. 4월 5일 기장읍 기장 장날을 기해 약 300명의 시위군중이 “양심발원 인도적 자유민족”이라 혈서로 쓴 大旗를 앞세우고 시위운동을 벌였다. 8일 노동자와 부인들이 주도하는 시위운동이 벌어졌고, 10일 저녁 9시 1,000명의 군중이 시장에 모여 새벽 1시까지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날 장안면 좌천리 5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창녕군 영산면의 具中會·金秋銀·張振秀 등이 중심이 된 23인 결사대는 3월 13일 <決死團員盟誓書>에 서명하고, 시장통에서 600명의 장꾼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벌였다. 창녕경찰서에서 주도인물들을 구금하자, 저녁 8시 구금자 석방을 위해 창녕읍으로 나아갔다. 중간에 일경의 저지를 받은 시위대는 일단 해산하였다가 이튿날 창녕 읍내에 잠입하여 시위운동을 벌이다 주도자 모두 구금되었다.

의령군에서는 3월 14일 具汝淳이 중심이 되어 1,000여 명이 시장통에서 시가행진을 벌이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15일 다시 1,000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여성시위대도 이에 동참였다. 이날 부림면 신반리에서, 16일에는 지정면 봉곡리에서도 수백 명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통영군에서는 청년 18명이 주도하여 3월 13일 <동포에게 격하노라>라는 격문을 등사하고, 시위운동을 준비하다 사전 발각되었다. 18일 통영 중앙시

장에서 다수의 시위운동이 있었으며, 28일 다시 150여 명이 통영시장에서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집되어 4월 2일 통영장에서 4,000여 명이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벌였다. 상인들은 점포를 닫고 동참하였다. 이때 藝妓組合 기생 33명도 태극기를 들고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밀양군에서는 3월 13일 尹世胄 등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밀양 장날을 기해 1,000명의 시위대를 이루어 시가행진을 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14일 밀양공립보통학교 학생 160명이 다시 시위운동을 벌였다. 4월 2일에도 보통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4일 단장면 대룡리 단장 장날을 기해 1,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표충사 승려 李章玉 등 승려들이 주도한 이 시위는 <독립선언서>를 시위군중에 뿌리며 헌병주재소로 쇄도해 갔다. 총검으로 해산을 강요하는 일군에 대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오후에 다시 수차에 걸쳐 주재소를 공략하였다. 이 시위로 364명이 검거되어 71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6일 부북면 춘화리에서 주변 동리민들이 모여 징과 나팔을 울리면서 시위운동을 벌였고, 밤에도 산상에 모닥불을 피우고 징·북을 울리며 밤새 만세시위를 벌였다.

진주군에서는 3월 18일 진주읍내 장날을 기해 오후 1시 비봉산의 나팔소리를 신호로 읍내 3개 구역에서 일제히 시위운동에 들어갔다. 3,000여 명의 장꾼이 호응하는 가운데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오후 7시 ‘노동독립단’이, 2시간 뒤에는 ‘결연독립단’도 시위에 합류하였다. 이튿날 진주읍내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다. 11시 경 5,000명의 시위군중이 다시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일군경의 총검의 위협과 난타에 투석으로 맞섰다. 이때 ‘기생독립단’도 시위에 합류하였다. 이날 밤 11시까지 시위운동이 계속되었다. 전날 66명에 이어 이날 200명이 구금되었다. 20일에도 600명이 경찰서에 쇄도하였다. 21일에는 1,000명이 다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2일과 8일에도 소수의 시위운동이 있었고, 18일 호송중인 피고인들을 탈환하고자 2,000명이 시위운동을 벌여 일군의 발포로 1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합천군에서는 3월 18일 최초의 시위가 다수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가 장터에서 있었다. 19일 합천읍내 장터에서 시위운동이 발발하여 16명이 검거되었다. 이튿날 읍내에서 전날 구금된 16인의 석망을 요구하며 합천경찰

서로 쇄도하여 일경의 발포로 4명이 죽고 11명이 부상하였다. 20일 대병면 창리에서 3,000명의 인근 일대 주민들이 모여 시장을 누비며 만세시위를 한 후 경찰관 주재소에 쇄도하였다. 일경의 발포로 부상자가 생기자 시위군중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문서들을 소각하였다. 21일 초계면 초계시장에서는 3,000명이 모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약 200명의 청년대원들은 우편소를 습격하고,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22일 묘산면 팔심리와 도옥리 주민 100여 명은 묘산면 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23일 가회면·상백면·삼가면민 1만여 명이 삼가시장에 집결하였다. 상백면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상백면 사무소를 파괴하고 삼가시장으로 집결하였다. 삼가면 錦里 正衿堂 앞 광장에서 일제에 대한 규탄연설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일본군의 발포로 연설하던 임종봉이 굴러 떨어졌다. 이에 격분한 군중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경찰관주재소와 우편소로 들이닥쳤다. 일경은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13명이 즉사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31일 해인사 지방학림 학생과 승려 200명이 해인사 홍하문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오후 1시 해인사주재소로 몰려갔다가 일경의 발포로 물러 나온 후 밤 11시 경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 앞 도로상에서 다시 시위를 벌였다. 4월 3일 가야면 梅岸里 주민 100명이 노상에 獨立旗를 세우고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4일 가야산 위에서 400명의 주민이 독립만세를 부른 후 면사무소로 쇄도하였다.

하동군 적량면장 朴致和는 3월 14일 사표를 제출하고, 18일 하동읍 장날을 기해 11인의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23일 읍내 장날을 기해 제2차 시위운동이 있었으며, 28일 600명의 장꾼이 제3차 시위운동을, 4월 7일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제4차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옥중면 안계리에서는 3월 24일 안계 장날을 기해 600명이 태극기를 주재소 정문 앞에 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29일 진교면 진교리 시장에서 700명이 시위운동을 벌이며,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4월 6일 다시 진교리 시장에서 700명이 봉기하여 저지하는 일군들을 포위하고 총기를 빼앗기도 하였다. 고전면 舟橋里에서는 朴永默 등 33인이 一身團을 조직하고 4월 6일 주교리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운동을 선도하며 저지하는 경관의 총검을 빼앗고 주먹세례를 가하는 등 치열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함안군에서는 3월 9일 칠북면 연개장터에서 경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17일 대산면 평림장터에서, 18일 칠서면 이룡리에서 시위운동이 있었다. 19일 함안을 장날을 기해 약 2,000명의 시위대가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무력 저지하는 경찰관주재소를 6회에 걸쳐 습격하였으며, 군청·등기소·우체국 등을 파괴하였다. 20일 군북면에서는 약 3,000명이 냇가에 모여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우체국·면사무소·주재소를 포위하고 만세를 외쳤다. 일본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2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였다. 23일 칠원 장날에는 1,000명의 장꾼들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4월 3일 다시 칠원 장터에서 1,300명이 제2차 시위운동을 벌였다.

산청군에서는 3월 19일 신등면 단계리 시장에서 1차 시위운동을 벌인 뒤, 다시 20일 단계리 시장에서 600명의 시위군중이, 21일 단성면 성내리 시장에서 8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일병이 출동하여 무단 발포함으로써 사망 10명, 부상 50명의 인명손상이 있었다. 22일 산청읍내에서 5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거창군에서는 3월 20일 가조면 장거리 시장 장날을 택해 수백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시위대의 일부는 출동으로 비어있는 헌병분견대 기물을 파괴하고 밤늦게 주동인물 5, 6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헌병과 보조원들을 기다려 난투극을 벌이다 체포되었다. 22일 가조면·가북면 농민 약 2,000명은 헌병분견대에서 취조중이던 주동인물들을 구출하여 거창읍내로 향하였다. 시위행렬이 沙浦峴에 이르렀을 때 거창 헌병대와 가조분견대가 합세하여 위협하며 전진을 저지하였다. 시위대가 해산을 거부하자 무단 발포하여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하였다.

사천군에서는 3월 21일 사천공립보통학교 졸업식이 끝나는 때를 타서 학교운동장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날 약 300명의 사천주민들은 진주읍내 시위에 참여하였고, 4월 13일 도로공사 인부 1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삼천포에서는 3월 25일 장날을 기해 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제1대가 노상에서 시위운동을 시작하고 제2대로서 청년대가 시장에서 3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이 시위운동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창원군에서는 3월 23일 장날을 기해 5,000명의 장꾼들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4월 2일 다시 5,000명이 모여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하고 주재소와 우편소를 습격하였다. 조선국권회복단의 일원이었던 진전면 卞相泰가 중심이 된 진전면 시위대는 28일 진전면 고현리 시장에서 500명의 시위대와 시위운동을 벌이며 진동면 일본 헌병주재소로 향하였다. 증파된 일본군이 시위대를 총검으로 해산시켰다. 4월 3일 三鎭의거로 불리는 鎭田面·鎭北面·鎭東面 연합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진전면 양촌리 냇가에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진동면 주재소로 향하다 헌병대의 발포로 사망자 8명, 부상자가 22명에 이르는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일본 헌병대에서 마산의 일인 병원에 부상자들을 치료하게 하였으나,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애국성금을 거두어 마산과 진주의 한국인과 미국인 경영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같은 날 웅천면 마천리에서는 500명의 주민들이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웅천읍에 이르러 2,000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11일 가덕면 가덕진에서도 주민 300여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29일 상남면 사파정에서 애국학생 수십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양산군에서는 3월 27일 읍내 장날을 기해 엄주태 등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2,000명의 장꾼들과 더불어 시위운동을 벌였다.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구타하고 주도인물을 구금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양산 헌병분견대와 군청으로 쇄도해 갔다. 주변부락에서 농악을 울리며 사방에서 군중이 모여들자 구속자를 석방하였다. 4월 1일 다시 1,500명이 주동인물들의 검거에 격분하여 헌병분견대 앞으로 쇄도하여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일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해산하였다.

함양군에서는 3월 28일 함양읍 장날을 기해 2,000명의 농민들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4월 2일 2,000명의 시위군중은 제2차 시위운동을 벌이며 헌병분견소를 포위하고 만세시위를 벌이며,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다가 무차별 총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였다. 3월 31일 안의면 안의 장날 1,000명의 시위군중이 저녁 7시까지 시장을 누비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고성군에서는 3월 30일 구만면 개천리와 마암리 동민을 중심으로 菊川沙場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10리 떨어진 배둔리 시장으로 가서 수백 명이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산하여 <한인관리 퇴직권고문>을 등사하여 ‘대한독립동맹’의 이름으로 배포하였다. 4월 1일 고성읍내 장날을 기해 삼산면의 천도교인과 읍내 노동자 60여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김해군에서는 3월 31일 하계면 진영리 장날을 기해 5명의 청년들의 주도로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4월 5일 진영 장날에 제2차 시위운동이 전개되어 약 2,000명의 시위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이며, 탄압을 가해 오는 일군 헌병주재소로 몰려갔다. 김해 읍내에서는 4월 1일 읍내 각처에 격문을 붙이고, 2일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본 군경은 재향군인, 일인 상인과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 생림면 봉림에서는 3일과 4일 이틀 연이어 각각 2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으며, 10일 명지면 중리에서, 11일 명지면 진목리에서 각각 시위운동이 있었다. 12일 명지면 진목리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장유면 茂溪里 시장으로 주민들을 이끌어 모아 2,000명의 시위군중을 이루어 북과 나팔을 울리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일본 군경이 총검으로 저지하자 헌병주재소로 돌입하다 일군의 발포로 3명이 사망하였다. 격분한 시위대는 투석으로 헌병주재소를 파괴하였다. 김해에서 응원군이 도착하여 탄압이 가중되자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울산군에서는 4월 2일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2,000명의 시위군중이 시위운동을 벌여 제지하는 일본 군경과 투석으로 맞섰다. 일군의 발포로 3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였다. 4일 하상면 병영리 청년들은 ‘決死報國’을 혈서로 써서 맹서하고 일신학교 교정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였다. 일본 경찰이 군대의 지원을 받아 시위대를 해산시키자, 다음날 다시 일신학교에서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군중은 800명으로 늘어나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며 군경과 육박전이 벌어졌다. 온양면 남창리에서는 8일 남창리 장날을 이용하여 수백 명의 장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남해군에서는 4월 3일 설천면민들이 남양리 노상에서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고현면에 이르며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4일 읍내 장날을 기해 1,000명의 장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찰관주재소·군청·학교·우체국 등을 습격하였다. 7일 고현면 포상리에서 500명이 봉기하여 산상에서 만세를 부르고 남해읍으로 진격하여 시위운동을 벌이다 일군의 발포로 1명이 숨졌다.

마) 제주도

당시 제주도는 전라남도에도 속해 있었다. 3월 21일 제주 읍내에서 4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고, 같은 날 朝天에서 서당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으며,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23일 제주읍내에서는 부인과 아동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모여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25일에는 함덕에서 시위운동이 있었다.

마. 북부지방

가) 황해도

황해도의 독립만세시위는 3월 초 서울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시위운동을 시작하였고, 3월 중순에 뜸하다가 3월말부터 4월 10일까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3월 1일에는 서울에서 사전연락이 되어있던 해주·웅진·사리원·황주·서흥·연백·수안·곡산 등지에서 선언서를 배포·낭독하였으나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2일 황주읍내에서 300명의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3일에는 해주·금천 변리·웅진·봉산 사리원·수안 등지에서, 4일에는 웅진 읍내, 곡산읍내와 광천 등지로 퍼져나갔다. 특히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치열한 시위운동이 재확산되었고, 장연에서는 3월 18일과 22일까지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3월 2일의 황주시위는 시가행진을 하다가 시위군중이 황주경찰서에 쇄도하여 유리창을 전부 깨는 치열한 항일의식을 보여주었다. 수안시위는 3·1운동기의 대표적인 격렬한 시위운동의 하나로 꼽히는데,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200여 명의 시위군중은 3일 아침 일찍부터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3차에 걸쳐 현병분견대에 쇄도하여 “조선이 독립하였으므로 분견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다 일군의 발포로 사망 9명, 부상 18명의 사상자가 났다. 재령군에서는 9일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읍내에서 2,000명이 시위를 벌인데 이어 10일에는 재령 內宗에서 4,500명의 대규모 시위운동이 일어났고, 웅진·재령·서흥·수안·황주군에서는 3월 10일 경까지 크고 작은 시위운동이 계속되었다.

해주에서는 3월 1일 선언서가 배포된 후 10일 천도교인·기독교인·학생이 중심이 된 400명의 시위운동이 있는 이후 11일 청단, 14일 읍내, 17일 청룡면 등 시위가 이어졌고, 3월 중순에는 송화·수안·신천 등지에서, 특히 연백에서는 3월 15일과 16일 연안, 16일 나진포, 18일 다시 연안에서 2,000명의 시위대가 헌병분대를 습격하였으며, 22·23·24일 계속 군내에서 시위운동이 계속되었다.

황해도내 연백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월 20일부터 26~27일까지 휴지기를 거친 다음 28일 경부터 다시금 시위운동이 불타올랐다. 28일의 해주읍내에서는 수천 명이, 31일에는 3,00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30일에는 안악 동창리에서 전날 구금된 인사를 구출하기 위하여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또한 4월 3일 금천군 구이면에서는 4,000명이, 5일에는 평산 物開에서 3,000명, 장연 苔灘에서 1,000명, 7일에는 재령읍내에서 2,000명 등 대규모 시위운동이 이어졌다. 면사무소·우편소·헌병 및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는 공세적 시위운동이 벌어져 일본 군경과의 충돌과 발포로 인해 수안에서 9명 사망한 것 이외에도, 연백 白川에서 4명, 금천 구이면에서 1명, 평산군 기린·누천 등지에서 9명, 서흥의 綠鞍에서 6명, 재령에서 1명, 봉산 읍내에서 1명, 안악 온정리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주와 신천이 비교적 전기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한 반면 금천과 신계·평산 등지는 3월말, 4월초에 가서야 비로소 시위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곡산과 황주·은율은 3월초의 시위운동으로 끝났다.

나) 평안남도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시위운동은 3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3월 중순에는 거의 시위운동이 없다가 3월 하순에 가서 일부 군, 즉 중화·강동·성천·평원·안주군에서만 시위운동이 있었다.

3월 1일 평양·진남포·안주에서 서울과 동시에 시위운동이 벌어졌으며, 2일에는 이 지역들 외에 용강·중화·강서, 3일에는 순천, 4일에는 성천, 5일에는 덕천과 양덕 등지로 파급되어 갔다.

평양에서는 3월 1일 오후 1시 장로교인들은 숭덕학교 교정에, 감리교인들

은 남산현 교회 앞 뜰에, 천도교인들은 천도교구당에 각각 모여 광무황제 奉
 悖式을 거행한 다음 바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선포식을 거행하였
 으며, 시내로 나와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이후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시위운
 동이 끊이지 않았는데, 4일의 시위는 新陽里에서 여성들만 수백 명이 시위운
 동을 전개하였다.

진남포에서도 3월 1일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2일에는 1,000명의 시위군중이
 경찰서를 습격, 기물을 파괴하였다. 이후 6일까지 시위운동이 지속되었다. 안
 주에서는 3월 1일 읍내에서 300명이 시위를 시작한 이후 2일에는 천도교인
 과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3,000명, 3일에는 2,000명이 구금자를 탈환하려는
 시위가 이어졌다.

안주군에서는 3월 1일 오후 5시 장로교 東禮拜堂 청년들을 중심으로 300
 명이 읍내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선포식을 열었다. 3월 2일
 읍내에서 3,000명의 시위운동이, 3일에도 다시 2,000명이 시위운동을 하였다.
 3일의 시위는 천도교인이 주도하였다. 전날까지 구금된 시위주도자를 탈환하
 고자 헌병분견대를 습격하였다. 3월 23일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2,000명의
 시위대가 立石에서 시위운동이 있었다. 안주 군수 金義善은 3·1운동이 일어
 나자 관직을 버리고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용강군에서는 3월 2일 읍내에서 첫 시위운동이 있었고, 6일 해운면 용반 1
 리에서 주민 70여 명이 시위행진을 시작하여 용반 2리·궁산리·일병리 주
 민을 규합하며 온정리에 들어가 주재소에 투석하여 유리창을 부수고 해산하
 였다. 광량만에서도 1천여 시위대가 만세시위를 벌였다. 8일 서화면에서도
 300명의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중화군에서는 3월 2일 祥原·新邑에서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
 되어 경찰관주재소의 철퇴를 요구하였다.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려 하자 군
 중들은 저들을 주재소 안에 몰아넣고 총기와 탄약을 빼앗았으며, 순찰 나온
 중화경찰서장을 포박하여 대치하였다. 3일 예수교인을 중심으로 다시 시가행
 진을 벌이며 주재소에 쇄도하여 구금된 인사들을 탈환하려 하여 시위대와
 일군경 사이에 백병전이 벌어졌다. 같은 날 또한 중화읍내에서 예수교인과
 천도교인이 제휴하여 수백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10일 읍내 장터에서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28일과 4월 16일 당정면 적선리, 두정리에 서 그리고 4월 5일 간동면 간동장터에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400여 명이 시위운동을 벌인 끝에 해산하였다.

강서군에서는 3월 2일 증산면 집용리 교회에서 예배를 끝내고 밖에 나와 인근 주민들과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며 증산읍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일본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하였다. 3일 읍내에서 4,000명이 집결하였다. 기독교 측과 천도교측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켰다. 오전 10시 독립선 포식을 하고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헌병분견대장은 평양에서 헌병 하사 2명과 보병 1명의 지원을 받아 시위대를 향하여 실탄사격을 가하여 사망 9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를 내었다. 6일에도 읍내에서 1,000명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4일 대동군 금제면 원장리에서 시위운동을 벌이던 시위군중은 모락장 시위운동을 계획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전에 발각되어 구금되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4,000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열을 지어 25리 떨어진 강서군 반석면 상사리를 향해 나아갔다. 일본 헌병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실탄사격을 가해 수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흩어지지 않고 투석으로 맞서며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계속 총을 쏘며 피신하는 헌병주재소장 佐藤과 헌병 보조원 3명을 붙잡아 살해하고 붙잡혀 있던 동지들을 구해내었다. 이 과정에서 13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6일 함종에서는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2,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8일에도 300명이 제2차 시위를 벌였다.

순천군에서는 3월 3일과 4일 慈山에서 천도교인이 중심이 된 시위운동이 있었는데 특히 4일의 시위는 1,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읍내에서도 4일에 천도교당에 수백 명이 집합하여 태극기를 올리고 경고문을 배포하고 해산하면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5일 신창면 장날을 기하여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1,000명의 시위군중이 독립선포식을 거행하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일본 헌병이 시위대에 폭행을 가하며 저지하였다. 6일 시위대는 다시 헌병주재소에 쇄도하였으며, 7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5,000명의 시위대가 시위운동을 벌였다.

성천군에서는 3월 4일 읍내 천도교구당에 군내 천도교인 4,000명이 총집합

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일본 헌병대 앞으로 나아갔다. 일본 헌병과 조선인 보조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무차별 발포를 하여 30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당하였으며 300명이 구금당하였다. 5일에는 붙잡힌 300명이 시위운동을 했으며, 7일에도 읍내에서 시위운동이 있었다. 이후 3월말에 가서 31일 삼흥면, 4월 1일과 3일 능중, 2일 대곡면에서 각각 시위운동이 있었다.

덕천군에서는 3월 5일 읍내에서 소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6일 300명의 읍내 시위, 7일 다시 600명의 읍내시위가 있었고 일병 31명이 출동하여 40명이 구금되었다.

양덕군에서는 3월 5일 읍내에서 300명의 농민시위가 있었고, 6·8일에도 이어졌다. 5일 시위운동은 천도교구당 앞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헌병대·우편국이 있는 하석리 방면으로 시가행진을 하는데, 헌병대가 출동, 시위대를 향하여 실탄사격을 하여 사망 20명, 중상자 50명의 인명피해를 내었다.

맹산군에서는 3월 6일 천도교인 3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9일 다시 천도교인 수십 명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10일 다시 약 100명이 시위를 벌이자 헌병분견대가 주도자를 붙잡아 고문을 가했다. 이에 시위대는 헌병분견소에 쇠도하여 저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분견소에서 시위대를 뜰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군중을 포위하고 총을 난사하여 50여 명이 죽고, 겨우 3명만 탈출할 수 있었다.

대동군에서는 3월 6일 읍내·고평면·대보면·대평·선교·만경대·평천·오야·원장 등 9군데에서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이날 읍내에서는 600명이 시위운동을 벌여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대평면과 선교에서도 각각 600명 규모의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7일 선교에서는 300명이 제2차 시위를 벌였고, 9일 대평에서 제2차 시위가 있었다.

평원군에서는 3월 6일 순안에서 500명이 봉기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경찰서에 쇠도해 갔다. 이날 어파 역전촌에서도 1,0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9일 숙천에서는 예수교인 100명이 예배를 마치고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하였다.

강동군에서는 3월 7일 원탄면과 고읍면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이 시위

를 벌였다. 30일과 31일 읍내 천도교인들이 첫날 500명, 둘째날 1,000명의 시위군중을 이끌며 시위를 벌였다. 4월 8일에도 읍내에서 700명의 시위가 있었다.

영원군에서는 3월 7일 읍내에서 천도교인 35명이 독립선언식을 하고 가두 행진을 하다 전원 체포되었다. 9일 천도교인 150명이 시위운동을 벌이며 헌병분견대로 쇄도하여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듬에 구금되었던 인사들은 안에서 문을 부수고 탈출하였다. 시위대의 수가 점점 불어나자 덕천읍내에서 파견되어 온 일본군 20명이 시위대 뒤에서 총을 난사하여 사망 15명, 부상 34명의 인명손상을 내고, 70명이 체포되었다.

개천에서는 4월 21일 외동면 순흥 안씨촌의 청년 70여 명이 중심이 되어 읍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20리 떨어진 무진대 장터까지 가서 만세시위를 벌인 뒤 해산하였다.

다) 평안북도

평안북도 만세시위는 3월 초 의주와 선천을 중심으로 철산·정주 등에서 치열한 전개양상을 보였다. 그 후 3월 중순에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3월 말 다시 치열하게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의주군이었고, 정주·태천·구성·용천·삭주·초산 등지에서도 치열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선천군에서는 3월 1일 신성중학교 학생들과 천도교인, 기독교인이 앞장서 천남동 시장에서 1천여 장꾼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선천수비대가 일경과 함께 시위대를 저지하며 충돌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발포를 하여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3일 다시 1,300명이 읍내에서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4일에는 다시 6,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만세시위를 벌이며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였다. 5일에는 군내 삼봉, 운종면 신미도, 수청면 가물남, 심천면 고군영 등지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신미도 시위는 주민들이 헌병주재소를 점거하고 면사무소를 인수하여 약 20일 동안 자치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한 특징이 있다.

의주군의 만세시위운동은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시위운동을 전개한

곳의 하나다. 이곳은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유여대 목사가 직접 운동을 지도하였다. 3월 1일 읍내 서부교회 앞에 이날 1,600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주야 2차에 걸쳐 시위운동을 펼쳤다. 2일과 3·5일 읍내에서 계속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2일의 시위부터는 천도교측에서도 가세하였다. 읍내 지역의 시위는 이후 27일 3,000명의 시위, 4월 7일에도 300명의 시위로 이어졌다. 읍내 이외의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시위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3월 3일 비현에서 300명, 5일 수구진에서 200명, 소곶관에서 500명, 6일 고령삭면에서 200명, 영산시에서 100명, 7일 옥강진에서 200명, 9일 가산면에서 120명, 고관면에서 150명, 11일 다시 고관면에서 150명, 15일과 16일 광평면에서, 15일 가산면과 옥상면에서 발발하였으며, 17일 고성면에서 200명의 시위가 일어났다. 3월말에 들어 의주군의 시위운동은 다시 격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30일 영산시와 수구진, 평구진에서 각각 200~400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31일 고령삭면 영산시장에서 4,000명의 시위가 일어나 현병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일병 11명이 출동하여 발포함으로써 우리측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였다. 4월 1일 수진면에서는 다수의 군중이 친일파 가옥에 방화하였으며, 읍내에서는 1,200명이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구룡포에서도 400명, 청성진에서 300명, 위원면에서는 다수의 군중이 세관감시서에 쇄도하여 공격하였다. 2일에는 枇岨에서 3,000명이, 수구진에서 2,0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는데, 수구진 시위대는 면사무소를 습격하다 일군의 발포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였다. 이날 또한 玉尙面에서는 주민 2,000명이 면사무소로 몰려가 “우리는 이미 독립선언을 하였으니, 면사무소를 마땅히 폐지하고 우리가 새로 조직할 自治民團에 면사무소 청사와 비품, 재산 일체를 넘기라”고 선언하고 면사무소를 접수하여 십 수일간 자치사무를 집행하였다. 4일에는 하단에서 500명, 광성면에서 600명, 6일에는 양광면에서 500명이 각각 시위운동을 벌였다. 광성면 시위에서는 일병 10명이 출동하여 발포함으로써 사망 4명, 부상 5명의 인명 손상을 입었다.

신의주에서는 3월 4일 300명이 독립선언식을 갖고 시위운동을 벌이자 일본군 수비대가 출동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5일에도 교외 所串館에서 3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용천군에서는 3월 4일과 5일 陽市에서 각각 600명과 5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고, 6일과 11일 南市에서 200명이 시위운동을 벌여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25일 용암포에서 1,000명이 시가행진을 하며 시위운동을 하였고, 31일 남시에서 3,000명이 채차 시위운동을 벌이며,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다 일병의 발포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 양광면 충열동에서 4월 1일과 6일 300명 시위, 같은 날 외하면에서 800명 시위, 4월 7일 읍내면에서 300명이 시위를 벌였다.

철산군에서는 3월 5일 車輦館에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3,00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7일 철산읍내에서 다시 3,000명의 시위군중이 기독교 교회당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본군 철도원호대가 행렬의 뒤에서 총격을 가해 9명이 죽고 40~50명이 부상당하였다. 4월 7일 백양면 풍천에서 300명의 시위대가 저녁 8시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다 27명이 구금되었다.

영변군에서는 3월 8일 기독교인과 농업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600명이, 9일에는 천도교인이 중심이 된 수백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정주군에서는 3월 7일 고읍, 8일 읍내에서 각각 시위운동이 있었고, 11일 동주면에서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시위가 있었다. 본격적인 시위는 31일 읍내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합세하여 4,000명의 군중이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시가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를 향하여 칼과 쇠갈구리를 휘두르며, 무차별 사격을 가해 수십 명이 죽고 70명을 구금하였다. 일제는 인명살상에 그치지 않고 4월 2일 새벽 천도교 정주교구당을 방화하여 전소시키고, 이날 밤 다시 정주 용동 오산학교와 기숙사, 용동교회를 방화하여 이 또한 전소시켰다.

삭주군에서는 3월 10일 읍내에서 시위운동이 시작되어 31일에는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2,000명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4월 2일에도 읍내에서 1,500명, 4일에는 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태천군에서는 3월 10일 일단의 군중들이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31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2,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4월 2일에도 읍내에서 다시 1,500명의 시위운동이, 4일에는 500명의 시위운동이 각각 있

었다. 이날 서면에서도 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구성군에서는 3월 10일 읍내에서 시위가 있어 일병 15명이 출동하여 저지하였고, 30일에는 900명이 2회에 걸쳐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4월 1일에는 3,000명의 시위군중이 시위운동을 펼쳐 일병의 발포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3월 18일 新市에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300명이, 31일 다시 1,000명이, 4월 1일에도 다시 1,500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31일의 시위에서는 헌병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초산군에서는 3월 16일 읍내에서 300명의 기독교인들이 시위운동을 벌인데 이어 30일 다시 4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31일에는 다시 읍내에서 천도교인 4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고 군내 최대의 시위운동으로서 4월 1일 3,000명이 읍내에서 시위운동을 벌였다. 군대가 출동하여 시위대는 해산하였으나, 이날 밤 600명이 다시 집결하여 시위운동을 계속했고, 다음날 밤에는 산위에 올라가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자성군에서는 3월 16일 중강진에서 신성학교 졸업생 金宗河가 중심이 되어 시위운동에 돌입하니 상가들도 철시하여 호응하였다. 4월 10일 장토면 주민 40여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창성군에서 본격적인 시위는 4월 1일 읍내 기독교 교회 장로인 康濟義 주도로 전 군 차원의 시위운동을 벌였다. 먼저 일본헌병대에 독립선언축하식 개최를 통고하고 1,000명 이상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선언서> 낭독과 시가 행진을 벌였다. 시위대에 대하여 일군이 발포하여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을 당했다. 동창면 대유동에서는 3월 31일 천도교인 60여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4월 1일의 읍내 시위도 대유동이 중심이 되었다. 2일 대유동에서 다시 500명의 시위가 있었다. 5일 청산면 학송리에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300명의 시위운동을 펼쳤다. 일병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6일 청산면 청룡리에서 천도교인 70명이 만세시위를 벌이다 일본 헌병대와 충돌하여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였다.

벽동군에서는 3월 31일 읍내에서 200명이 독립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800명의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위원군에서는 3월 31일 읍내에서 천도교인 30명의 시위가 있었다.

운산군에서는 4월 5일 북진에서 천도교인이 중심이 된 300명의 시위대가 시위운동을 벌여 일병의 발포로 8명이 부상당하였고, 35명이 구금되었다. 같은 날 읍내에서 2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강계군에서는 4월 8일 읍내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연합하여 800명이 북과 나팔을 불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일군은 북문 문루에 수비대를 매복해 두었다가 시위대의 도착을 기다려 무차별 발포하여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3명이 체포되었다. 11일에는 고산진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라) 함경남도

함경남도의 만세시위운동은 원산·함흥과 영흥을 중심으로 정평·북청·신흥·이원과 단천에서 초기에 시작되었다. 3월 중순에는 초기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새로이 고원·풍산·갑산·장진·덕원·삼수·흥원에서 시위운동이 시작되어 도내 시위의 절정을 이루었다. 후기에 들어가면 원산·함흥·흥원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을 뿐 대체로 종결되었다.

원산부내에서는 3월 1일 오후 2시 원산 장날을 기해 북과 나팔을 불며 시위운동을 시작하니 2,500명이 운집하였다. 일본 경찰·헌병·소방대가 동원되어 소방호스로 물감을 뿌리며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시위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고 30명이 체포되었다. 4월 5일에는 전 시가가 철시함으로써 무언의 저항을 보였다.

함흥군에서는 3월 3일 함흥 장날을 거사일로 잡고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함흥고등보통학교 등의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중 2일 읍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산발적인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3일 새벽 함흥 전역에 경찰은 비상선을 치고 예비검속을 하여 시위를 준비하던 기독교계 지도자와 학생대표들이 모두 구금되었다. 구금된 이들이 고문을 받는 중에도 독립만세를 외치자 철장 속에서의 만세합성이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학생·시민 1,000여 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누볐다. 함흥읍내의 시위운동은 이렇게 하여 4일 전 시가가 철시하고 200명의 기독교인과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5일·6일 계속되었고, 일본군 100명이 출동하여 첫날 88명이 구

금된 데 이어 둘째 날 46명, 셋째 날 60명이 구금되었다. 6일 함주군 지경리에서 250명의 군중이 모여 경찰관 주재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같은날 저녁 하조양면 주민 400명은 오로리 현병주재소까지 행진하며 일제를 규탄하였다. 8일 퇴조리에서 200명, 9일 동흥리에서 50명, 10일과 11일 읍내에서, 21일 다시 함주군 지경리에서 300명이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는 시위운동을 벌였다. 4월 8일에는 덕천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 4일에는 함흥의 각 관청에 종사하던 한국인 10여 명이 사퇴하였다. 함흥면 朴相甫는 독립운동의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독립신문》을 등사하여 5월 15일까지 시내에 뿌리다 체포되었다.

영흥군에서는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관내에 배포되고 17일 500명이 모여 시위운동을 벌였다. 7일 동상리에서 150명이, 21일에는 선흥면 성리 장날이 파할 때를 기다려 200명의 시위군중이 성리 경찰관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 유리창과 기물을 파괴하였다.

정평군에서는 3월 7일 읍내 풍납리에 200명이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14일과 15일에도 읍내에서 시위운동을 벌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였다. 8일에는 춘유면 기독교인들의 시위움직임이 있었고, 다시 13일 신하리 장날을 기해 300명의 춘유면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현병주재소와 일본인 철도숙사를 습격하였다. 일병의 발포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14일 선덕면 선덕장터에 500명의 시위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현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16일과 17일 고산면 풍송리에서 일단의 시위군중이 주재소 앞에서 시위운동을 벌인 뒤 해산하였다. 풍송리 시위는 20일까지 5일간이나 계속되었다.

북청군 최초의 시위는 3월 8일 천도교인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5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고, 11일 360명이 읍내 천도교당 앞에 모인 가운데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경찰은 예비검속을 통하여 주도자들을 구금하고, 읍내외를 차단하였으나 읍외 사람들은 남문과 서문 밖에서, 읍내 사람들은 성안에서 상호 호응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펼쳤다. 14일에도 읍내에서 100명의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시위운동이 있었다. 12일 평산면에서 100명의 사립학교 학생 중심의 시위, 12·13·16일에 신창면 신창리에서

100~150명의 시위운동을 벌였다. 14일에는 양천면에서 천도교인 80명이, 15일 양화면에서 사립학교 학생 중심의 80명 시위가, 16일 창성리에서 천도교인 150명이, 17일에는 거산면 주민 300명이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17일과 18일에 걸쳐 上車書面에서 천도교인 150명이 방촌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李求準과 高明哲 등은 등사판으로 납세거절, 대정연호 거부, 한인 관공리 퇴직 권고 등을 촉구하는 격문을 만들어 조선독립단의 이름으로 배포하고, 후속호에는 《대한독립신문》이라는 이름으로 각지의 만세시위 소식과 논설을 실었다. 이들은 평산 면사무소와 가회면 사무소 방화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신흥군에서는 3월 9일 읍내에서 80명이, 10일에는 보통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어 500명이 시위운동을 벌여 헌병 분견소에 2차에 걸쳐 쇄도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원군에서는 3월 10일과 11일 읍내에서 300명의 시위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위는 李道宰 등 지사와 천도교 지도자들이 ‘조선독립이원지단’을 결성하고 선도하였던 것이다. 14일과 18일·20일에도 읍내 시위가 있었는데, 20일의 시위는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1,500명이 헌병분견대를 습격하는 등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11일 시위운동은 남면 遮湖로 번져 보통학교 학생 및 주민 1,500여 명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13·16일에도 계속 시위운동이 있었다. 동면의 시위는 11일 상화리 청년들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있었다. 14일 동화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70명, 15일 천도교인 중심의 300명, 27일 1,000명의 시위운동으로 계속되었다. 동면 시위 중 “우리에 게서 빼앗아 간 세금을 도로 내 놓아라”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단천군의 만세시위는 3월 10일 300명의 천도교인이 교당에 모여 敎祖 순도 기념식을 거행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1,000명의 주민들과 함께 시가행진에 돌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헌병주재소에 쇄도하는 군중을 향하여 마구 사격을 가하여 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 22일 북두일면 대신리 주민 300명은 단천 읍내 참상에 분개하여 헌병분견대에 쳐들어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헌병들은 또다시 시위군중에 발포하여 8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고원군에서는 3월 3일 향교에서 광무황제 추도식을 베풀고 6일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읍내에서 시위운동을 벌였다. 19일 기독교인들이 읍내 하시장에서 100여 명이 모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풍산군에서는 3월 14일 풍산 천도교당에서 1,000명의 시위군중들이 독립기원 기도와 연설을 듣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헌병들이 칼과 몽둥이로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자 시위군중은 헌병분견소로 쳐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병기를 탈취하려 하였다. 이때 초소에서 일제 사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갑산군에서는 3월 15일 천도교 교당에 2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시위군중은 1,000명으로 불어났고, 시위대는 헌병의 제지를 뚫고 군청을 습격하였다.

장진군에서는 3월 14일 고토리 주민 200여 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하다 저지하는 헌병들과 충돌하여 헌병주재소로 쇄도하였다. 이에 하갈리 헌병대의 지원을 받아 발포로써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덕원군에서는 3월 15일 중평장에서 300명의 시위가 벌어져 19명이 구금당했다. 24일 읍내에서 수백 명이 시위운동을 벌이며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다.

홍원군에서는 3월 16일 홍원장날을 기해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7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튿날에도 1,000명의 시위군중이 읍내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22일 용포면과 인근 부락민 400여 명이 중평리 사자목 산등성이에 모여 평포 경찰관주재소로 진격하였다. 일경의 발포로 인해 1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8명이 검거되었다. 4월 8일 포청면 삼호리 100명의 어린이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시위운동을 벌였다.

마) 함경북도

함경북도의 만세시위운동은 3월 10일 성진, 12일 길주, 15일 명천과 경성 등 함경남도화 접한 군들에서 먼저 시작되어 점차 3월 하순과 4월초에 가면서 회령·청진·부령·무산·온성·경흥·명천 등지로 퍼져갔으며, 대체로 중기에 시작하여 후기에 걸쳐 산발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성진군은 함경북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시발이었다. 3월 10일 그레이슨

(具禮善) 목사의 재동병원 앞에 旭町교회 교인을 비롯한 주민들 수백 명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시가행진에 돌입하였다. 제지하는 일본 군경과 시위대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졌고, 나남에서 기병 14명이 증원되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날 臨溟에서도 밤 11시 경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3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11일 이른 아침부터 일본인 소방대들이 한국인 거리를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도끼로 찍고 총을 쏘아 죽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오전 10시 경 기독교인 700명이 재동병원 앞에 집결하여 시위운동을 재개하였다. 일본 군경과 소방대 약 100명이 동원되어 발포로 1명이 죽고 9명이 부상당하였으며, 54명이 구금되었다. 이날 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00명이 다시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학서면 천도교인 1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12일 학성면 주민 250명이 산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13일 송흥에서 200명의 만세시위가 있었고, 14일과 15일에는 荷川에서 종과 큰 북을 치며 200명의 군중들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길주군에서는 천도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3월 12일 길주 장날을 기하여 1,000여 장꾼들과 더불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병 30명이 출동하여 총칼로 시위대를 저지하였다. 13일 덕산면 일신동 주민 30여 명은 산봉우리에 모닥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으며, 같은 면 300명의 일부 시위대는 海子浦에 있는 일본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14일 동해면 용원동 일대 주민 1,500명은 독립만세를 부르며 용원시장에서 헌병주재소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길주 헌병대에서 응원대가 급파되어 총을 난사하여 3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하며 해산하였다. 15일 옹평면 용천동 사람으로 간도에 이주해 있던 馬河龍이 독립운동 소식을 듣고 귀향하여 옹평면 사무소 앞에서 주민 300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루었다.

경성군에서는 3월 15일 전날 예비검속으로 시위를 계획했던 천도교인 중심의 주동인물 대부분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주민들은 輪城 거리에 모여 시위운동에 들어갔다. 일본군 60명이 출동하여 경계를 펴고 있던 터라 104명이 체포되고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해산한 500명의 주민들은 저녁 8시 경 시위운동을 재개하였다. 20일 어대진 향의 주민 700명이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4월 9일 인근 주민 1,000명이 다시 어대진에 모여 시위를 벌였으나 일본 군경의 총검에 의해 해산되었다.

명천군은 3·1운동 기간 중에 함경북도에서 가장 치열하고 줄기차게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14일 下加面 花臺洞에 5,000명의 시위군중이 몰려들었다. 함경북도 최대의 시위인파가 모인 이곳 시위대가 독립만세를 부르며 현병분견소에 이르자 일본 기병 15명이 출동하여 무단발포함으로써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15일 주민들은 다시 화대장터에 모여 하가면 사무소로 채도하여 면장을 끌어내어 만세를 부르도록 요구하고, 현병분견소로 나아가 압박하였다. 기마헌병이 다시 시위군중에 무단발포를 가하여 4명이 숨지고 남녀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16일 阿間面 시장에서 400명, 17일과 19일에는 상고면 보촌동에서, 18일 靑社場에서 군중 7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21일에는 雲滿臺에서 수십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후 휴지기를 거친 다음 4월 8일과 9일 서면 靑東洞에서 운동사립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300명이, 14일 산성동과 고성동에서 각각 300명, 200명의 시위운동이 있었다.

회령군에서는 3월 19일부터 일제의 주밀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각종 격문과 〈독립선언서〉들이 거리에 나붙기 시작하였다. 25일 회령교회 崔景在 장로 등이 교인 30여 명과 함께 우편국 앞에서 시위운동을 시작하자 졸업식에 가던 보통학교 학생들과 교사와 학부형들도 이에 합류하여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시위대열을 이루었다. 26일에도 전날에 이어 보통학교 학생들과 교회 신도, 신흥남학교와 보흥여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여 시위운동을 벌였다. 27일에는 벽성면 영완동에서, 28일에는 봉의면 남산동에서, 29일에는 화풍면 인계동 고령진 등지에서 각각 소규모 시위운동이 있었다.

청진부에서는 3월 31일 400명의 시위군중이 정오에 신암동에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尹炳厚 등이 중심이 된 이 시위운동은 주동인물 6명이 체포되면서 해산되었는데, 군중의 일부는 주동인물의 석방을 요구하며 신암동 일대에서 다시 시위를 벌였다. 4월 1일 다시 450명의 시위군중이 인암동에서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날 또한 포항동에서도 200여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다 출동한 청진부 직원과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중 100여 명은 청암면 도동까지 20리 길을 행진하며 계속 만세를 고

창하였다. 19일 신암동 주민 150명과 인곡동 주민 100명 등이 다시 시위운동을 기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주동인물들은 검거되어 고문을 당했다.

부령군에서는 4월 1일 道洞에서 천도교인 100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무산군에서는 연사면 四芝洞 모범서당 훈장 南學九의 주도로 4월 1일 서당학생, 연사공립보통학교 학생과 주민들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7일에는 무산공립보통학교 재학생·졸업생, 주민이 합세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온성군에서는 4월 4일 연흥면 회덕동 회동교에서 25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영춘면 사무소를 지나 北蒼坪 시장으로 행진해 갔다. 일본 헌병들이 총칼로 저지하자 군중들은 돌과 나무막대로 대항하였다. 헌병들의 무차별 발포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이 체포되었다.

경흥군에서는 4월 8일 저녁 읍내 경흥보통학교에서 청년 15~16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시작하던 차에 출동한 헌병에 의해 주동인물이 구속됨으로써 해산하였다.

〈李廷銀〉

3. 3·1운동의 해외 확산

1) 중국 만주

(1) 북간도의 시위운동

만주지역은 일찍이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으로서 근대에 들어와서도 1860년대이래 우리 민족이 기근을 피해 越境·개척하기 시작하여 3·1운동 당시에는 북간도 지역에 35만, 서간도 지역에 25만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 동삼성 일대와 시베리아·연해주까지 합치면 150만에서 200만의 동포가 분포하여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여기서 북간도 지역은 두만강 건너 汪清·延吉·和龍·渾春縣을 말하며, 서간도는 압록강 건너 남만

주지역으로 長白·臨江·輯安·寬甸·撫松·通化·桓仁·興京·柳河縣 등을 말한다.

북간도에는 墾民會·墾民教育會 등의 항일운동단체가 있었고, 서간도에는 耕學社·扶民團·韓族會 등이 있어 민족운동의 구심체가 되어왔다. 북간도는 1906년 서전서숙 설립 이래 明東·昌東·正東·光成學校, 서간도의 新興學校 등 이곳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여 민족주의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통하여 적절한 기회가 오면 조국을 광복하고자 한 원대한 독립운동 방략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1907년 일제는 연길현 용정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국자가·훈춘 등 여러 지역에 영사관 분국과 경찰서를 설치하여 이주 한인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중국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1915년 5월 9일 일본의 21개조 요구안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중국 관현들까지 독립운동에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세계대전의 발발로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대했던 이 지역 독립운동가들은 공개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군국주의적 군주국가의 패망과 민주주의 국가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갖게 되었다. 국내외 동포들이 한국의 부당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세계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¹⁾

1919년을 맞으면서 이러한 독립운동 준비를 블라디보스톡과 니콜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령 연해주와 연계하여 추진했다. 선언서의 제작, 파리 평화회의 대표 파견 등이 선정되고 이들을 파견할 여비를 모금했다. 이때 광무황제의 붕어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서는 추모예배 또는 봉도회가 열렸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월 18일과 20일 북간도 독립운동가 33인의 비밀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결정되었다.

1) 서광일, <중국·만주지역의 3·1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 3, 1988), 406~410쪽.

- ① 북간도 내 각 교회 및 모든 단체는 서로 단결·협력하여 조국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
 - ② 노령 연해주에서 협의 반포할 독립선언서의 공표와 동시에 간도 내 모든 단체는 시위운동을 개시할 것.
 - ③ 한민족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 간도 내 각 단체의 유력자들은 용정에 집합하여 독립선언의 기세를 앙양시킬 것.
- (姜德相, 《現代史資料》 27, 동경: みすず書房, 1965, 84~85쪽).

또한 시위운동 중 일제 관헌에게 체포될 경우 희생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로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혈서로 결의하고, 명칭을 光復團이라 하였으며, 북간도의 국자가·용정촌·종성·간도 滋洞·팔도구·평강의 5구역에 8명의 책임자를 정하였다.²⁾ 간도지역 청년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각 학교에서는 연설회를 열고, 2월 29일 밤에는 일본 영사관 분관에 방화미수사건도 있었으며 3월 1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용정의 학교와 교회에서 3회에 걸쳐 만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³⁾ 용정의 지도급 청년들은 기독교동지청년회를 조직하고, 같은 날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1919년 3월 7일 국내에서 3월 1일에 독립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하여 왔다. 이에 연해주 국민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북간도 지역 지도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朝鮮國民議事部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壘島居留朝鮮民族의 이름으로 〈獨立宣言布告文〉을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강봉우와 이지택에 의해 전해 온 서울의 〈독립선언서〉에 북만주 조선민족대표자 17인을 첨가하여 등사하였다.⁴⁾ 10일부터 각급 학교는 휴교 조치하였다. 시위운동의 장소는 일제의 간도 침략의 거점이며 일본 총영사관 소재지인 용정으로 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탐지한 일제는 중국측에 외교적인 압력을 가했다.

가. 연길현

연길현 최초의 시위운동은 3월 13일 용정에서 시작되었다. 시위운동 장소

2) 姜德相, 《現代史資料》 27(동경: みすず書房, 1965), 85쪽.

3) 서광일, 앞의 글, 417쪽.

4)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어문각, 1967), 617~618쪽.

인 용정 서전대야에는 수많은 한인들이 멀리서는 200리부터 70, 80리 밖에서 전날부터 출발하여 모여들었다. 용정의 800호 한인들은 집집마다 문앞에 태극기를 내걸었다. 12개 한인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의 인솔하에 대열을 지어 사방에서 참가하였다. 총독부 부설 학교에서도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식장으로 모여들었다. 상해판 《독립신문》은 이날 모인 亡國의 한인이 3만 명을 헤아렸다고 하였다.⁵⁾

천주교 성당의 정오 타종을 신호로 큰 태극기와 “정의인도”·“대한독립”이라고 써 걸은 五丈旗를 중심으로 둥글게 서서 부회장 배형식 목사의 개회 선언에 이어 대회장 김영학이 〈독립선언포고문〉을 낭독하였다.

〈독립선언포고문〉

아 조선민족은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하노라. 민족의 정의를 선언하노라. 우리는 4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요, 2,000만 신성한 민족이었노라. 그런데 우리 역사를 湮滅하고, 우리민족을 羈絆 밑에 신음하게 하며 농락 중에 고통케 함이 어언 16개 성상을 閱歷하였다. 이는 強隣의 무정이라 할 수도 없고 학정이라 할 수도 없으며, 침략주의적 묵은 옛시대의 사용방법이었고, 萎靡 자축적 少弱人生의 自然禍源이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리오. 그러나 지사의 눈물은 동해에 보탬었고, 愚民의 원한은 창천에 사무쳤다. 天聽으로 향하고, 天視는 民視로 향하여 世運이 일변하고 人道가 새로워지는 때에 정의의 曉鐘은 큰 거리에서 떨쳐울리고 자유의 배는 앞마루에 두둥실 떠오르는도다. 강국의 비행기와 잠수함은 洋海에 침몰하고 약자의 높이 날린 義旗는 춘풍에 나부끼는도다.

우리는 역시 天民의 하나요, 약자의 하나이다. 이제 천명을 承順하고 인심을 合應하여 二千萬衆의 한 입으로 일제히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두 손을 굳게 잡고 평등의 큰 길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 동양문명의 수뇌가 되고 동양평화에 아성이 되는 선진의 나라는 현세의 변천을 회고하여 猛省改悟할지며 우리들의 성의를 양찰하여 默認特許하리로다. 이에 우리의 首府인 서울에서 독립기를 먼저 들매 사방이 파도같이 움직여 반도 강산은 초목금수가 모두 향응하여 轟鳴하니 우리 간도 거류 80만 민족도 혈맥을 멀리 이어받아 聲氣를 서로 통하여 皇天의 부르심에 감응하여 혼연히 인류의 계급에 동등하는 바이다.

5) 사방자, 〈북간도 그 과거와 현재〉(《독립신문》, 1920년 1월 10일).

〈공약 3장〉

1. 오인의 이 거사는 正義・人道・生存・尊榮을 위한 민족적 요구인 즉 배타적 감정으로 광분치 말라.
2.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라.
3.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히 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公明正大케 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13일

간도거류조선민족 일동

이 포고문은 이역에 나와 조국의 운명에 대해 느끼는 슬픔과 회오를 바탕으로 깔고 서울의 독립선언에 호응하여 독립에의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 포고문의 공약 3장을 보면 서울 선언문의 영향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포고문 낭독이 끝나자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유예균·배형식·황지영 등 3인의 비분강개한 연설은 군중들을 더욱 격려하였다. 이에 시가행진에 돌입하여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대열을 지어 시가지로 향하였다. 대열이 오충대 앞을 지날 때 중국 무장 육군대가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를 시작하여 현장에서 13명이 목숨을 잃고, 중상자가 30명이 넘었다. 중상자 중에 나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6명 추가되어 사망자는 모두 19명이 되었다. 3월 17일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식이 캐나다 선교사 민산해가 하는 제창병원에서 4,000여 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엄수되어 허청리에 안장되었다. 한편 이날의 중국군의 발포는 일본 군대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빌미로 간도로 침입할 것을 우려하여 시위운동을 저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13일 용정시위가 있던 날, 용정에서 40리 거리에 있는 연길현 내 二道溝에서도 700여 명의 한인과 중국인들이 모여 독립축하회를 열었다. 15일 志仁社 8도구에서 200명이, 16일 頭道溝에서는 약 2,000명의 동포들이 독립선언식을 개최하고 6명의 연사들의 강연을 들었으며 군중들이 만세를 높이 부르고 해산하였다. 17일에는 守信社 이도구 시장에서 약 4,000명의 동포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20일에는 용두산에서 500명이, 中南溝에서 400명이, 23일에는 守山里에서 1,200명이, 24일에는 이도구에서 800명이, 26일에

는 局子街에서 具春善의 지도로 명동·정동학교 학생들과 기독교 신자들을 포함하여 2,000명이, 27일에는 수신사 九沙坪에서 훈춘 이남의 각지 학교 교사와 학생 및 거류 동포 4,000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29일에는 馬牌市에서 2,000명의 시위가 있었고, 4월 4일 樺田子에서 1,500명, 5일 三道溝에서 300명이 모여 독립선언 축하식을 거행하였다. 6일에는 평강상리사에서 70명이, 12일에는 용정촌에서 명동 예수교학교 직원과 학생, 영신학교 학생 등 200명이 장날을 기해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나. 화룡현

화룡현에서는 용정대야 시위와 같은 3월 13일 東良上里社 養武亭子 제3국민학교에서 학교 교사와 학생, 한인 300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 배포와 연설회가 개최되었다. 화룡현에서 3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화룡현 내 각지에서 전개된 시위운동의 지역과 참여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13일	東良上里社 養武亭子	300명
14일	智新社 七道溝	200명
15일	下廣浦	500명
"	合化社 威朴洞	300명
"	志仁社 八道溝	200명
16일	勇新社 楊木頂子	300명
18일	新興坪	500명
"	靑山里	900명
19일	明新社 土山子	300명
"	명신사 二道溝	300명
25일	沙器洞	150명
28일	太拉子 중국 관헌 제지로 산회	
29일	선화사 강장동	100명
4월 2일	始建坪	800명
5월 1일	智新社	500명

이중 3월 18일 청산리 시위는 기독교인 金河範과 단군교인 金賢默이 협력하고 지방의 교인과 학생·천도교인이 총연합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다. 왕청현

왕청현에서는 3월 26일 百草溝 商埠地에서 독립선언축하식이 열렸다. 사립 학교 학생·단군교인·부인 및 일반 한인 1,200명이 모인 가운데 대왕청의 金錫九, 유수하의 桂活(일명 桂和), 하마탕의 具子益 등 3인의 연설이 있는 다음 상부지로 진입하려 하자 중국 관헌이 제지하였다. 왕청현공서 순경국장 과 비서가 참석하여 순경국장이 격려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28일에는 羅子溝에서 具春善·張漢鳳 등이 지도하는 가운데 약 1,000명의 한인들이 참가하여 독립축하회가 열렸다. 이 지역 金東漢은 총기 200정과 장정 400명, 군자금 2십만 조를 모집하고, 시위운동에 관여한 주도 인물 10여 명이 5연발 軍銃을 구입하였다. 같은 날 綏芬大甸子에서도 2,000명의 시위가 있었다. 30일 屈道山에서 300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한편 동녕현 三岔溝에서는 17일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축하식이 개최되었다. 나자구와 삼차구 지역은 3·1운동을 계기로 무장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발전하였다.

4월 들어 왕청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잇달았다. 지역별 일시와 참여인원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월 16일	백초구	5,000명
"	石峙市	3,000명
"	小東溝	300명
19일	봉오동	3,000명
20일	春芳社	5,000명
27일	磊子溝	5,000명
29일	大坎子	2,000명

라. 훈춘현

훈춘에서는 용정 시위운동 1주일 후에 일어났다. 3월 20일 아침 6시 반경부터 한인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상가는 모두 철시하였다. 오전 8시 경 훈춘시가 東大人溝에는 인근 지역에서 350명의 한인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의 오장기를 세우고 주악에 맞추어 태극기를 들고 행진해 왔다. 국한문으로 된 <독립선언서>가 거리에 뿌려졌다. 중국 군경의 삼엄한 경계는 있

으며 용정에서와 같은 무단적 저지는 없었다. 각지에서 온 군중이 더하여져 3,000명이 원형으로 대열을 이룬 가운데 독립축하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장 황병길이 “이번 강화회의는 단서도 없이 한국독립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제에 일치단결하여 강적의 銃火 앞에 空拳으로 서게 되어도 신명을 아끼지 않고 다년의 소지를 관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⁶⁾고 했다.

회중은 모자를 벗어 손을 높이 올려 만세를 불렀다. 盧宗煥·崔東文·金貞奎 등의 연설이 이어진 후 식은 끝났다. 일동은 다시 동문으로 행진을 하였다. 훈춘강변에 이르러 다시 원형진을 만들고 학생들은 주악을 울렸으며, 군중을 만세를 높이 불렀다. 오후 1시 경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이들 중 500명은 장총으로, 200명은 권총으로 무장을 하였다. 그들은 일본영사관으로 가서 일본기를 끌어내렸다.⁷⁾ 이곳의 시위운동은 이후 22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은성과 종성에서 왔던 인사들은 훈춘시위에 참여하고 돌아가 그곳의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⁸⁾

3월 30일 황병길은 훈춘현 漢德子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열변을 토하고 만세를 고창한 후 4월 1일 훈춘 북쪽 150리에 있는 塔道溝에서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일 煙筒拉子 부근에서는 한인으로서 러시아군인으로 활약하는 청년 200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무장시위를 하였다.

훈춘시위 이후 시위대들은 각지로 흩어져 만세시위보다는 결사대를 모집하는 등 무장투쟁 준비에 착수하였다. 황병길은 국내진공대원 1,500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 150명을 뽑아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훈춘현의 대한국민의회는 매호당 무기 1정씩 준비하게 하고 두만강 건너 경원·온성·종성·무산·나남 등지를 진격하기로 하였다. 4월 23일 훈춘 황구 북일학교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나 염탐하던 영사관 출장소 한인 순사 한 명을 붙잡아 구타하였다.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1973), 710쪽.

7) 국회도서관, 《한민족독립운동사료(중국편)》, 64~69쪽.

8) 서광일, 앞의 글.

(2) 서간도의 시위운동

가. 유하현

서간도의 시위운동은 북간도보다 하루 먼저 시작되었다. 경학사와 신흥강 습소가 설립되었던 유하현 삼원보에서 3월 12일 한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기를 게양하고 독립선언경축대회를 개최하였다. 3월 17일에는 학생들과 부민단원이 주동이 되어 1,000명이 모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들은 압록강을 넘어 본국으로 들어가 시위운동을 벌일 계획까지 세웠으나 李始榮이 맨주먹으로 압록강을 건너려는 무모함을 들어 만류하였다.⁹⁾ 같은 날 삼원보 大沙灘에서는 보통학교 학생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주민 500명이 모여 독립선언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3월 19일 삼원보 기독교학교 학생과 기독교인 220명, 20일에는 다시 부민단원 250명이, 21일에는 대사탄보통학교 학생 3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22일에는 南尙福·朱鍾敬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독립축하회를 개최하였다.¹⁰⁾

삼원보의 大韓獨立總團所에서는 각 현에 위원들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권유하고 국내진공을 계획하였다.

나. 통화현

통화현 지역에서는 3월 12일 金斗伙洛의 금두화교회에서 기독교인과 한인 청년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快當帽子 부근에서 한인 4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금두화락 시위운동에서는 일본 밀정노릇을 해 왔던 계성주를 붙잡아 반역죄로 평결한 다음 3일 뒤 처단하였다. 한인청년회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일까지 운동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일제와 중국 관헌의 집중적인 경계와 단속이 심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지역 시위운동 주도자들은 서간도 각지에 파견되어

9) 姜德相, 《現代史資料》 27, 101쪽.

10) 姜德相, 《現代史資料》 27, 95쪽.

서평일, 앞의 글, 427~428쪽.

3·1운동을 촉진하였다. 유하현 삼원보, 통화현 哈泥河 지역의 부민단원·기독교인·학생들은 압록강 방면 이주 한인촌, 국내 등 각지에 연락하여 태극기를 계양하고, 五人班 등 독립운동의 하부조직을 만들게 하였으며, 각지에서 독립운동축하회와 독립운동비를 각출하는 등 서간도 독립운동을 새롭게 활성화시켰다.¹¹⁾

4월 들어 통화현 쾌당모자 금두화락 부락민들은 총기구입과 700벌의 피복을 제조하고,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우마를 징발하고, 군사비를 거출하였다.

금두화락의 吳成範은 170명의 무장대를 이끌고 4월 10일 압록강 연안의 현병대를 습격하고자 집안현 동취보 흑소자구에 집결하였다. 12일에는 쾌당모자의 尹德培와 왕청현의 林弼東은 600명의 무장대를 이끌고 집안현 운지구에 집결하여 친일단체 조선인조합 지부와 일제 경찰을 습격하고자 하였다. 삼원보의 부민단의 명칭이 독립단으로 변경되었던 것도 이러한 무장투쟁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다. 환인현

환인현에서는 3월 23일 한인 400명이 일제의 방해가 있을 경우 무력으로 저항하기 위해 병기를 소지하고 시위운동을 벌였다. 4월 10일 통화현 합니하에서 曠宗석이 上漏下 二道陽岔에 와서 이 지역 민족운동가와 합세하여 100여 명으로 무장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던 조선인조합 裡岔溝 지부장과 서기를 응징하고, 曠宗석을 총대장으로 삼아 1,000명의 시위대를 무장하여 국내진공을 계획하였다.

라. 관전현

관전현에서는 3월 22일부터 長陰子 한인들을 중심으로 1주일간 계속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 시위에는 100명의 시위대와 환인현으로부터 무장대 10명이 합세하여 국내진공을 시도하였다. 灣溝 태평초에서는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자 곧 결사단을 조직하여 국내 각지 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 小雅河에서도 독립만세시위와 함께 무장대를 결성하여 국내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관

11) 姜德相, 《現代史資料》 27, 110쪽.

서평일, 위의 글, 428쪽.

전현의 모든 시위운동은 만세시위로 그치지 않고 무장대를 조직하여 국내 진공을 시도하거나 준비하였다. 이것은 3·1운동 이후 본격화된 무장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小不太遠의 한인 100명은 4월 1일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친일행위를 한 조선인조항 지부를 습격, 지부장과 평의원을 포박하여 전향을 촉구하였다. 3일과 4일 下漏河 초항구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200명이 초항구 예배당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대회를 개최하였다. 10일 소불태원과 하루하 한인들이 연합한 300명이 압록강변 石桂子에서 독립운동의 개시를 선포하고 일본 헌병과 밀정을 살해할 것이며, 동지들과 단결할 것을 맹세하였다.

마. 장백현

장백현은 험준한 산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 長白街에서 천도교인 30명이 주도하여 시위운동을 벌이며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으나 일본 헌병의 반격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날 각구 면장 6명과 기독교인, 민족운동가 35명이 협의하고 장백현에서도 국내 동포들과 함께 궐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29일 장백현 팔도구에서 200명의 한인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게시하고, 집집마다 배포하였으며, 30일 정몽학교에서 300명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일제 하수인 노릇을 하는 헌병보조원·순사보 등에게 제복을 벗고 민족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4월 8일 정몽학교 학생 25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10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및 학생 70명이 연합하여 압록강을 건너 해산진에서 시위운동을 벌이고자 압록강 대안 보혜면 송봉리에 집결하였으나 중국 관헌의 제지를 받아 실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장백현 독립운동가들은 4월 중순 이후 일제의 감시와 중국 관헌의 탄압을 피해 운동 근거지를 통화현·무송현 등지로 옮겼다. 이들은 독립운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장백현 1만 한인들에게 〈독립선언서〉 1매에 2원 50전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바. 홍경현

홍경현에서는 3월 17일부터 시위운동을 준비하여 21일에는 400명 규모의 義勇團을 조직하고 왕청문 교회에 모여 독립선언축하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중국 관헌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저항하는 부민단원에 발포하여 9

명이 목숨을 잃었다. 31일 왕청문 교회에서 순국한 9명의 추도식을 거행하고 국내 진공과 중국 당국에 항의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사. 안도현

안도현에서는 3월 24일 대종교인 200여 명이 關地에 모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곳은 백두산 북쪽 구릉지대로 교통이 불편하고 마을이 소원하여 시위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27일 안도현 현성에서 한인 400명이 모여 독립선언축하식을 거행하였다.

아. 임강현

3월 29일 8도구에서 한인 200명이 집결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음 날 8도구 한인학교에 300명이 다시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하였다. 31일 溫寶城과 石頭城에서는 1,000명의 한인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모아산 부근에서는 3월 하순 한규설·곽종석·전우·최린·윤용구·손병희·오세창 등 유림과 천도교 지도자를 대표로 하는 〈조선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집안현

압록강 대안의 집안현은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3월 17일 유하현 삼원보의 기독교인 6명이 집안현 致和堡 礮石岔의 기독교인에게 유하현의 소식을 전하자 그곳 기독교인 60명이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민단지부 철폐를 결의하였다. 21일 楊子橋子에서 기독교인 170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같은 날 菲菜園子에서는 한인 100명이 모여 시위운동을 벌였다. 25일에는 치화보 大檜溝에서 천도교인 60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31일 충화보 小陽岔 서변 하계의 천도교 교구장 金呂植 등은 교인 120명과 함께 大洋岔 보감국 부근 외차구 시가로 행진하였다. 대평구 磊石岔에서는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약 400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이날 남석차 교회에서 기독교인 천도교인 등 약 600명이 집결한 가운데 독립선언식을 하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4월 이후 시위운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월 3일 서취보의 기독교인 崔錫俊과 李尙根 등은 치하보 雙岔河의 田俊杰 등과 한족회를 조직하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 8일 通溝의 천도교인 200명은 통구 조선인조합 지부를 습격할 계획으로 시위운동을 벌였으나 중국 관헌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는데 다음날도 조선인조합 총지부 첩보를 주장하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 12일 피조구에서 7구장 金洛九 주도로 한인 200명이 시위운동을 하였다.
- 17일 紅石磊子에서 한인 400명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 18일 祥和堡 한인 200명은 楸皮溝에 집결하여 압록강을 따라 만세시위를 하였다.
- 19일 남자구 6구장 金吉甫 주도로 한인 250명이 시위하였다.
- ” 古馬嶺 太陽岔에서 한인 300명이 시위하였다.
- ” 집안현 馬蹄溝 부근 한인 700명이 雲海川 대안에 집결하여 국내 진공을 시도하였다.
- 20일 外岔溝 하류 압록강 연안 나무 위에 무수히 많은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 ” 橫浮子溝에서 한인 700명이 시위하였다.
- 22일 老荒地 거주 한인 수 명이 독립단을 결성하였다.

차. 안동현

안동현에서는 3월 27일 한인 400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카. 기타지역

4월 상순 무송현 露水河 부근 한인 150명이 시위운동을 하였다. 4월 초순 안도현의 의병세력이 무송현에 집결하여 서대잠의 독립단에 가입하고 300명의 무장화하여 독립군 단체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서북간도 만세시위운동은 평화적인 만세시위운동에서 무장 독립군 단체를 조직, 국내 진공을 목표로 자금의 모집과 무기의 확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3·1운동 이후의 격화되는 무장투쟁이 이미 이때 준비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13종의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한인들이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이 만주지역 3·1운동은 민족해방의 끊임없는 열망과 노력으로 인하여 1920년대 민족운동과 무장투쟁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2) 러시아 연해주

(1)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1860년대에 들어 조선왕조가 말기적 폐정을 노정하고, 이에 더하여 자연재해가 거듭되면서 생존의 절망적 상황에 봉착한 함경도 주민 일부가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지역으로 들어가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시작한 이래 연해주 한인사회는 계속 수적으로 증가되고,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두만강 연안지역은 물론, 포시에트(Posiet) 구역, 블라디보스톡 및 우수리(Ussury), 한카호 주변지역, 나아가 시호테 알렌(Sihote Alin) 산맥 동부 해안지역과 우수리강 및 아무르(Amur)강 연안과 이후 건설한 시베리아 철도 연선을 따라 발달한 러시아 식민도시들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의 거주지가 확산되어 간 것이다. 연해주 한인사회는 그 수적·지역적 확대·확산과 더불어 20세기로 접어들기 전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의해 동포 자제 교육과 산업장려 노력이 자체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커져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조국의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을 위해 국내의 지사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을 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고국을 구출하는 운동의 기반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후 연해주 한인사회의 국권회복과 독립운동 노력은 1906년부터 본격화되어 최재형·이범윤·홍범도·안중근 등의 연해주 의병운동, 교육·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운동, 성명회 선언, 권업회 활동, 대한광복군정부 운동 등 국제정세와 러시아 정책에 따라 탄압과 허용의 부침을 거듭하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암묵리에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러시아로 하여금 일본과 유착, 한인 독립운동 금압을 가하도록 하여 이후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3년간은 심각한 제약 속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혁명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에게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미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때부터

세계사의 격랑에 휩싸이게 된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혁명은 극동지방에서 볼셰비키 적위파와 백위파간의 내전을 불러 왔고, 여기에 볼셰비키 혁명의 과급을 막기 위해 국제간섭군으로서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더불어 일본이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이 지역은 한층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정세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국면을 맞아 연해주 한인들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중 국내 3·1운동에 호응하여 현지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을 벌였으며, 간도지역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무력으로 국내 진공을 통해 국권을 회복할 계획들을 진행시켜 갔다.

처음 러시아혁명은 한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러시아혁명으로 즉각적으로 소비에트체제가 극동에서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1918년 4월 25일까지 이 지역은 이중권력상태로 내전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소비에트 권력은 중농들과 협력해야 했다. 이로 인해 빈농들에게 토지분배와 같은 혁명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게 되어 볼셰비키로 끌어들이 만한 요인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¹²⁾ 따라서 1918년 5월 니콜리스크¹³⁾에서 소집된 제2차 전로한족회에서 赤白内戰에 대해 중립을 선포하고 극동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에 한인들의 자치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자치의 중심지를 니콜리스크로 제시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¹⁴⁾

(2) 파리 강화회의 대표파견

1918년 11월 중순, 미국에 있는 한인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모여 노령에 있는 동포지도자들에게 파리강화회의에 특파할 미주 대표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통지하여 노령 동포의 대표자도 프랑스로 특파할 것

12) 권희영, <소련의 부랴트와 한인에 있어서의 혁명과 내전, 1917~1923> (《西洋史論》 34, 1990), 111~112쪽.

13) 니콜리스크는 1866년 니콜스코예라는 마을로 시작되어, 1897년 시가 되었고, 1926년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로 되었다가 1935년 보로실로프, 1957년 우수리스크로 되었다.

14) 반병률, <李東輝와 1910년대 海外民族運動-滿洲·沿海州地域에서의 활동(1913~1918)> (《韓國史論》 33, 1995), 259~260쪽.

을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노령의 독립운동가들은 니콜리스크에서 비밀회의를 열어 재노령 조선인 대표자를 프랑스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그 대표로서 李東輝(재노령 조선인 대표)·白純(재동청철도연선지방 대표)·崔才亨(귀화한인 대표)·李鏞(국내 대표, 이준의 장남) 등을 선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이 중국에 거주하는 까닭에 조선 내지를 대표할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령 한족회에서는 1월 하순 李興三을 조선 내지에 밀사로 보내 한족독립운동에 대한 권유위원이 되게 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유력인사들에게 이용에 대한 위임장에 연명날인하게 하여 상해의 이용에게 교부할 계획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 후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서의 회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尹海와 高昌一로 확정되어 이 두 사람은 1919년 2월 5일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로 된 ‘조선인 총대표’ 증명서를 소지하고 파리를 향해 니콜리스크를 출발하였다.

(3) 전로국내조선인회의

1918년 말부터 1919년 초까지 연해주 독립운동지도자들은 국내외 각지의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해 왔다. 서울의 이종호·김하석과는 이용의 대표파견과 관련하여 이흥삼을 파견하여 접촉하였고, 상해 신한청년단과는 여운형이 노령을 방문하여 노령 지역 지도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졌다. 일본지역 동경 유학생들과는 1918년 말 이래 연락이 오고가고 있었으며, 1919년 2월 초에는 동경유학생 대표가 노령에 와서 문창범과 만났다. 간도지역과는 지역적으로 가까와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19년 2월 25일 니콜리스크에서 전로한족중앙총회를 중심으로 노령과 간도 및 국내 대표자들이 전로국내조선인회의를 개최하자 金躍淵·鄭載冕 등이 간도대표로, 文秉浩·尹東喆이 훈춘대표로 참석하였다. 서간도에서도 대표 3명을 파견하였다. 전로국내조선인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노령과 중국 한인들의 의사를 집약, <독립선언서>의 발표와 시위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계획, 이를 추진할 대한국민회의의 조직 등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와 만주·노령 한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국민의회가 설립되고, 대표에 文昌範, 부의장 金哲勳, 서기 吳昌煥을 선출하였으며, 1919년 3월 17일 대한

국민의회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대한국민의회는 상설의원 30명과 통상의원 40~50명으로 구성하여 민족적 대표성을 강화하였으며, 집행부로서 선전부(후에 군무부로 개칭)·재무부·외교부의 3개 부서를 두었다. 지방조직으로 전로한족중앙총회의 지방조직과 훈춘지부·간도지부 및 국내의 경성국민의회도 조직되었다.

전로국내조선인회의에서 3단계 독립운동방안이 강구되었다. 제1운동은 <독립선언서> 발표, 태극기 게양, 가두시위운동, 제2운동은 국내외 무장세력에 의한 국내진입 무력시위운동, 제3운동은 무력시위운동과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간섭케 하고 파리평화회의에 한국 독립문제를 상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강화회의에 의제로 상정한다는 것은 국내를 ‘兵亂地’로 만들어 연합국으로 하여금 교전단체로 승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1만 명의 결사대를 조직 국내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4)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의 전개

<독립선언서>는 각 지방 대표가 니콜리스크에 집합하고 프랑스로 출발하게 한 다음 각 지방에 배포할 예정이며, 동시에 각국 공사 및 각지 주재 외국영사 등에게도 공식으로 통고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독립선언서>를 공표하는 동시에 각지에서 시위운동을 개시할 계획이었다.¹⁵⁾

이때 광무황제의 급봉으로 구성된 애도 분위기를 이용하여 추도요배식 거행을 표면적 이유로 하여 이 거사를 추진하였다. 한인들은 《韓人新報》(블라디보스톡)과 《韓族公報》(니콜리스크), 露語신문 《고오로스》·《우차야시치후사야》(니콜리스크) 등의 인쇄물을 통하여 치열하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고무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대해 저항하였다. 또한 각지에서 자주 집회를 열어 한인들을 고무하고, 한국의 부흥과 일본배척을 주장하였다.¹⁶⁾ 이러한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블라디보스톡과 니콜리스크로서 블라디보스톡은 韓人新報社와 居留民會, 니콜리스크는 한족중앙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었다.¹⁷⁾ 당초 연해주 지

15) 姜德相, 《現代史資料》 26, 174쪽.

16) 위와 같음.

17) 위와 같음.

역 독립선언계획은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의 독립선언회의 결과를 기다려 만주와 조선으로 연락하여 그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3월 7일 서울의 <독립선언서>가 간도지역에 도착하여 당초 조선과 동시에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을 전개할 계획에는 차질이 오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갑자기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¹⁸⁾

가. 블라디보스톡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해주 지역 동포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 청년회석상에서 金河球가 이를 설명하고, 재지 친일파인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고, 신한촌에 조선이 독립했다는 벽보가 붙었으며, 3월 10일 쫓기한다는 소문에 일제는 경계를 강화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3월 15일에 있을 시내 만세시위에 쓸 태극기를 준비중이며, 독립만세를 절규하는 시위계획을 위하여 前 민회장 金秉治이 대로상에서 시위운동에 관해 열렬한 연설을 했다.

1919년 3월 13일 간도 용정촌에서 대규모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시가행진을 전개하다 중국 관헌의 총격으로 1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일어났다.¹⁹⁾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원래 3월 15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을 만방에 선전하는 한편, 자동차 20여 대에 부녀자를 싣고 이를 선두로 하여 시중을 행진하는 등 일대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준비를 진행해왔다. 14일 각 집에 태극기를 배부하면서 5루불씩을 거두었으며,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학생, 그밖의 청년 1,000명을 간도로 보내 그곳 청년단 8,000~9,000명과 회합하여 국내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²⁰⁾ 니콜리스크에서는 각 지방대표자를 소집하여 국민의회를 조직하고 있었다.²¹⁾

18) <間島方面 韓族獨立運動에 關한 經過의 概要>, 朝鮮軍參謀長, 朝特報3(1919년 3월 14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62쪽.

19) <獨立運動에 關한 件>(國外第一報), 朝憲期 제140호(1919년 3월 15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69쪽.

20) 위와 같음.

21) <獨立運動에 關한 件>(國外第一報), 朝憲期 제140호(1919년 3월 15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70쪽.

블라디보스톡에서 3월 15일 거행하려던 독립 시위운동은 러시아문과 영문 선언서 작성이 지연되고, 이곳이 계엄령 시행지역으로서 운동전제시 엄중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위구심이 있었고 또한 최근 러시아 관헌으로부터 新韓村 民會의 폐쇄명령을 받았고, 러시아 요새 사령관에 시위운동과 각국 영사관에 선언서를 배부할 것을 출원한 것에 대해 집회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국교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엄금할 것이라는 반응으로 인해 15일 실행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니콜리스크와 같이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²²⁾

니콜리스크 韓民會長 文昌範은 이번의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전부터 부지런히 활동하여 20만 루블을 모았다. 돈을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열심이며 가난한 자들도 기부하지 않는 자가 없어 거의 전 조선인들이 이에 호응하는 상황이었다.²³⁾

3월 17일 오후 4시 조선인 2명이 블라디보스톡 일본 총영사관에 露文과 한글로 된 선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서와 함께 전달하였다.

이 대한국민의회 선언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3월 17일 오전 니콜리스크, 오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표된 것이며, 〈조선독립선언서〉라는 제목과 조선(대한)국민의회 회장 문창범, 부회장 金喆訓, 서기 吳昌煥 등의 명의로 되어 있고, 당일 일본 및 각국 영사관과 러시아 관청에 전달된 선언서였다. 한글·중문·러시아문 3종으로 되어 선언서 끝 부분에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에서”로 발표장소가 명기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3월 17일 블라디보스톡 또는 그 후에 노령 각지와 훈춘지역 등 중국지역에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것으로 일본어(번역)·국한문·순한글의 3종이 있고, 끝에 5개항의 결의안이 붙어 있다. 전자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한국 독립승인의 최후통첩을 발하는 형식이며, 후자는 이에 대한 회답이 없을 경우 영구

22) 〈獨立運動에 關한 件〉(國外第一報), 朝憲期 제140호(1919년 3월 15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73쪽.

23) 〈支那雜件〉(琿春機關의 報告), 朝鮮軍參謀部 諜報 제19호(1919년 3월 18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90쪽.

적 대일혈전을 선언하는 것이다.²⁴⁾

3월 17일 오후 5시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는 집집마다 일제히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이날 국민의회 회장 문창범은 니콜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곧 운동에 착수하여 11개국의 영사관과 러시아 관청에 선언서를 배포하고, 오후 6시부터 학생 등은 수 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시중을 누비고 다녔다.²⁵⁾

계엄령하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총영사관은 러시아 요새사령관과 연해주 장관에게 이의 단속을 요구하였다. 오후 7시, 러시아 관헌은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금지하고 학생 2명을 구인하였다고, 신한촌 각 집에 걸린 태극기를 모두 끌어내리게 했다. 이튿날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두 휴업을 하고 신한촌에 모였다.²⁶⁾

나. 니콜리스크

1919년 2월 20일 니콜리스크 한족중앙총회 및 조선인민회의 간부와 기타 조선인들이 광무황제 추도회를 집행하였다. 이 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망국의 설움이 크게 복받쳐 회의장은 곡성이 가득하였다. 이 追悼會는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²⁷⁾

3월 10일 경부터 니콜리스크로 각 지방의 한인들이 모여 들었다.²⁸⁾ 14일 니콜리스크 한족중앙총회 회장 문창범은 오키츠크(Okhotsk) 지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하였다.

조선이 머지 않은 장래에 독립을 얻는다는 것은 말하기 곤란하나 조선국민의회는 이의 부흥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평화회의에는 대표자

24) 반병률, <노령에서의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477~478쪽.

25) <獨立運動에 關한 件> (國外第五報), 朝憲機 제148호(1919년 3월 19일)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3·1운동편 其3, 1979), 98쪽.

26) <獨立運動에 關한 件> (國外第五報), 朝憲機 제148호(1919년 3월 19일)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3·1운동편 其3, 1979), 98쪽.

27) 위와 같음.

28) 朝鮮軍參謀部, <露國雜件> (1919년 3월 21일)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3·1운동편 其3, 1979), 111쪽.

2명을 파견하였다. 기부금은 조선국민의회 앞으로 송부하라(朝鮮軍參謀部, 〈露國雜件〉(1919년 3월 21일)),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111쪽).

이를 통해 보면 조선독립을 성취할 주·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러 가지 독립을 쟁취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니콜리스크에서는 3월 17일 아침 선언서를 발표하고 다수의 조선인이 모여 운동을 개시하였다. 그 중 일부 약 100명은 라즈돌노예(Razdoloye)에 도착하여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3월 21일 라즈돌노예에서 약 300명이 집합하여 일본군대를 습격한다는 소문이 있어 러시아 민병이 이들을 해산시켰다.²⁹⁾

블라디보스톡에서는 3월 18일 이후에는 조용하였으나, 니콜리스크에서는 14일 옴스크(Omsk)정부의 명령으로 국민의회를 해산시켰고, 18일 경 그곳 한인 중진들이 러시아 당국의 검거를 피해 일시 피신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창범·김철훈 등은 18일 니콜리스크에 돌아와 있었고, 洪範圖 등 의병 출신자들은 국민의회의 명령이라 하여 독립운동의 준비로 분주했다. 이들은 간도방면에서 온 지도자들과 함께 포시에트 지방에서 비밀리에 무기구입에 노력하고 있었다.³⁰⁾

다. 라즈돌노예

3월 21일 라즈돌노예에서 약 300명의 한인들이 집합하여 일본군대를 습격하려고 했는데, 일본군 분견대는 러시아 위수사령관에게 해산을 요청하여 러시아 민병을 동원하여 해산시켰다.

27일 하바로프스크 청년회장 吳成默은 韓人決死隊를 조직하려고 노력 중 3월 27일 라즈돌노예로 와서 한족회 사무실에서 30여 명의 청년들을 소집하여 결사대 가입을 권유하고, 스스로 全露靑年決死隊 대장이 되어 애국의 赤誠을 발휘할 결심을 밝히자 이에 감동한 청년 약 400명이 결사대에 가입하게 되었다.³¹⁾

29) 〈在外鮮人の 獨立運動概況〉, 驛密제968호(1919년 4월 26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358쪽.

30) 위와 같음.

31) 〈獨立運動에 關한 件〉, 驛密제1473호(1919년 5월 3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

라. 녹도

鹿島는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삼각주에 생긴 동리인데, 블라디보스톡의 인사들이 녹도지방으로 와서 4월 7일을 기하여 시위운동을 거행하기로 결정하고 4월 6일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각 부락 유력자 및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선언서를 배부하였다.

4월 7일 녹도지방 주민들은 태극기를 게양하고 크게 기세를 떨쳤다.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만세를 불렀다. 오후부터는 노령 및 중국령 각 지역에서 학생 등이 집합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중국령 防川洞 서당교사는 약 30명의 학생들을 지휘하여 나팔을 불고 만세를 고창하면서 집합시키고 시위를 벌였다. 오후 3시경에는 녹도 부근 고지에서 약 1,000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고 해산하였다.³²⁾ 4월 9일 九沙坪 거주 한인 유력자 李甲長의 환갑잔치에 근교에서 약 200여 명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여 마치 독립잔치같이 되었다.³³⁾

마. 스파크

스파스크(Spask)에서는 3월 18일 약 500명의 한인들이 모여 선언서를 배부하고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일본군은 러시아 관헌을 원조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조선인 수 명이 이 과정에서 부상하였다.³⁴⁾

(5) 국내진공 계획과 노인동맹단의 독립운동

가. 국내진공작전

국내에서 3·1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은 재러동포들에게 오래 기다리던 고국의 독립쟁취의 일대 기회가 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무장독립투쟁을 통한 국내진공을 위하여 군자금의 모금과 더

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474쪽.

32) 〈獨立運動에 關한 件〉, 騷密제848호(1919년 4월 25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341쪽.

33) 위와 같음.

34) 〈獨立運動에 關한 件〉(國外第五報), 朝憲機제148호(1919년 3월 19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98쪽.

불어, 훈춘에서는 두만강을 건너기 위한 목선 3척이 건조되고 1,000명의 무장병력이 조직되었다.³⁵⁾ 니콜리스크에서도 柳東說·曹成煥·朴殷植·申采浩·金夏錫 등이 집합하여 독립운동에 관한 회의를 열어 여러 곳에 연락하여 대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일본과 무력으로 결전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맹렬히 동지의 규합에 노력하였다.³⁶⁾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노령의 이동휘·이범윤과 삼차구의 秦學新 등이 훈춘현 탐도구를 방문하여 대한국민의회 지부를 설치하고 국내진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① 국내진공계획은 프랑스 파견 대표들의 전보를 기다려 만약 강화회의에서 한족독립운동이 일부 조선인들의 망동이라고 하고 돌보지 않는 경우에 곧 결행할 것.
- ② 이 행동은 집정관인 이동휘의 명령에 의해 각 방면 동시에 결행할 것.
- ③ 조선 국내동지들과 연락하여 일본측 밀정 등을 암살할 것.
- ④ 운동원 및 대원 모집에 노력할 것(〈獨立運動에 關한 件〉, 騷密제1473호(1919년 5월 3일),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475쪽).

그 후 이동휘는 연추방면 칸나이와에 귀환하여 그곳에 국민의회 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³⁷⁾

4월 28일 밤 崔才亨·吳昌煥·金學萬이 嚴仁燮의 집에 모였을 때 장정의 수는 3,000명에 이르렀고, 독립군 자금모금액도 30만 루블에 달하였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3·1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기를 갖지 않은 군중의 폭동에 불과하여 외국이 이를 단순히 국내 擾亂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파리평화회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는 독립부흥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길이 멀다. 따라서 무기를 가지고 일본에 對戰하여 열국으로부터 한 交戰團體로 승인될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었다.³⁸⁾

35) 〈獨立運動에 關한 件〉, 騷密제551호(1919년 4월 20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306~307쪽.

36) 〈獨立運動에 關한 件〉, 騷密제673호(1919년 4월 22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 其3, 1979), 317쪽.

37) 위와 같음.

나. 노인동맹단

한편 3월 26일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老人同盟團의 발단식이 있었다. 金致寶의 집에서 조직된 이 노인동맹단은 한국독립을 목적으로 재외한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두 결속하려는 데 있었다.³⁹⁾ 이들은 이날 밤 김치보 집에서 창단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역원을 선출하였다.⁴⁰⁾

단장 金致寶, 총무 金舜若, 의장 李逸, 의원 李崙·朴熙平·韓承羽·李得萬·尹余玉·周干漸·姜錫基·徐相矩·鄭致允·李逸·朴大同(11명), 서기 徐相矩.

이 당시 약 320여 명을 단원으로 모집하였는데, 계속해서 왕성하게 단원을 모집 중이며,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자들이 더 열심이어서 지방으로까지 다니며 단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노인동맹단은 대표자 6명을 조선총독부에 파견할 것과 결사대를 모집하여 국내로 들여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이 밖에 단원 150명을 국내로 파견하여 3·1운동을 확산할 계획도 하였다.⁴¹⁾ 이 노인동맹단은 점차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노인동맹단은 傳團委員을 두어 이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단원모집에 힘썼다. 전단위원들은 발기인을 7인으로 하고, 임회금도 7루불씩 하였으며, 연령도 46세 이상 70세까지로 하여 총 7,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려 하였다.⁴²⁾

5월 5일 노인동맹단은 李承喬 등 대표 7명을 선정하여 국내로 파견하였다.⁴³⁾ 이들 대표들은 일본에 보내는 문서 2통과 취지서 수백 매, 여비 1만 루블을 지참하고 출발, 5월 31일 서울에 도착하여⁴⁴⁾ 그날 오전 11시 경 종로

38) 〈獨立運動에 關한 件〉, 騷密제2042호(1919년 5월 14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3·1운동편 其3, 1979), 490쪽.

39) 위와 같음.

40) 在浦潮斯德總領事 菊池義郎, 〈鮮人の 行動에 關한 件, 1919년 4월 1일〉(《東西比利亞》 7), 59~60쪽.

41) 在浦潮斯德總領事 菊池義郎, 〈鮮人の 行動에 關한 件, 1919년 4월 1일〉(《東西比利亞》 7), 59~62쪽.

42) 〈獨立運動에 關한 件〉, 騷密 제209호(1919년 4월 17일)(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 3·1운동편 其3, 1979), 280쪽.

43) 姜德相, 《現代史資料》 26, 121~122쪽.

4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9, 348쪽.

보신각 앞에서 민중들에게 연설을 한 후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이때 李發은 “義로써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며 칼로 스스로 목을 찔렀으나 일경이 그를 대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이승교와 정치운은 너무 노쇠하여 露頤로 추방당하였으며,⁴⁵⁾ 안태순은 징역 1년, 윤여옥은 징역 10월, 차대유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⁴⁶⁾

6월 25일 노인동맹단은 姜文伯·延秉佑를 대표로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보내 〈在露領大韓國民老人同盟團謹瀝血禱衷干〉이라는 독립요구서를 제출하였다.⁴⁷⁾ 1918년 8월 노인동맹단은 다시 강우규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강우규는 7월 8일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원산에서 약 1개월 체류하다가 8월 8~9일 경 서울로 들어와 9월 2일 서울역 앞에서 신임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⁴⁸⁾

3) 미주

1919년 3월 9일 샌프란시스코의 안창호는 상해 현순 목사로부터 3·1운동의 제1보를 들었다. 그는 이승만·정한경, 대한국민회 각 지방회와 서재필 등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영자신문에도 전보 복사문을 돌렸다.

오후 7시 30분 대한국민회중앙총회가 한인교회에서 열리자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정한경을 파리 평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할 것, 미국 각 교계와 단체에 교섭하여 대한독립에 대한 동정을 얻을 것 등을 결정하였다. 하와이 국민회에서도 현순 목사로부터 독립운동의 발발소식을 전해받고 한인교회에 600명이 모여 감격의 만세를 불렀다. 3월 13일 안창호는 대한국민회 중앙총회 석상에서 첫째 피를 흘릴 각오를 할 것, 둘째 미주 한인의 책임은 미국 여론을 일으키는 것임, 셋째 미주 한인의 최대 책

45)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하, 53쪽.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제1권 分冊(原書房, 1967), 116~117쪽.

4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252~253쪽.

47) 姜德相, 《現代史資料》 26, 222쪽.

48) 金正明, 앞의 책, 115쪽.

임은 재정공급에 있으므로 수입의 1/20 이상 납부하도록 할 것 등을 선포하였다. 김정진은 63일에 걸쳐 서부 10개 주를 순방하며 63개 지방 동포 327명으로부터 의연금 1만 달러 이상을 모았고, 5월 26일까지 중앙총회는 3만 388달러 25센트를 모았다. 당시 한인들의 하루 임금이 3달러밖에 되지 않던 때였다. 주간으로 발간하던 《신한민보》는 3월 20일부터 격일간으로 발간하며 고국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4월 14일부터 16일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시내 리틀극장에서는 자유한인 대회가 열렸다. 약 150여 명의 한인과 미국인 목사, 신부, 유대교 랍비, 대학 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서재필이 의장을 맡아 한민족의 독립 의지와 일제의 억압과 착취의 실상을 알리며, 한국독립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환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충성을 선언하며, 각국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서재필은 그 동안 한국민족에 대해 실망을 갖고 있었으나, 3·1운동의 발발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주관하에 한국통신부(Korea Information Bureau)를 조직하여 미국사회에 한국 실정을 알리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는 우선 각종 선전 자료로서 《한국평론(Korea Review)》·《필라델피아 대회 의사록》·《한국의 독립》·《한국의 어린 만세 순교자들》·《한국에서의 일본의 흉포》·《한국의 독립운동》 등을 간행하였다.

한편 1919년 여름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선교부에서 《한국의 사정(The Korean Situation)》이 발간되어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잔인한 탄압의 실상이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한 미국 기독교계의 관심을 환기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서재필은 또한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를 조직하여 다수의 미국 유지로 간부진과 이사진을 구성하여 한국의 실정을 미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기에 힘썼다. 이 친우회에서 각 지방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실정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게 하였으며, 각지에 지부를 결성하여 회원이 1만 명에 다다르게 되었다.

〈李廷銀〉

4. 3·1운동의 영향과 의의

1) 3·1운동에 대한 열강의 반응

(1) 중국

중국 신문들은 3·1운동이 발발하자 이 독립운동의 진전상황을 크게 보도하였다. 상해에서 발간되던 孫文 계통의 《國民日報》는 1919년 3월 12일부터 상해에서 5·4운동이 발발하던 5월 7일 하루 전까지 한국의 3·1운동 상황을 20회 이상 보도하였다. 북경의 영자신문 《북경데일리뉴스(Peking Daily News)》도 거의 매일같이 3·1운동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의 5·4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북경의 시사주간지 《每週評論》은 중국의 신문화운동의 기수인 陳獨秀와 李大釗가 편집인으로 있었는데 제13호와 제14호에 한국의 3·1운동에 대해 해설 기사를 싣고 중국 국민들이 반일제·반매국노 투쟁에 쫓겨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런 언론의 보도는 북경 대학생들에게 깊은 자극을 주었다. 북경 대학생들의 잡지 《新潮》도 1919년 4월 1일자에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2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3·1운동을 본받아 중국 국민들도 쫓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잡지에 기고하였고 후에 5·4운동의 학생대표로 활동했던 傅斯年은 〈한국독립운동중의 신교훈〉이란 글에서 3·1운동은 정신면에서 “혁명계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하였다. 북경대학 학생구국회의 월간잡지 《國民》, 1919년 4월호에도 한국의 3·1운동을 특집으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북경대학 구국학생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월 2일 《국민》 편집실에서 5·4운동을 위한 시위운동을 결의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상해에서도 5월 7일 중국의 국치기념일에 약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약 30명의 한인청년독립단 청년들이 참가하여 반일문서를 돌리며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2) 미국

미국 정부는 한국민족과 한국의 독립운동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3·1운동은 미국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3월 20일부터 한국의 독립운동과 인권상황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합통신(UP)은 1919년 3월부터 1920년 12월 15일 사이에 한국에 관한 기사를 9,000회나 다루었다. 이 중 일본에 유리한 기사는 50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여론은 일본의 잔인성과 만주침략까지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서재필은 자유한인대회와 한국친우회를 조직하여 미국 사회에 한국에 대한 동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에 힘썼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 의회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6월 30일 미조리(Missouri)州 세인트루이스(St. Louis)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펜서(Spencer)는 국무장관에게 1882년의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이행 필요성을 외교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1919년 7월 15일 국제연맹 비준문제를 다루던 상원에서 포인텍스터(Pointexter) 의원은 국제연맹이 표방하는 이상주의에 반하는 예로써 한국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지배 아래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잔인성과 폭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키며 월슨 대통령의 현장의 무의미함을 지적하였다. 네브라스카 출신의 노리스(Norris) 의원은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관한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당국의 잔혹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였다.

《뉴욕타임즈》는 7월 13일자에 최소한 30명이 학살된 제암리 사건을 보도하였다. 4월 중순 한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미국에 온 암스트롱(A. E. Armstrong) 목사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 서기 아더 제이 브라운(Arther J. Brown), 미국 감리교 복음교회 선교부 서기 프랭크 메이슨 노드(Frank Mason North), 미국성서회 서기 윌리엄 제이 헤븐(William J. Heven) 박사들을 만났다. 그리하여 4월 16일 교회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위원회는 한국으로부터 30명 이상의 믿을 만한 선교사, 외국인들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잔학행위에 대한 보고서로 《한일사태(The Japan-Korea Situation)》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체제, 한국 독립운동의 기원, 한국인의 항

거와 경찰의 포악 등과 함께 34개의 일제 잔학상을 폭로하였다.

이후 미국 의회내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동정적인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미 행정부에 준 영향은 별로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제연맹 비준에 대한 반대자료로 한국의 상황을 활용하였다.¹⁾

(3) 영국

영국은 동경 주재 영국대사관으로부터 4월 24일 공식적으로 3·1운동에 대해 보고를 받자 식민주의의 본산답게 자국과 그 식민지 출신의 거류민 보호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이나 동정을 표하지 않았다. 해외의 한국인들이 영국에 대해 4월에 조직된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자 “한국은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반란은 일본 국내문제로서 의심할 나위 없이 쉽사리 진압될 것이다”고 하며 무시하였다. 또한 영국은 한국사태를 구실로 일본이 만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표출시킬 것을 우려하여 북경주재 영국공사 존 죠단(John Jordan)에게 만주에서 활동중인 한국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서울 주재 영국 대리총영사 윌리엄 엠 로이즈(William M. Royds)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시위운동의 진압방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호의를 보였다. 그는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이 자치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 동경 주재 대리대사 비일비 엘스톤(Beilby Alston)도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들은 영국 외무성의 정책을 바꾸게 하지는 못했다. 영국은 영일동맹관계를 더 중시하여 한국사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발은 세계 문명국가의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영국은 다만 한반도에서 일본의 극단적인 가혹성을 완화하여 일본의 지배권을 약화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머물러 있었다. 영국은 이

1) 손보기, <3·1계례싸움과 미국의 반향> (《한민족독립운동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89).

집트나 인도에서와 같이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문제의 해결로 보았다. 1918년 8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부임하자 외무성 관리들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²⁾

2)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1)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가. 자주독립의 민족정신

3·1운동은 일본의 한국지배체제가 총독부 헌병경찰체제의 확립, 토지조사사업의 완성, 전면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 및 面里체제 확립,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의 일본의 위상강화, 제1차 세계대전의 특수 경기에 힘입은 일본 자본주의의 완성 등으로 가장 강고한 체제가 구축·기능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다. 그에 비하여 우리 독립운동은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기지 개척 및 독립전쟁 준비라는 큰 방향의 전략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破綻되고, 무력화된 속에서 독립운동지도자는 해외로 망명하여 대중과 십년 이상 분리되어 있었다.

국내에는 3·1운동 발발 당시, 헌병경찰체제하에서 학교와 종교단체 이외의 모든 사회단체와 조직이 해체되어 조직적 역량이 미약하였다.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전 민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3·1운동은 그 자체가 오랜 독립국가의 역사와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바탕이 된 독립정신과 불굴의 민족정신의 표상이다. 실제로 3·1운동에 참여하고 일본 재판정에 섰던 수많은 무명의 지사들은 “4천년 문화국민이 어떻게 일본의 노예로 살 수 있는가”하며 당당하게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밝혔다. 한국인의 독립정신은 3·1운동으로 응축되어 이후의 독립운동이 모두 여기에서 영감과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한말 이래 일부 세력들이 근대화를 위해서라면 외세에

2) 구대열, <3·1운동에 대한 해외의 반응>(<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존적 사고의 청산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다.

나. 새로운 세계관의 제창

3·1운동은 약육강식의 19세기식 세계질서 속에서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과 평화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이해관계로 갈등하는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상과 도덕성을 가진 선언이었다. 또한 맨손으로 일제의 총칼에 맞서 싸웠던 한민족의 용기와 내면의 힘은 힘의 논리에 질식당하고 있는 세계에 던진 다윗의 돌이었다. 3·1운동이 힘의 논리와 압제와 폭력의 세상을 향해 던진 그 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질서와 세계관과 신문명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 근대적 국민의 탄생

한국의 민중은 3·1운동을 통하여 전근대적 臣民으로부터 근대적 국민국가의 國民으로 거듭났다. 3·1운동은 남녀노소, 직업의 귀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 민족, 전 지역이 참여한 전무후무한 독립운동이었다. 국가의 운명에 책임을 느끼고 행동에 나서는 근대적 시민상이 3·1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3·1운동을 통하여 그 자격을 스스로 획득하였고 3·1운동에 의하여 완성(정립)되었다. 전세계가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오늘에 있어 3·1운동과 같이 종교의 차이를 넘어 민족과 자유와 정의 인도의 이름 앞에 하나로 힘을 합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현대 국가 국민, 근대적 시민사회의 국민정신 또는 시민정신으로서 고귀한 성취였다.

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3·1운동의 과정에서, 그리고 3·1운동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서울·노령·상해 등지에서 세워진 임시정부들은 1919년 9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과 대두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세운다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역사상 최초 입법·사법·

행정의 3권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체제가 수립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해방운동의 총본부로서,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열강의 냉대, 일제의 방해와 탄압, 민족세력의 분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해방의 그날까지 27년간 내정·외교·군사·문화 등 각 방면에서 정부의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마. 독립운동의 비약적 강화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해 가는 영감과 용기의 원천이자 독립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3·1운동 이후 만주와 노령 연해주에서는 40여 개의 독립군 단체들이 편성되어 수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며 국내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참여하였다.

바. 민족공동체의 지향

3·1운동은 일종의 민권운동이기도 했다. 이 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확산됨으로써 민중은 운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을 높여 갔으며, 이후 3·1운동으로 열어 놓은, 비록 제한된 자유의 공간 속에서나마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형평운동·어린이운동·여성운동 등 근대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한편에서는 일제에 대한 전방위 ‘민족총력투쟁’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3·1운동으로 고취된 의식과 고양된 민권평등사상으로 농민·노동자·천민·여성·어린이 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족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사. 무단지배체제의 후퇴

일제는 3·1운동으로 인해 10년간 지속해 왔던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정치의 내용은 서정쇄신, 조선인 관리의 임용, 민족차별 철폐,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보장을 통한 민의 창달, 교육·산업·경찰 등 사회제도 개선, 총독권한 축소, 헌병경찰제 폐지와 보통경찰

제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격앙된 민족감정을 진정시키고 한국인 내부를 계급적으로 분단하여 분할지배하고자 하는 계교가 숨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 민족은 최소한의 민족적 활동공간으로서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확보하여 민족보존을 위한 민족문화운동과 민족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2)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교전국들은 상대국 식민지의 민족감정에 불을 붙여 배후를 교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독일이 아일랜드를, 영국이 아랍 제 민족의 독립을 후원한 것이 그것이다. 그 결과 패전국의 지배하에 있던 약소국의 독립은 일부 성취되었다. 그러나 인도·이집트·필리핀·월남 등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승전국 지배하의 피압박 민족들은 더욱 위축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 한국의 비무장 민중에 의한 3·1운동은 세계 피압박 민족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용기를 주어 이후 중국의 5·4운동, 인도와 이집트·인도차이나·필리핀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각성과 영향을 주었다.

특히 3·1운동은 세계혁명운동사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그것은 맨손의 민중들이 민족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약소국의 독립운동에서 행해온 직업적인 혁명가나 무장세력의 투쟁은 민중을 동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3·1운동은 거대한 민중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평화적인 민족사회운동의 한 전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1919년 4월 5일부터 시작된 인도 간디(Mohandas Karamach and Gandhi)의 새트야그라하(Satyagraha-진리수호)와 아힘사(Ahimsa-비폭력, 사랑)에 의한 대영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 1960년대 미국의 마틴 루터 킹(Martin Luter King Jr.) 목사에 의한 민권운동 등에서 다시 그 힘이 확인되었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 가운데 첫 봉화였고, 정의와 인도, 인류평화의 새로운 세계상을 그리며 용감하게 나아간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찾아보기

[ㄱ]

- 간도거류조선민족 壘島居留朝鮮民族 381
- 간도공산당사건 壘島共產黨事件 289
- 간도파출소 壘島派出所 380
- 〈간도협약〉 〈間島協約〉 181, 183
- 간민교육회 壘民教育會 9, 182, 188, 380
- 간민회 壘民會 9, 186, 191, 231, 380
- 간접선거제 間接選舉制 119
- 간접통치방식 間接統治方式 104
- 갑오개혁 甲午改革 62
- 강기덕 康基德 15, 324, 326, 333, 338
- 강기동 姜基東 137
- 강명환 姜明煥 154, 155
- 강문백 姜文伯 403
- 강병수 姜秉洙 140
- 강석봉 姜錫奉 169, 170, 172
- 강소천 姜小泉 294
- 강순필 姜順必 140
- 강영대 姜永大 244
- 강영소 姜永韶 239, 263
- 강우규 姜宇奎 403
- 강원섭 姜原燮 146
- 강유원간친회 講遊園懇親會 149
- 강유위 康有爲 189, 233, 304
- 강일수 姜一秀 195
- 강제회 康濟義 372
- 강종찬 姜宗燦 318
- 강창준 姜昌俊 326
- 개량주의자 改良主義者 106
- 개량화정책 改良化政策 106
- 개천절 開天節 219
- 개항장 開港場 86
- 개화파 開化派 309
- 갱부 坑夫 143
- 거류민회 居留民會 395
- 걸인독립단 乞人獨立團 359
- 결맹형제회 結盟兄弟會 273
- 〈결사단원맹서서〉 〈決死團員盟誓書〉 358
- 〈결의문〉 〈決議文〉 276
- 《경고 아이천만동포》 《警告 我二千萬同胞》 338
- 경곡상점 京谷商店 90
- 경도조선유학생친목회 京都朝鮮留學生親睦會 273
- 경무부장 警務部長 119
- 경무총감 警務總監 2, 23, 40, 115
- 경무총감부 警務總監部 2, 26, 39, 44, 119, 265
- 경무총장 警務總長 37, 38, 40, 42, 134
- 경부 警部 43
- 경부선 京釜線 94, 95
- 경선궁 慶善宮 65
- 경성고보 京城高普 177
- 경성 시내전차 京城市內電車 93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336
- 경성의학전문학교 京城醫學專門學校 273
- 《경성일보》 《京城日報》 128
- 경성전기주식회사 京城電氣株式會社 91
- 경성전문학교 京城專修學校 273
- 경성철도국 京城鐵道局 93
- 경시 警視 43
- 경시총감 警視總監 286
- 경원선 京元線 94, 95

- 경의선 京義線 94, 95
 경인선 京仁線 94
 경제사상운동 經濟思想運動 152
 경질제도업 硬質製陶業 89
 경학사 耕學社 10, 193, 308, 380, 387
 경학원 經學院 36
 계몽운동 啓蒙運動 6, 128, 133, 134
 계몽주의 啓蒙主義 154
 계봉우 桂奉瑀 187, 204
 계활 桂活 385
 고등경찰 高等警察 39, 44, 127
 고등관 高等官 38
 고려공산청년회 高麗共產青年會 290, 291, 293
 고려족중앙총회 高麗族中央總會 208~210, 212
 고리대(자본) 高利貸(資本) 70, 81, 82, 86
 고명철 高明哲 375
 고문경찰제 顧問警察制 39
 고본단 股本團 203
 고석주 高錫柱 240
 고창일 高昌一 214, 394
 고하광업합명회사 古河鑛業合名會社 77
 고한노동 膏汗勞動 92
 곡물수출 穀物輸出 98
 곡물시장 穀物市場 99
 공공조계 公共租界 217
 공교회 孔敎會 189, 190
 공동회 共同會 246
 공립관 公立館 242
 공립보통학교 公立普通學校 360
 공립협회 公立協會 11, 239, 242~245
 공업교(전)습소 工業敎(傳)習所 26, 86
 공유림 公有林 74
 공제회 共濟會 243
 공진회 共進會 240, 241
 공출제도 供出制度 69
 공화정치 共和政治 179
 공화주의 共和主義 178, 235, 236
 과자제조업 菓子製造業 90
 광중석 郭鍾錫 324, 390
 광한일 郭漢一 138
 관동대지진 關東大地震 269, 270, 285, 298
 관동대학살 關東大虐殺 289
 관립고등여학교 官立高等女學校 26
 관립고등학교 官立高等學校 26
 관립사범학교 官立師範學校 26
 관립실업학교 官立實業學校 26
 관립외국어학교 官立外國語學校 26
 관비유학생 官費留學生 268
 관세제도 關稅制度 98
 관영공장 官營工場 92
 광복단 光復團 381
 광복청년연성소 光復靑年練成所 155
 광복회 光復會 175
 광산권 鑛山權 77
 광산노동자 鑛山勞動者 92, 93
 광산업 鑛產業 59
 광산자본 鑛山資本 88
 광상조사 鑛床調査 77
 광성학교 光成學校 187, 380
 광업 鑛業 85, 95, 132
 〈광업법〉 〈鑛業法〉 76, 77
 광업세 鑛業稅 77
 광의단 光義團 211
 광혜원 廣惠院 349
 교원양성소 敎員養成所 152
 〈교육령〉 〈敎育令〉 272
 교전단체 交戰團體 401
 교회당 敎會堂 371
 구국계몽운동 救國啓蒙運動 133, 147
 구여순 具汝淳 358
 구원광업주식회사 久原鑛業株式會社 78, 77
 구자익 具子益 385
 구중곤 具鍾坤 254
 구중회 具中會 358
 구춘선 具春善 384, 385
 국경수비대 國境守備隊 134

- 국권회복단 國權回復團 148, 152, 162, 163, 176
- 국권회복운동 國權回復運動 129, 135, 141, 145, 147, 168, 169, 177, 241, 249
- 국내진공작전 國內進攻作戰 302, 410
- 《국민》 《國民》 405
- 국민국가 國民國家 259
- 국민군단 國民軍團 170, 255
- 국민단합회 國民團合會 240
- 〈국민대회청원서〉 〈國民大會請願書〉 317
- 국민동맹회 國民同盟會 240, 244
- 《국민보》 《國民報》 12, 153, 170, 173, 226
- 《국민일보》 《國民日報》 405
-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國民精神 總動員 朝鮮聯盟 121
- 국민총력 조선연맹 國民總力 朝鮮聯盟 121
- 국민회 國民會 196, 200, 205, 206, 243, 245, 246, 250, 256~258, 260
- 국민회 중앙총회 國民會 中央總會 257
- 《국민회보》 《國民會報》 338, 340
- 〈국민회장정〉 〈國民會章程〉 257
- 국유림 國有林 75, 131
- 국제평화주의 國際平和主義 235
- 국치기념일 國恥紀念日 219
- 군국주의 軍國主義 101
- 군대(사)통솔권 軍隊(事)統率權 34, 35, 50
- 군대해산 軍隊解散 9, 137
- 〈군대해산령〉 〈軍隊解散令〉 240
- 《군무요령》 《軍務要領》 250
- 군벌세력 軍閥勢力 101
- 군법체조 軍法體操 250
- 군부통수권 軍部統帥權 33
- 군수공업화 軍需工業化 108
- 군령권 軍令權 114
- 《군인수지》 《軍人須知》 255
- 군인양성소 軍人養成所 253
- 군인양성운동 軍人養成運動 247, 249~251, 254
- 군자금 軍資金 143, 165, 178, 180
- 군정조직 軍政組織 30
- 군통수권 軍統帥權 113, 114, 115, 126
- 군항부 軍港部 3, 50
- 권동진 權東鎭 320, 326, 332
- 권병덕 權秉惠 326
- 권업모범장 勸業模範場 26, 68, 69
- 〈권업모범장관제〉 〈勸業模範場官制〉 68
- 《권업신문》 《勸業新聞》 191, 202~205
- 권업회 勸業會 11, 191, 201~206, 208, 231, 307, 392
- 권영만 權寧萬 163
- 권영목 權寧睦 156
- 권영직 權寧直 142
- 권진원 權鎭遠 139
- 권태정 權泰鼎 137
- 근대공업 近代工業 86
- 근대교육 近代教育 129
- 근대적 사법제도 近代的 司法制度 115
- 근대화론 近代化論 63
- 근업회 勸業會 200, 207
- 근우회 槿友會 296
- 근화동락회 槿華同樂會 12
- 금릉대학 金陵大學 220
- 금속공업 金屬工業 90
- 금융기관 金融機關 86
- 금융조합 金融組合 71, 81, 82
- 〈금융조합규칙〉 〈金融組合規則〉 81
- 금융조합연합회 金融組合聯合會 81
- 금은선광장 金銀選鑛場 77
- 기결심판권 既決審判權 45
- 기독교 基督教 178, 180, 181, 187, 324, 331, 333, 339, 350, 351, 357, 364, 366, 367, 371, 373, 376, 384, 387, 389
- 기독교청년회 基督同志青年會 381
- 기생독립단 妓生獨立團 359
- 기성불단 145, 146, 147
- 기술교육 技術教育 109

기전학교 紀全學校	177	김성권 金聲權	239, 247
긴급직령 緊急勅令	117	김성무 金成武	196, 205, 211, 241, 244, 258
길선주 吉善宙	313, 321, 326, 333	김성문 金性文	139
길신여학교 吉新女學校	187	김성수 金成洙	153, 275
길회부설권 吉會敷設權	181	김성옥 金成玉	240
김강년 金康年	142	김세근 金世根	254
김경태 金敬泰	163	김세환 金世煥	326, 322
김경희 金敬熙	157	김순애 金淳愛	236, 313, 314
김교헌 金敎獻	314	김시학 金時學	308
김규섭 金圭燮	239	알렉산드라 山드라	211~214
김규식 金奎植	11, 13, 216, 223~225, 231, 234, 235, 236, 313, 314	김야곱 214	
김기옥 金基玉	244	김약수 金若水	284
김낙문 金洛文	141~143	김약연 金躍淵	9, 186, 394
김달호 金達鎬	280	김여식 金呂植	390
김도여 金道汝	208	김영운 金永胤	146
김도연 金度演	274, 275, 276, 278, 315, 316	김영조 金榮洮	325
김도태 金道泰	321	김와실리 200	
김동삼 金東三	192, 196, 314	김완규 金完圭	326
김동한 金東漢	385	김용덕 金容德	247
김두봉 金斗奉	153, 219	김용성 金容成	249
김립 金立	190, 191, 201, 209~212	김우영 金雨英	273
금마리아 273		김우제 金愚濟	242
김명식 金明植	273	김원벽 金元壁	15, 324~326, 333, 338
김문진 金文珍	325	김윤식 金允植	324
김미리사 金美理士	242	김윤정 金潤晶	239
금미하일 214		김윤진 金允珍	333
김백원 金百源	339	김응섭 金應燮	149, 150
김백평 金栢坪	326	김익성 金翊成	240
김병렬 金炳烈	140	김일 金熙 153	
김병우 金炳祐	144, 145	김정규 金貞奎	184, 386
김병조 金秉祚	321, 326, 333	김정규 金鼎奎	188
김병흡 金秉洽	233, 396	김정규 金正奎	290
김복 金復 235		김정호 金鼎浩	163
김상덕 金尙德	274, 275, 277, 278, 315	김제흙 金濟欽	141
김상오 金相五	140	김종범 金鍾範	284
김상옥 金相玉	166	김종진 金宗鎭	223
김석 金石 195		김종하 金宗河	372
김석구 金錫九	385	김좌진 金佐鎭	163, 164, 314
		김준연 金俊淵	274, 280, 282

김지환 金智煥 331
 김진효 金鎭孝 357
 김찬 金燦 290
 김창덕 金昌德 153
 김창숙 金昌淑 324
 김창연 金昌衍 160
 김창원 金昌元 213
 김창준 金昌俊 326, 331
 김창환 金昌煥 10, 193, 194
 김철 金澈 13, 227, 234, 236, 313
 김철수 金喆壽 274~276, 278
 김철훈 金哲勳 394
 김철훈 金喆訓 397
 김추은 金秋銀 358
 김치보 金致寶 402
 김택원 金鐸遠 325
 김태영 金泰泳 167
 김하구 金河球 210, 211, 396
 김하범 金河範 384
 김하석 金夏錫 394, 401
 김학만 金學萬 196, 201, 314, 401
 김학준 金學俊 137
 김한중 金漢鍾 163, 164, 166
 김현식 金憲植 247
 김현구 金鉉九 249
 김현묵 金賢默 384
 김형기 金炯璣 325
 김홍렬 金洪烈 331
 김희선 金義善 366

[ㄴ]

나용환 羅龍煥 326, 333
 나인협 羅仁協 326
 나창현 羅昌憲 325
 〈남경조약〉 〈南京條約〉 217
 남만주철도주식회사 南滿洲鐵道株式會社 95
 남북면업주식회사 南北綿業株式會社 90
 남양공학 南洋公學 220

남학구 南學九 379
 남한대토벌작전 南韓大討伐作戰 7, 128, 134, 136
 남형우 南亨祐 149, 152, 153
 내각총리대신 內閣總理大臣 33, 34
 내선융화 內鮮融和 6, 101, 107
 내선일체화 內鮮一體化 6, 101, 109
 내지연장주의 內地延長主義 6, 33, 101, 105
 네브라스카무관학교 Nebraska武官學校 146
 노동강습소 勞動講習所 196
 노동독립단 勞動獨立團 359
 노동자 파업 勞動者 罷業 93
 노동쟁의 勞動爭議 93, 107
 노백린 盧伯麟 163
 노병직 盧炳稷 137
 노선경 盧善敬 172
 노소동맹회 老少同盟會 240
 노어신문 露語新聞 395
 노인동맹단 老人同盟團 402
 노종환 盧宗煥 386
 노헌용 盧憲容 322, 326
 노훈 盧勳 254
 농공은행 農工銀行 80, 81
 〈농공은행령〉 〈農工銀行令〉 80
 〈농공은행조례〉 〈農工銀行條例〉 80
 농무계 農務契 189~191
 농촌진흥운동 農村振興運動 107
 니가타현조선인노동자학살사건 新潟縣朝鮮人勞動者虐殺事件 283

[ㄷ]

다물단 多勿團 195
 다보하시 기요시 田保橋潔 42
 단군교 檀君敎 151, 384, 385
 단일독립국가 單一獨立國家 111
 단천 자립단 端川 自立團 7, 154, 155, 174, 175, 177, 178

- 달성친목회 達城親睦會 148~150
- 대구고등보통학교 大邱高等普通學校 354
- 《대동공보》 《大東共報》 197, 199, 202
- 《대동공보》 《大同公報》 242
- 대동공진단 大同共進團 252, 253
- 대동교 大同敎 233, 305
- 대동교육회 大同教育會 242
- 〈대동단결선언〉 〈大同團結宣言〉 230~232, 263, 305
- 대동보국단 大同輔國團 227, 233
- 대동보국회 大同保國會 11, 242, 243, 247, 256, 258
- 대동사상 大同思想 304, 305
- 대동상점 大同商店 7, 156, 176
- 《대동신보》 《大東新報》 199, 202
- 대동협신회 大東協新會 187
- 대륙침략정책 大陸侵略政策 30, 66
- 대륙팽창주의 大陸膨脹主義 101
- 대만총독 臺灣總督 111
- 대만총독부 臺灣總督府 116
- 대성학교 大成學校 145, 146, 164
- 《대양보》 《大洋報》 200~202
- 대조선국민군단 大朝鮮國民軍團 Korean Military Corporation 254~256
-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 大朝鮮國民軍團士官學校 Korean Military Academy 254
- 대조선독립단 大朝鮮獨立團 314
-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 273
- 대종교 大宗教 8, 151, 166, 167, 178, 183, 231
- 《대진》 《大震》 187
- 대관고려무산청년동맹 大阪高麗無産靑年同盟 292
- 대한광복군정부 大韓光復軍政府 11, 204, 231, 307, 308, 392
- 대한광복회 大韓光復會 8, 136, 140, 161~167, 174, 176~178
- 대한국민의회 大韓國民議會 215, 386, 394, 395
- 대한국민회 大韓國民會 9, 173, 403
- 〈대한기본방침〉 〈對韓基本方針〉 25
- 대한독립군 大韓獨立軍 155
- 대한독립동맹 大韓獨立同盟 363
- 〈대한독립선언서〉 〈大韓獨立宣言書〉 306, 314, 360
- 《대한독립신문》 《大韓獨立新聞》 375
- 대한독립의군부 大韓獨立義軍府 7, 138, 141, 178
- 대한독립총단소 大韓獨立總團所 387
-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10, 16, 218, 236, 237, 263, 410
- 대한신민회 大韓新民會 243, 244
-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Korean National Association 207, 248, 252~256, 258~263, 277, 315
-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회 大韓人國民會(議) 中央總會 260, 262
- 〈대한인의 자치기관〉 〈大韓人의 自治機關〉 259
- 《대한인정교보》 《大韓人政敎報》 206, 207
- 대한정책 對韓政策 25
- 대한제국 大韓帝國 24, 53, 86, 98, 128, 140, 182, 239, 242, 246, 256, 257, 259, 260, 273
-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86
- 대한협회 大韓協會 128
- 대한흥학회 大韓興學會 273, 275
- 〈대호국민〉 〈大呼國民〉 251
- 덕성학교 德城學校 160
- 도금융조합연합회 道金融組合聯合會 81
- 〈도로규칙〉 〈道路規則〉 96
- 도빈 陶彬 186, 187
- 도사 島司 38
- 도사무관 道事務官 37
- 도시금융조합 都市金融組合 81
- 도자기업 陶磁器業 91
- 도장관 道長官 37, 38, 41, 119

- 도지권 賭地權 130
 도평의회 道評議會 117, 118
 도항증명제 渡航證明制 269, 270
 독립경축행진 獨立慶祝行進 353
 독립군 獨立軍 11, 133, 163, 175, 195, 197, 249, 255
 〈독립군가〉 〈獨立軍歌〉 157, 161
 독립군양성 獨立軍養成 163, 164
 독립기 獨立旗 360
 독립만세시위(운동) 獨立萬歲示威(運動) 354, 360, 364, 372, 389
 독립선언경축대회 獨立宣言慶祝大會 387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14~16, 276, 278, 306, 317, 327, 330~334, 336, 337, 340, 350~354, 357~359, 366, 368, 371, 372, 374, 375, 377, 378, 381, 384, 385, 389, 394~396
 〈독립선언서낭독〉 〈獨立宣言書朗讀〉 151
 독립선언(축하)식 獨立宣言(祝賀)式 369, 384, 389
 〈독립선언포고문〉 〈獨立宣言布告文〉 381, 382
 독립선포식 獨立宣布式 366, 367
 《독립신문》 《獨立新聞》 342, 374, 382
 독립운동가 獨立運動家 392
 독립운동기지 獨立運動基地 174
 독립운동론 獨立運動論 144
 독립운동자금 獨立運動資金 387, 389
 독립운동축하회 獨立運動祝賀會 388
 독립의군부 獨立義軍府 139, 142, 143, 167, 168, 177
 독립전쟁 獨立戰爭 12, 180, 195, 230, 242, 244, 245, 247, 249, 253, 254, 258, 349
 독립전쟁론 獨立戰爭論 6, 11, 133, 136, 147, 161, 163, 173~175, 247
 《독립창가》 《獨立唱歌》 338
 〈독립청원서〉 〈獨立請願書〉 152, 235, 315, 321, 327, 331
 독립축하식(회) 獨立祝賀式(會) 385, 386
 〈독립통고서〉 〈獨立通告書〉 327, 331~333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관) 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館) 274, 276~278
 동경노동동지회 東京勞動同志會 273
 동경여자친목회 東京女子親睦會 273
 동경유학생 東京留學生 394
 〈동경잡신〉 〈東京雜信〉 275
 동경조선노동조합 東京朝鮮勞動組合 296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 273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 東京朝鮮無產青年同盟 291, 292, 294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 274, 275
 동경조선청년동맹(회) 東京朝鮮青年同盟(會) 283, 292, 295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 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 286
 《동국역사》 《東國歷史》 128
 동래고등보통학교 東萊高等普通學校 358
 동맹신흥회 同盟新興會 243, 244
 동맹파업 同盟罷業 93, 312, 339
 동맹합자회 同盟合資會 271, 272
 동맹휴교 同盟休校 353
 동산농사주식회사 東山農事株式會社 90
 동아동맹회 東亞同盟會 273
 동아연초(주식)회사 東亞煙草(株式)會社 91, 93, 339
 동양척식주식회사 東洋拓殖株式會社 4, 54, 63~65, 70, 82, 131
 〈동양척식주식회사법〉 〈東洋拓殖株式會社法〉 63
 동양청년동지회 東洋青年同志會 273
 동양합동광업회사 東洋合同鑛業會社 93
 동오대학 東吳大學 220
 《동유지》 《東遊誌》 153
 동제사 同濟社 12, 224~226, 231, 236
 동충찬 董宗贊 137
 동주공제 同舟共濟 225

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 352
 동화정책 同化政策 30, 33, 188, 189
 동화주의 同化主義 25

[ㄹ]

러시아혁명 露西亞革命 231, 275
 〈러·일범인인도조약〉 〈露·日犯人引渡條約〉 199
 러일전쟁 露日戰爭 1, 39, 50, 53, 63, 74, 89, 94, 98, 100, 103, 121, 127, 180, 204, 229, 238

[ㄴ]

마산공립보통학교 馬山公立普通學校 358
 마포 연와공장 麻浦 煉瓦工場 86
 마하룡 馬河龍 377
 만국사회당대회 萬國社會黨大會 234
 만국평화회의 萬國平和會議 317
 만세꾼 萬歲꾼 351
 《만세보》 《萬歲報》 128
 만세사건 萬歲事件 381
 만세시위(운동) 萬歲示威(運動) 348~350, 353, 354, 360, 362, 369, 371, 373~375, 377, 386, 389, 391
 만주사변 滿洲事變 107
 만주철도 滿洲鐵道 95
 망곡식 望哭式 319
 《매일신보》 《每日新報》 128
 《매주평론》 《每週評論》 405
 매관자본가 買辦資本家 13
 메이치유신 明治維新 100
 메카타 다네타로 目賀田種太郎 79, 83
 면화재배협회 棉花栽培協會 68
 명동서숙 明東書塾 181
 모대위 毛大衛 227
 모범학당 模範學堂 183
 무관총독(제) 武官總督(制) 22, 36, 111
 무단통치 武斷統治 25, 26, 31, 69, 93,

104, 111, 115, 126, 133, 152
 〈무예장려문〉 〈武藝獎勵文〉 253
 무장독립군 武裝獨立軍 10
 무장독립운동 武裝獨立運動 385
 무장독립전쟁(투쟁) 武裝獨立戰爭(鬭爭) 138, 400
 무형국가론 無形國家論 233
 문관총독제 文官總督制 111
 문병호 文秉浩 394
 문상직 文相直 150
 문일평 文一平 220, 224, 225, 227, 339
 문창범 文昌範 199, 210, 214, 314, 394, 397~399
 문홍석 文鴻錫 238
 문화정치 文化政治 2, 17, 43, 105, 106, 410
 물산장려운동 物產獎勵運動 153
 미나미 지로 南次郎 108, 113
 미야지마 히로시 宮嶋博史 61, 62
 미일전쟁(설) 美日戰爭(說) 80, 261
 미주 국민회 美洲 國民會 198
 미즈노 렌타로 水野鍊太郎 58
 《민권보》 《民權報》 221
 민단조합 民團組合 7, 138, 140~143, 176~178
 《민립보》 《民立報》 221, 222
 〈민법〉 〈民法〉 62
 민영달 閔泳達 308
 민용호 閔溶鎬 153
 《민우일보》 《民吁日報》 222
 민족개량화정책 民族改良化政策 107
 민족공동체 民族共同體 103, 109, 111
 민족교육 民族教育 128, 129
 민족단일당 民族單一黨 294
 민족대표 民族代表 14, 15, 327, 334
 〈민족대회소집청원서〉 〈民族大會召集請願書〉 278
 민족말살정책 民族抹殺政策 1, 108, 110, 122
 민족말살주의 民族抹殺主義 102, 103,

106, 110
 민족문화운동 民族文化運動 411
 민족자결주의 民族自決主義 234, 306,
 313, 317, 380
 민족주의 民族主義 235
 민족해방운동 民族解放運動 107, 134,
 293, 297, 298, 410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235
 민주공화주의 民主共和主義 136
 민중봉기론 民衆蜂起論 308
 민찬호 閔燦(贊)鎬 240, 253, 263, 315
 민충식 閔忠植 12, 220
 민필호 閔弼鎬 223, 224
 《민호일보》 《民呼日報》 222

[ㅂ]

박기준 朴基駿 231
 박낙중 朴洛鍾 290
 박노영 朴老永 326
 박달학원 博達學院 12, 222, 225, 227
 박동완 朴東完 326
 박무림 朴茂林 181
 박문술 朴文術 137
 박상보 朴相甫 374
 박상진 朴尙鎭 8, 156, 162~164, 166
 박상하 朴相夏 240
 박성태 朴性泰 314
 박승렬 朴勝烈 240
 박승철 朴勝喆 153
 박승혁 朴承赫 154, 155
 박심수 朴尋洙 143
 박영모 朴永模 148
 박영묵 朴永默 360
 박영순 朴永淳 241, 263
 박영호 朴泳孝 320
 박용만 朴容萬 168~170, 231, 247,
 249, 251, 254~256, 261~263, 314
 박용회 朴庸淮 159
 박원동 朴元東 160

박윤섭 朴允燮 238
 박윤하 朴潤夏 325
 박은식 朴殷植 12, 36, 37, 220, 224,
 227, 231, 304, 314, 401
 박인관 朴仁寬 173
 박인근 朴仁根 142
 박인호 朴仁浩 326
 박재구 朴在球 139
 박중수 朴鍾洙 254
 박준승 朴準承 326
 박중화 朴重華 153
 박찬익 朴贊翊 183, 186, 187, 219, 224,
 314
 박처후 朴處厚 247, 248
 박춘금 朴春琴 286
 박치화 朴致和 360
 박쾌인 朴快仁 326
 박현숙 朴賢淑 157
 박형병 朴衡秉 280
 박희도 朴熙道 321, 322, 324~326, 332
 반관반민 半官半民 94
 반식민지 半植民地 53
 반원세개운동 反袁世凱運動 221
 방비대 防備隊 50
 방사겸 方四兼 242
 방주익 方周翼 154, 155
 방화중 邦化重 245, 250
 배동식 裴東奭 325
 〈배일결의문〉 〈排日決議文〉 239, 242
 배일당 排日黨 183
 백관수 白寬洙 274, 275, 278, 315
 백관형 白觀亨 339
 백남규 白南奎 153, 236, 278, 313
 백남운 白南雲 153
 백남훈 白南薰 274, 275
 백무 白武 292
 백서농장 白西農庄 10, 196
 백세빈 白世彬 169, 170, 172
 백순 白純 183, 394
 105인사건 百五人事件 7, 135, 145, 154

백옥보 白玉甫 186
 백용성 白龍城 323, 326
 백원보 白元甫 201, 205, 206
 백일규 白一圭 249
 〈범죄즉결례〉 〈犯罪卽決例〉 2, 45, 120, 310
 범태평양회 汎太平洋會 313
 범역외지역 法域外地域 117
 번발청장 辨髮淸裝 183, 183
 번상태 卞相泰 149~151, 362
 번장운동 變裝運動 193
 변희용 卞熙溶 280, 318
 병농일치제 兵農一致制 193
 병마도총장 兵馬都總將 139
 보성사 普成社 327
 보성전문학교 普成專門學校 147, 324, 340
 보신각 普信閣 338, 339
 〈보안법〉 〈保安法〉 240
 보안법위반사건 保安法違反事件 7, 135
 〈보안친발〉 〈保安親發〉 265
 보조명령항로 補助命令航路 97
 보통경찰(제) 普通警察(制) 1, 39, 105, 119, 120
 〈보통조약〉 〈普通條約〉 183
 복단대학 復旦大學 220
 복벽주의 復僻主義 8, 144, 166, 178, 179, 236
 복합사회 複合社會 plural society 32
 부민단 扶民團 10, 194, 231, 380, 387
 부일세력 附日勢力 106
 부흥회 復興會 240
 북계책 北計策 137
 북로군정서 北路軍政署 9
 북미지방총회 北美地方總會 252, 257, 258
 북선개척 北鮮開拓 108
 북성회 北星會 283, 284
 북풍회 北風會 284
 분할지배 分割支配 divide and rule

33, 102, 104
 불이흥업 不二興業 4
 비밀결사 秘密結社 7, 125, 134~136, 145, 147, 157, 167, 170, 171, 173, 175, 178, 179
 〈비밀조약〉 〈秘密條約〉 183

【人】

사관생도양성 士官生徒養成 253
 사관학교 士官學校 254, 255
 사립학교 私立學校 128, 129, 153, 268
 〈사립학교규칙〉 〈私立學校規則〉 8, 129, 178
 〈사립학교령〉 〈私立學校令〉 128
 사법경찰 司法警察 39, 41
 사법권 司法權 35, 113, 115, 117, 119
 사상두 史相斗 137
 사숙개량회 私塾改良會 185
 사우계 士友契 185, 188, 189
 사유림 私有林 74
 사이토 마코토 齋藤實 1, 22, 105, 111, 113, 285, 403, 408
 사회개조론 社會改造論 305
 사회개혁주의 社會改革主義 235
 사회진화론 社會進化論 302~305, 330
 사회혁명당 社會革命黨 213
 〈산림령〉 〈山林令〉 131
 〈산미증식계획〉 〈產米增殖計劃〉 81
 산직장려계 産織獎勵契 154
 삼균주의 三均主義 233
 〈삼림법〉 〈森林法〉 74, 76, 131
 삼원보 三源堡 172
 삼월회 三月會 284, 285
 삼읍주조주식회사 三邑酒造株式會社 90
 3·1운동 三·一運動 8, 9, 13, 15~17, 32, 73, 43, 93, 105, 111, 112, 115, 125, 126, 129, 137, 148, 150, 154, 173, 180, 195, 196, 215, 219, 233, 235, 236, 274, 282, 305, 307, 308, 310, 316, 318, 319, 324, 331, 379, 391, 393, 396, 400, 401, 403~405, 407~411

- 삼진의거 三鎭義舉 151, 152, 362
삼총해금동맹 三總解禁同盟 296
삼총해금운동 三總解禁運動 289, 293
상관 商館 98
상애회 相愛會 286
상해고려교민친목회 上海高麗僑民親睦會
12, 219, 228
상해대한인민단 上海大韓人民團 12, 220
상해한인기독교소학교 上海韓人基督教小
學校 12, 227
상해한인유학생회 上海韓人留學生會 12,
220
새트야그라하 Satyagraha 411
서광조 徐光朝 169
〈서당규칙〉 〈書堂規則〉 129, 177
서로군정서 西路軍政署 10
서병호 徐丙浩 13, 225, 234, 236, 313, 314
서북학회 西北學會 128, 183
서상렬 徐相烈 139
서상일 徐相日 7, 147~150
서선중앙철도주식회사 西鮮中央鐵道株式
會社 90
서우순 徐祐淳 163
서일 徐一 9
서재필 徐載弼 403, 404, 406
서전서숙 瑞甸書塾 9, 181
서춘 徐椿 274~278, 281, 315
서필순 徐弼淳 243
선거권 選舉權 118
선우혁 鮮于赫(赫) 225, 227, 234, 236,
313, 321
설관학 薛寬學 154
성낙형 成樂馨 12, 228, 307
성명회 聲明會 198, 392
성전정미소 城田精米所 90
성태영 成泰英 324
소년병학원 少年兵學院 253
소작권 小作權 107, 130
〈소작규정〉 〈小作規定〉 70
소작농 小作農 70, 71, 72, 84
소작쟁의 小作爭議 107
소총독 小總督 119
손문 孫文 216, 220, 222, 223, 405
손병희 孫秉熙 320, 322, 326, 332, 390
손일민 孫一民 314
송계백 宋繼白 274, 275, 278, 315, 316
송낙선 宋洛善 139
송도고등보통학교 松都高等普通學校 343
송병준 宋秉峻 246
송복신 宋福信 157
송봉우 宋奉瑀 284
송죽회 松竹會 7, 157
송진우 宋鎭禹 275, 320
수리비 水利費 71
수리조합 水利組合 81
순사보(제도) 巡查補(制度) 31, 42, 43
숭무주의 崇武主義 247
숭무학교 崇武學校 250, 251
숭실학교 崇實學校 168, 170, 171, 177
숭의여학교 崇義女學校 157
스즈키(鈴木)商店 312
시가행진 市街行進 359, 371, 390
시멘트제조업 Cement製造業 89
시민민주주의 市民民主主義 236
시베리아횡단철도 Siberia橫斷鐵道
207, 212
시천교 侍天教 185
식료조제품 食料造製品 98
식료품가공업 食料品加工業 86
식민무단통치 植民武斷統治 125
식민정책 植民政策 30
식민주의 植民主義 122
식산은행 殖山銀行 82
신간회 新幹會 240, 288, 290, 296, 297
신간회 동경지회 新幹會 東京支會
294~297
신광회 申光熙 250
신규식 申圭植 12, 219~227, 230, 231,
307
신문관 新文館 327

〈신문지법〉 〈新聞紙法〉 3, 128, 240
 신민단 新民團 215
 신민회 新民會 7, 135, 175, 178, 192, 238, 244
 신빈 申斌 231
 신사참배 神社參拜 109
 신상면 申相冕 355
 신상태 申相泰 149, 150
 신석구 申錫九 326
 신석우 申錫雨 12, 153, 219, 225, 231, 275
 신성구 申聲求 243
 신아동제사 新亞同濟社 224
 신영순 申永淳 158
 신익희 申翼熙 273, 275
 《신조》 《新潮》 405
 신재호 申采浩 206, 224, 227, 231, 305, 314, 401
 신관석 申判錫 239
 《신한국》 《新韓國》 248
 《신한국보》 《新韓國報》 203, 254
 《신한독립사》 《新韓獨立史》 160
 《신한민보》 《新韓民報》 12, 198, 203, 205, 206, 226, 251, 258, 259, 261, 404
 신한청년당 新韓靑年黨 13, 234, 236, 305, 313, 314, 316
 신한촌 新韓村 11, 191, 201~205, 245, 397, 398
 신한혁명당 新韓革命黨 12, 13, 169, 228, 230, 231, 232, 236, 237, 307
 신해혁명 辛亥革命 11, 136, 188, 216, 221, 236, 237
 신형호 申衡浩 221, 249
 신흥식 申洪植 321, 326
 신흥강습소 新興講習所 10, 193, 194, 387
 신흥과학연구회 新興科學研究會 284, 294, 296
 신흥학교 新興學校 194, 195, 196, 380
 신흥학우단 新興學友團 195

《신흥학우보》 《新興學友報》 195
 실력양성(론)운동 實力養成(論)運動 133, 136, 153, 174
 실지회 實志會 240
 심항기 沈恒基 154, 155
 13도의군 十三道義軍 198
 씨제도 氏制度 109

[오]

아세아실업주식회사 亞細亞實業株式會社 245, 246
 아시아민족반일대동당 아시아民族反日大同黨 233
 아카시 겐지로 明石元二郎 2, 39, 40, 43, 50
 아후이마누농장 Ahuimanu農場 254
 안광천 安光泉 284, 290, 292
 안규선 安圭善 243
 안상덕 安商德 331
 안세환 安世桓 321, 331
 안악사건 安岳事件 7, 135, 145
 안원규 安元奎 253, 254
 안재홍 安在鴻 153, 275
 안정근 安定根 211, 314
 안정식 安貞錫 157
 안정수 安定洙 238, 243, 244
 안종건 安鍾建 153
 안중근 安重根 159, 160, 197, 392
 안중근사건 安重根事件 192, 197
 안중근 의사 추도회 安重根 義士 追悼會 225
 안창호 安昌浩 192, 198, 200, 205, 233, 241, 243, 244, 314, 315, 403
 안확 安廓 148~150, 308
 〈애국가〉 〈愛國歌〉 157, 158
 애국계몽운동 愛國啓蒙運動 147, 192, 392
 애국동맹단 愛國同盟團 252, 253
 애국동지대표회 愛國同志代表會 247

- 《애국창가집》 《愛國唱歌集》 161
야마다 산료 山田三良 26
양계초 梁啓超 233, 304
양기탁 梁起鐸 135, 211
양성춘 梁成春 200
양전백 梁甸伯 321, 326
양제안 梁濟安 163
양조업 釀造業 89, 90
양한묵 梁漢默 326
어린이운동 어린이運動 410
〈어업조합규칙〉 〈漁業組合規則〉 78
어용신문 御用新聞 128
어재하 魚在河 165
어천절 御天節 219
엄인섭 嚴仁燮 401
엄주동 嚴柱東 153
여운형 呂運亨 12, 13, 216, 219, 225, 227, 234~236, 313, 314, 394
여운홍 呂運弘 235
여준 呂準 10, 193, 195, 314
여행증명제도 旅行證明制度 269
연무부 練武部 253, 254
연병우 延秉佑 403
연설회 演說會 289
연안항로 沿岸航路 97
연초제조공 煙草製造工 93
연초제조업 煙草製造業 86, 89, 90
연희전문학교 延禧專門學校 171, 324, 336, 338
영등포 토관제조공장 永登浦 土管製造工場 86
영림창 營林廠 26, 74
예기조합 藝妓組合 359
오계업 吳啓曄 139
오병섭 吳柄燮 172
5·4운동 五·四運動 411
오산학교 五山學校 371
오상근 吳尙根 321
오상현 吳相鉉 153
오성목 吳成默 211, 399
오성범 吳成範 388
오성학교 五星學校 160
오세창 吳世昌 308, 320, 326, 331, 332, 390
《오수불망》 《吾讐不忘》 187
오와실리 吳永俊 209, 211
오장기 五杖旗 382
오진인쇄 奧田印刷 93
오주혁 吳周赫 245
오창근 吳昌根 139
오창환 吳昌煥 394, 397, 401
오화영 吳華英 321, 326, 331, 332
온천학교 溫泉學校 159
용명서당 龍明書堂 349
우가키 가즈시게 宇垣一成 107, 113
우리동무회 197
우승열패 優勝劣敗 304, 305
우재룡 禹在龍 163, 166
우호한인예배회 寓滬韓人禮拜會 219
운수업 運輸業 86
웅변대회 雄辯大會 277, 294
원동 遠東 180
원산총파업 元山總罷業 289, 295
원세개 袁世凱 187, 191, 230
원세훈 元世勳 214
원수부 元首府 139
유관순 柳寬順 346
〈유교구신론〉 〈儒教求新論〉 304
유구왕국 琉球王國 100
유근 柳瑾 153
유동열 柳東說 192, 211, 212, 214, 307, 314, 401
유신파 維新派 184
유여대 劉如大 321, 326, 333, 370
유영봉 柳永奉 142
유응두 柳應斗 139
유인석 柳麟錫 184, 197~199, 201
유일한 柳一韓 248, 249
유장렬 柳璋烈 140, 163
유준근 柳濬根 139, 339

- 유중권 柳重權 346
 유창률 劉昌律 154
 유창순 庾昌淳 140, 163, 164
 유학생대회 留學生大會 278
 유홍렬 劉鴻烈 307
 육군좌관 陸軍佐官 42
 육군학당 陸軍學堂 221
 윤기섭 尹琦燮 193~195
 윤능효 尹能孝 245
 윤덕배 尹德培 388
 윤동철 尹東喆 394
 윤병구 尹炳求 238, 239, 247, 253, 263
 윤병후 尹炳厚 378
 윤봉길의거 尹奉吉義舉 218, 219
 윤상태 尹相泰 7, 147~149
 윤세복 尹世復 213~314
 윤세주 尹世胄 359
 윤용구 尹用求 320, 324, 390
 윤익선 尹益善 340
 윤자영 尹滋英 325
 윤자형 尹滋亨 158
 윤지이 尹志伊 222
 윤장식 崙昌錫 274, 275, 278, 315
 윤창식 尹昶植 153
 윤치성 尹致晟 163
 윤치호 尹致昊 158, 320
 윤칠영 尹七榮 345
 윤해 尹海 182, 183, 213, 214, 394
 윤홍중 尹洪重 163
 〈은행령〉 〈銀行令〉 80
 을사의병 乙巳義兵 1
 을사조약 乙巳條約 9, 11, 50, 242, 250, 392
 의무소방대 義務消防隊 127
 의병운동 義兵運動 192, 197, 199, 352
 의병장 義兵將 137, 138
 의병투쟁(전쟁) 義兵鬪爭(戰爭) 6, 32, 128, 133, 134, 136, 141, 178, 242
 의성회 義成會 240
 의열단 義烈團 166
 의용단 義勇團 389
 의용훈련대 義勇訓練隊 253
 의협투쟁 義俠鬪爭 166, 167
 2·8독립선언 二·八獨立宣言 14, 282, 324
 〈2·8독립선언서〉 〈二·八獨立宣言書〉 314, 316
 〈2·8독립선언 1주년기념축하문〉 〈二·八獨立宣言 一周年記念祝賀文〉 282
 2·8운동 二·八運動 273~276, 279~281
 이갑 李甲 198, 200, 206, 208
 이갑성 李甲成 322, 324, 326, 331~333
 이갑장 李甲長 400
 이강 李剛 200, 205~207, 243~245, 258
 이강년 李康年 140
 이강현 李康現 153
 이경섭 李景燮 331
 이관구 李觀求 163, 164, 166
 이관묵 李觀默 240
 이관용 李灌鎔 235, 236
 이광 李光 314
 이광수 李光洙 11, 217, 220, 273, 275, 277, 278, 280, 314, 316
 이교담 李交談 238
 이교영 李喬永 308
 이구준 李求準 375
 이권제 李權濟 139
 이규갑 李奎甲 333
 이규송 李奎宋 326
 이근동 李根東 160
 이근영 李根永 250
 이근호 李根濤 195
 이남기 李南基 184, 198
 이내수 李來洙 240, 253
 이달 李達 317
 이대쇠 李大釗 405

- 이대위李大爲 241, 253, 314
이도재李道宰 375
이동녕李東寧 11, 193, 194, 204, 211, 314
이동춘李同春 181~183, 187, 190, 191
이동하李東下 141~143
이동호李東鎬 239
이동휘李東輝 11, 183, 187, 188, 204, 208, 211, 212, 214, 314, 394, 401
이마대李馬大 157
이만규李萬珪 158
이명룡李明龍 321, 326
이명섭李明燮 247
이명익李明翊 138
이무영李茂榮 142
이발李發 403
이범규李範圭 304
이범석李範奭 201, 223
이범윤李範允 197, 198, 201, 314, 392, 401
이범진李範晉 203
이병헌李炳憲 333
이병호李秉昊 163
이병호李秉瑚 242
이봉우李鳳(奉)雨 182, 314
이사칭理事廳 37
이상룡李相龍 10, 192, 193, 195, 314
이상설李相高 9, 11~13, 196~199, 201, 202, 204, 208, 228~230, 245, 247, 307, 308
이상재李商在 308
이상춘李常春 158
이세영李世永 142, 314
이승교李承喬 402
이승만李承晩 247, 256, 277, 314, 315, 403
이승훈李昇薰 308, 313, 321~323, 326, 333
이승희李承熙 10, 196, 197
이시영李始榮 10, 147~149, 193, 194, 314, 387
이여성李如星 284, 292
이완용李完用 246
이왕직李王職 2, 35, 37
이왕직원李王職員 36
이용李鏞 394
이용규李容珪 167
이용우李用雨 152, 153
이원식李元植 168, 253
이원익李源益 243
이은李垠 318
이은영李殷榮 141~143
이이제이以夷制夷 104
이인순李寅順 138
이인영李麟榮 141
이일李逸 231
이장옥李章玉 359
이정권李正權 254
이제재李堤宰 141
이중근李琮根 274~278, 281, 315
이중린李鍾麟 340
이중영李種諤 140, 165
이종일李鍾一 308, 318, 326, 327, 331, 333, 340
이종탁李鍾倬 314
이종호李鍾浩 11, 192, 198, 200~205, 394
이종황李鍾晃 142
이종훈李鍾勳 326
〈이주민취급규칙〉〈移住民取扱規則〉 65
이증연李增淵 7, 144
이증익李曾翊 139
이진석李鎭石 153
이청천李青天 10
이춘일李春日 307
이치선李致善 158
이탁李沔 193~195, 314
이태왕전하李太王殿下 142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50, 197

이필주 李弼柱 325, 326
 이학룡 李學龍 161
 이항근 李恒根 154
 이현경 李賢卿 285
 이호 李浩 254
 이홍용 李洪容 154
 이회영 李會榮 10, 192~194, 308
 이효덕 李孝德 157
 이흥삼 李興三 394
 인성학교 仁成學校 12, 227
 인쇄국 印刷局 26
 이정식 印貞植 291
 인종익 印宗益 331
 인치주의 통치체제 人治主義 統治體制 117
 일본(총)영사관 日本(總)領事館 181, 185
 일본자본주의 日本資本主義 32
 일본제국주의 日本帝國主義 52
 일시동인 一視同仁 6, 25, 101, 105
 일신단 一身團 360
 일월회 一月會 283~287, 290, 294, 297
 일진회 一進會 105, 128, 185
 임광모 林光模 167
 임규 林圭 327, 331
 임금투쟁 賃金鬭爭 312
 임동식 林東植 247
 임병찬 林炳瓚 138~142
 임산물 林産物 75
 임시정부 臨時政府 150, 180, 231~233, 254, 259~261, 342
 임시정부 건설론 臨時政府建設論 263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54
 임시토지조사국 臨時土地調査局 130
 임야정리조사 林野整理調査 76
 임야조사사업 林野調査事業 76
 임예환 林禮煥 326
 임자문 林子文 167

임정수 林正洙 240
 임준기 林俊基 243
 임준호 任準鎬 240
 임찬일 林燦逸 355
 임창무 林昌茂 351
 임치정 林嵒正 238, 244
 임필동 林弼東 388
 임형주 林炯住 238
 입법권 立法權 34, 113, 115, 117
 입헌군주제 立憲君主制 13, 230, 232
 입회권 入會權 130

[ㅈ]

자강회 自強會 240
 자신계 自新契 195
 《자유종》 《自由鐘》 212
 자작농 自作農 72, 81, 84
 자진회 自進會 145
 자치민단 自治民團 370
 자치입법권 自治立法權 118
 자치제 自治制 117
 잠매토지 潛賣土地 53
 잡화상 雜貨商 86
 장건상 張建相 226
 장경 張景 241, 242
 장관관방 長官官房 37
 장기옥 張基郁 326
 장덕수 張德秀 13, 234, 236, 273, 275, 313, 314, 316
 장도빈 張道斌 160, 206
 장로교 長老教 206, 365, 406
 장석영 張錫英 150
 장인환 張仁煥 318
 장일환 張日煥 8, 168~170, 173
 장종건 張棕鍵 340
 장지연 張志淵 304
 장지영 張志暎 153
 장진수 張振秀 358
 장진제일공장 長津第一工場 90

- 장채극 張彩極 326
 장한봉 張漢鳳 385
 재대관고려무산청년동맹 在大阪高麗無產
 青年同盟 284
 재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 在東京朝鮮無產
 青年同盟 284, 287
 재무감독 財務監督 37
 재무서 財務署 37, 83
 재미한인공동대회 在美韓人共同大會
 239, 242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在日本東京
 朝鮮基督教青年會 273, 274
 재일본무산청년동맹 在日本無產青年同盟
 292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在日本朝鮮勞動總
 同盟 284, 286~289, 291, 293, 295~
 297
 재일본조선유학생친목회 在日本朝鮮留學
 生親睦會 273
 재일본조선청년동맹 在日本朝鮮青年同盟
 291, 292, 294~297
 재일유학생운동 在日留學生運動 274
 재정고문 財政顧問 83
 〈재정고문용빙계약〉 〈財政顧問傭聘契約〉
 83
 재판권 裁判權 115
 재판소 裁判所 119
 재판조선인친목회 在阪朝鮮人親睦會 271,
 273
 적백내전 赤白內戰 307, 393
 적위대 赤衛隊 212
 전당포 典當舖 81
 전로청년결사대 全露青年決死隊 399
 전로한족대표자회 全露韓族代表者會 208,
 212
 전로한족(회)중앙총회 全露韓族(會)中央
 總會 214, 215
 전매국 專賣局 26
 전문학교 專門學校 268, 269, 272
 전북 경편철도주식회사 全北 輕便鐵道
 株式會社 88
 부사년 傅斯年 405
 진성근 田聖根 137
 진성익 全性翊 155
 전시강제동원 戰時強制動員 108, 110,
 120
 전영택 田榮澤 273, 274, 277, 278, 315,
 316
 전옥결 全玉玦 326
 전용규 田琿圭 138, 139, 167, 168
 전정이정책 田政釐整策 61
 전진회 前進會 284
 전차 파괴운동 電車 破壞運動 339
 정경태 鄭敬泰 137
 정도령 正都領 204
 정동예배당 貞洞禮拜堂 325
 정만교 鄭萬敎 140
 정무총감 政務總監 30, 36, 58, 119
 정무통리권 政務統理權 34
 정미의병 丁未義兵 1, 39
 정미조약 丁未條約 240
 정사인 鄭士仁 158
 정세창 鄭世昌 137
 정순만 鄭淳萬 10, 200, 205, 245
 정순영 鄭舜永 148, 149
 정신단 精神團 187
 정안립 鄭安立 185
 정양필 鄭良弼 248
 정연웅 鄭延雄 8, 167
 정영기 鄭永基 248
 정운홍 鄭雲洪 140
 정원택 鄭元澤 225, 226
 정의단 正義團 9
 정인보 鄭寅普 225
 정재관 鄭在寬 11, 196, 201, 202, 204~
 207, 244, 245, 314
 정재면 鄭載冕 187, 314, 394
 정주교구당 定州敎區堂 371
 정주환 鄭周煥 159
 정진화 鄭鎭華 140

- 정춘수 鄭春洙 321, 326, 333
 정치구락부 政治俱樂部 284
 정칠래 鄭七來 263
 정태영 鄭泰榮 338
 정한경 鄭翰景 247, 249, 315, 403
 정한론 征韓論 100
 제곡업 製穀業 90
 《제국신문》 《帝國新聞》 128
 제국의회 帝國議會 114
 제국주의 帝國主義 32, 303, 304
 제당업 製糖業 89
 제면업 製綿業 90
 제분업 製粉業 90
 제사업 製絲業 90
 제암리 감리교회 堤岩里 監理教會 344
 제암리 학살사건 堤岩里 虐殺事件 344, 407
 제염업 製鹽業 89
 제2의 독립선언 第二 獨立宣言 339
 제2차 <러일협약> 第二次 <露日協約> 199, 200
 제일은행 第一銀行 79, 86
 제1차 세계대전 第一次 世界大戰 8, 11~14, 16, 72, 77, 80, 88, 92, 98, 146, 171, 178, 204, 207, 224, 233, 234, 237, 255, 263, 301, 302, 305, 307, 308, 380, 392, 393, 408, 411
 제재업 製材業 91
 제조업자 製造業者 76
 제지업 製紙業 90
 제철업 製鐵業 85, 89
 조동호 趙東祐 223, 225, 234
 조면업 繰綿業 89
 조병요 趙炳堯 240
 조병하 趙秉夏 250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 朝鮮GAS電氣株式會社 91
 조선공산당 4차당 朝鮮共產黨 四次黨 288, 291
 조선공산당 3차당 朝鮮共產黨 三次黨 288, 291
 조선공산당 2차당 朝鮮共產黨 二次黨 290
 조선공산당일본총국 朝鮮共產黨日本總局 288, 293, 294, 297, 298
 조선공산당 1차당 朝鮮共產黨 一次黨 290
 <조선광업령> <朝鮮鑛業令> 5, 77, 132
 <조선교육령> <朝鮮教育令> 129
 <조선교육령사립학교규칙> <朝鮮教育令私立學校規則> 177
 조선국권회복단 朝鮮國權恢復團 7, 147, 174, 177, 178, 362
 조선국민의사부 朝鮮國民議事部 381
 조선국민회 朝鮮國民會 8, 136, 168~173, 177, 178
 <조선국유산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처분령> <朝鮮國有山林未墾地 및 森林產物特別處分令> 131
 조선귀족 朝鮮貴族 35
 조선기독교청년회 朝鮮基督教青年會 293
 《조선독립광주신문》 《朝鮮獨立光州新聞》 353
 <조선독립선언서> <朝鮮獨立宣言書> 283, 390, 397
 《조선독립신문》 《朝鮮獨立新聞》 14, 335, 338, 340
 <조선독립청원서> <朝鮮獨立請願書> 150
 조선무산자사회연맹 朝鮮無產者社會聯盟 284
 조선무산청년회 朝鮮無產青年會 291
 조선무연탄주식회사 朝鮮無煙炭株式會社 90
 조선물산장려회 朝鮮物產獎勵契 174, 177
 조선물산주식회사 朝鮮物產株式會社 90
 조선미상 朝鮮米商 312
 조선방직주식회사 朝鮮紡織株式會社 90
 조선사회당 朝鮮社會黨 234

- 조선산직장려계 朝鮮産織獎勵契 7, 152, 153, 175, 177
- 조선생사주식회사 朝鮮生絲株式會社 90
- 조선성냥주식회사 朝鮮성냥株式會社 90
- 조선식산은행 朝鮮殖山銀行 80, 81
〈조선식산은행령〉 〈朝鮮殖山銀行令〉 80
〈조선어업령〉 〈朝鮮漁業令〉 5, 78
- 조선여자삼월회 朝鮮女子三月會 283
- 조선우선주식회사 朝鮮郵船株式會社 91
- 조선유학생친목회 朝鮮留學生親睦會 275
- 조선은행(권) 朝鮮銀行(券) 79, 82
〈조선은행법〉 〈朝鮮銀行法〉 79
- 조선인단체협의회 朝鮮人團體協議會 295, 296
- 조선인노동동맹회 朝鮮人勞動同盟會 283
- 조선인민회 朝鮮人民會 398
- 조선인자금회 朝鮮人貯金會 271, 272
- 조선인회 朝鮮人會 185
〈조선임야조사령〉 〈朝鮮林野調査令〉 76
- 조선임야조사사업 朝鮮林野調査事業 131
- 조선전분주식회사 朝鮮澱粉株式會社 90
- 조선정유주식회사 朝鮮精油株式會社 90
- 조선제면주식회사 朝鮮製綿株式會社 91
〈조선주군헌병조령〉 〈朝鮮駐軍憲兵條令〉 23
- 조선주차군 朝鮮駐紮軍 121, 127
- 조선주차헌병대 朝鮮駐紮憲兵隊 34
- 조선청년독립단 朝鮮靑年獨立團 278, 279
〈조선청년독립단국민대회촉진부취지서〉 〈朝鮮靑年獨立團國民大會促進部趣旨書〉 317
- 조선청년총동맹 朝鮮靑年總同盟 292, 293
- 조선총독 朝鮮總督 24~26, 33~35, 50, 57, 75, 79, 81, 87, 103, 107, 113~118, 165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1, 2, 4, 5, 21, 22, 24, 26, 27, 29, 30, 35, 37, 48, 52, 54, 56, 57, 60, 67, 69, 74, 77, 81, 82, 84, 87, 88, 94, 126~128, 130, 131, 185, 264, 265, 268, 270, 272, 281, 289, 310, 327, 339, 402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칙령〉 〈朝鮮總督府 設置에 關한 勅令〉 24
조선총독부 재판소 朝鮮總督府 裁判所 46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朝鮮總督府 裁判所令〉 35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朝鮮總督府 特別會計에 關한 件〉 84
〈조선총독부관제〉 〈朝鮮總督府官制〉 22, 24
〈조선총독부금기소속관서관제〉 〈朝鮮總督府及其所屬官署官制〉 25
〈조선총독부령〉 〈朝鮮總督府令〉 35
《조선총독부시정연보》 《朝鮮總督府施政年報》 48, 49
- 조선통감부 朝鮮統監府 380
- 조선피혁주식회사 朝鮮皮革株式會社 91
- 조선학회 朝鮮學會 273, 274, 276, 293
〈조선헌병조례〉 〈朝鮮憲兵條例〉 2, 40
- 조성학 曹成學 253
- 조성환 曹成煥 12, 211, 220, 221, 224, 227, 231, 401
〈조세징수규정〉 〈租稅徵收規定〉 83
- 조소양(용은) 趙素昂(鏞殷) 224, 227, 231, 233, 235, 305, 313, 314, 316
- 조완구 趙琬九 219, 305
- 조우경 趙禹卿 143
- 조옥 曹煜 314
- 조진찬 曹鎭贊 247, 248
- 조흥은행 朝興銀行 338
- 조슈벌 長州閥 101, 112
- 주소병 朱少屏 222
- 주원 朱元 263
- 주임관 奏任官 37, 38
- 주조업 酒造業 91
- 주종경 朱鍾敬 387

주중의 朱鍾宜 325
 주차헌병 駐劄憲兵 34, 39
 주한통감 駐韓統監 39
 중광단 重光團 9
 중국동맹회 中國同盟會 221
 《중등역사》 《中等歷史》 187
 중앙은행 中央銀行 86
 중일전쟁 中日戰爭 109, 110, 114, 121, 122, 146, 180
 중추원 中樞院 36, 104, 117
 〈중한의방조약〉 〈中韓宜防條約〉 228
 중화학생군단 中華學生軍團 221
 즉결사건 卽決事件 179
 〈지방금융조합령〉 〈地方金融組合令〉 81
 지원병 志願兵 110
 지장회 池章會 184, 185
 지주전호제 地主佃戶制 104
 지하신문 地下新聞 338
 직할보통학교 直轄普通學校 26
 진기미 陳其美 222~224
 진독수 陳獨秀 405
 진보당 進步黨 128
 진학신 秦學新 401
 〈집회단속에 관한 건〉 〈集會團束에 관한 件〉 3
 〈집회취체에 관한 건〉 〈集會取締에 관한 件〉 128

[次]

차남규 車南奎 161
 차두환 車斗煥 243
 차상진 車相晉 339
 차이석 車利錫 146
 차호균 車鎬均 184, 185
 참모총약장 參謀總約長 139
 참정권운동 參政權運動 106
 창가집 唱歌集 157, 158
 채광덕 蔡光德 157

채기중 蔡基中 7, 140, 143, 163, 166
 채상덕 蔡相惠 139
 채성하 蔡成河 245
 채응언 蔡應彦 137, 177
 척식국 拓殖局 116
 척식사업 拓殖事業 65
 척식은행 拓殖銀行 65
 천도교 天道敎 14, 180, 308, 314, 320, 322, 324, 326, 331, 333, 341, 346, 350, 351, 364, 366~377, 384, 389
 천도교당 天道敎堂 374
 천도교청년회 天道敎靑年會 285
 천황 天皇 33, 34, 105, 109, 113, 115~117, 126
 천황제 天皇制 122, 129
 철도관리국 鐵道管理局 94
 철도국 鐵道局 94
 철도망 鐵道網 95, 97
 철도부설권 鐵道敷設權 94
 철도연선 鐵道沿線 41, 86
 《청년》 《靑年》 187
 청년병학원 靑年兵學院 253
 《청년조선》 《靑年朝鮮》 292
 청년친목회 靑年親睦會 187
 청일전쟁 淸日戰爭 74, 100
 《체조요지》 《體操要旨》 253
 체화동락회 楸華同樂會 220
 《초등대한역사》 《初等大韓歷史》 128
 총독 總督 47, 105, 118, 119, 126, 139, 177
 총독관방 總督官房 26, 34, 36
 총독부 總督府 4, 31, 32, 36, 49, 69, 96, 104, 107, 110, 115, 119, 121, 127, 128
 〈총독부경찰관서관제〉 〈總督府警察官署官制〉 2
 총독통치 總督統治 37
 최경하 崔景河 325
 최규익 崔奎翼 153
 최근우 崔謹愚 275, 278, 315
 최남선 崔南善 152, 153, 279, 320, 321,

327
 최동문 崔東文 386
 최린 崔麟 320, 321~323, 326, 327,
 332, 334, 390
 최병학 崔炳學 314
 최봉준 崔鳳俊 197
 최봉남 崔鵬南 159
 최석희 崔錫熙 154
 최성모 崔聖模 326
 최승만 崔承萬 281, 318
 《최신창가집》 《最新唱歌集》 160
 최영설 崔永堯 139
 최영우 崔永宇 137
 최영풍 崔永豐 139
 최옥영 崔旭永 141, 143
 최원택 崔元澤 290
 최은희 崔恩喜 336
 최익삼 崔益三 137
 최익현 崔益鉉 138, 159
 최재우 崔在宇 318
 최재형 崔在亨 197, 201, 204, 209, 214,
 392
 최재형 崔才亨 394, 401
 최정익 崔正益 244, 253, 261
 최진영 崔鎭永 144
 최태형 崔泰亨 154, 155
 최팔용 崔八鋪 274~276, 278, 315
 추도회 追悼會 398
 〈출판법〉 〈出版法〉 3, 128
 치도사업 治道事業 96, 97
 치발역복 薙髮易服 183, 193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 295
 칙임관 勅任官 38
 친목회 親睦會 241
 친일매국 親日賣國 105
 친일부호 親日富豪 163, 165
 친일파 親日派 33, 177, 353
 친임관 親任官 2, 33, 36, 38, 111, 126

【ㄱ】

쿠마모토 리헤이 熊本利平 55

【ㄴ】

탁지부 度支部 36, 119
 태극기 太極旗 151, 223, 338, 345, 359,
 360, 367, 368, 376, 383, 385, 390, 395, 396,
 398, 400, 403
 태동실업주식회사 泰東實業株式會社 196,
 245, 246
 태평양전쟁 太平洋戰爭 114, 116
 태화관 泰和館 14, 15, 332, 333
 테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21, 24,
 26, 31, 39, 42, 50, 69, 88, 94, 95, 113, 211,
 139
 토목업 土木業 90
 토목회의 土木會議 26
 토요회 土曜會 284
 〈토지가옥증명규칙〉 〈土地家屋證明規則〉
 53, 54
 토지반환 청원운동 土地返還 請願運動
 73
 〈토지법〉 〈土地法〉 62
 〈토지수용령〉 〈土地收用令〉 4, 59, 77,
 97
 토지조사국 土地調查局 3
 〈토지조사령〉 〈土地調查令〉 3, 56,
 57, 130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查事業 3, 4, 13,
 52, 54, 57~63, 71, 73, 130, 131, 310
 토황제 土皇帝 126
 통감 統監 21, 114, 121
 통감부 統監府 21, 22, 39, 46, 50, 54, 96,
 103, 181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 〈統監府 警察
 官署 官制〉 40
 〈통고문〉 〈通告文〉 242
 통제파 統制派 113

통합행정권 統合行政權 34
 특별헌병수사반 特別憲兵搜查班 137
 특별회계 特別會計 84
 특수행정구역 特殊行政區域 38

[표]

파고다(탑골)공원 Pagoda(塔洞)公園 14,
 15, 325, 333, 334, 337
 파리 평화회의 Paris 平和會議 313,
 331, 403, 401
 파리 강화회의 Paris 講和會議 13, 150,
 215, 234~237, 277, 393
 판임관 判任官 2, 38
 패권주의 霸權主義 101
 편세공 編細工 85
 평양광업소 平壤鑛業所 26, 77
 평양신학교 平壤神學校 168, 170~172
 평양탄광선 平壤炭鑛線 94
 폐성탈명 廢姓奪名 109
 〈포교규칙〉 〈布教規則〉 8, 178
 풍기광복단 豐基光復團 7, 140, 162,
 163, 165, 177
 프랑스조계 France租界 217, 218, 227
 《프랑스혁명사》 《France革命史》 128
 피혁제조업 皮革製造業 89, 90

[ㅎ]

하세가와 요시미치 長谷川好道 50, 105,
 112
 하와이 국민회 Hawaii 國民會 170, 173
 하와이 군사령부 Hawaii 軍司令部
 255
 하와이 지방총회 Hawaii 地方總會
 252~254, 256, 258
 하이지 蝦夷地 100
 〈학교령〉 〈學校令〉 128
 학생군 學生軍 221
 학우회 學友會 293~297

학우회학생동맹회 學友會學生同盟會
 280
 《학지광》 《學之光》 275
 〈한국병합조약〉 〈韓國併合條約〉 24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 〈韓國保護權
 確立의 件〉 238
 〈한국어업법〉 〈韓國漁業法〉 78
 한국은행(권) 韓國銀行(券) 79
 《한국의 독립운동》 《韓國의 獨立運動》
 404
 한국주차군 韓國駐紮軍 40, 50, 114
 한국주차군 사령부 韓國駐紮軍 司令部
 114
 한국주차헌병대 韓國駐紮憲兵隊 39,
 115
 한국철도 韓國鐵道 95
 한국친우회 韓國親友會 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 404, 406
 한국통감부 韓國統監府 24, 83, 86, 94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
 〈韓國通信機關 委託에 關한 協定〉 97
 한규설 韓圭謨 320, 390
 한림 韓林 294
 〈한미수호통상조약〉 〈韓美修好通商條約〉
 406
 한민교육회 韓民教育會 182
 한민자치회 韓民自治會 181, 182
 한민회장 韓民會長 397
 한성은행 漢城銀行 86
 한성전기회사 漢城電氣會社 86
 한시호 韓始浩 249
 한영서원 韓英書院 158
 한용운 韓龍雲 308, 323, 324, 326, 331,
 333, 334
 한위건 韓偉健 15, 325, 333
 한인결사대 韓人決死隊 399
 〈한인관리 퇴직권고문〉 〈韓人官吏 退
 職勸告文〉 363
 한인군사학교 韓人軍事學校 247, 248
 한인사회당 韓人社會黨 211~215

한인사회당대표자대회 韓人社會黨代表者大會 215
 한인소년병학교 韓人少年兵學校
 The Young Korean Military School
 247~249, 251, 255
 《한인신보》 《韓人新報》 233, 395
 한인신보사 韓人新報社 395
 한인청년독립단 韓人靑年獨立團 405
 한인청년회 韓人靑年會 387
 《한인합성신보》 《韓人合成新報》 241
 한인합성협회 韓人合成協會 241, 244
 〈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64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78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50, 238
 〈한일합방조약〉 〈韓日合邦條約〉 50
 한일합병(방) 韓日合併(邦) 139, 182~
 184, 192, 199, 200, 252, 268, 279
 한재명 韓在明 261
 한정만 韓貞萬 137
 《한족공보》 《韓族公報》 395
 한족중앙위원회 韓族中央委員會 395
 한족중앙총회 韓族中央總會 209, 210,
 212, 398
 한족회 韓族會 10, 195, 380
 한진교 韓鎭敎 227, 231, 234, 313
 한형권 韓馨權 200~202, 245
 한훈 韓焄 140, 163, 164, 166
 한흥 韓興 314
 함북청년회 咸北靑年會 200
 함태영 咸台永 321~323, 326, 327, 331
 합동회재단 合同會財團 271
 합성회사 合成會社 205
 해관세 海關稅 79
 해삼위향지방회 海參威港地方會 245
 《해조신문》 《海潮新聞》 202
 허승원 許承元 253
 허위 許爲 162
 헌병 憲兵 22, 31, 39, 41, 42, 88, 103, 127
 헌병경찰 憲兵警察 22, 25, 40, 43~45,
 49, 96, 127

헌병경찰관(서) 憲兵警察官(署) 42
 헌병경찰제(도) 憲兵警察制(度) 24,
 31, 39, 40, 103, 105, 111, 119, 127, 309
 헌병대 憲兵隊 23, 41, 44, 104, 115, 134
 헌병만능 憲兵萬能 24
 헌병보조원(제) 憲兵補助員(制) 22, 39,
 43
 헌병분견대 憲兵分遣隊 346, 361, 362,
 364, 375
 헌병분견소 憲兵分遣所 73, 134, 368,
 376
 헌병분대 憲兵分隊 42, 45
 헌병좌관 憲兵佐官 23
 헌병주재소 憲兵駐在所 344, 346, 347,
 349, 350, 353, 359, 362, 365, 370, 371, 374~
 377
 허버트 Homer B. Hulbert 235, 242
 헤이그밀사 Hague密使 196
 혁명당 革命黨 12
 혁신유림 革新儒林 166
 현상윤 玄相允 274, 275, 320, 327
 현순 玄楯 321
 현천묵 玄天默 183
 혈성단 血成團 240
 협성학교 協成學校 177
 형평운동 衡平運動 410
 호남선 湖南線 94, 95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好壽敦女子高等
 普通學校 343
 혼혈정책 混血政策 109
 홍기조 洪基兆 326
 홍명희 洪命熹 225, 227, 231, 348
 홍범도 洪範圖 197, 201, 211, 392, 399
 홍병기 洪秉箕 326
 홍승국 洪承國 249
 홍승하 洪承夏 238
 홍종표 洪宗杓 240
 홍주일 洪宙一 147, 148, 149
 화폐정리사업 貨幣整理事業 86
 환구중국학생회 寰球中國學生會 221,

- 222
- 황공도 黃公道 201, 205, 206
- 황국서사 皇國誓詞 109
- 황국신민(화) 皇國臣民(化) 6, 101, 106, 108~110
- 황기환 黃玳煥 235
- 황도파 皇道派 113
- 황무지개간권 荒蕪地開墾權 63
- 황병주 黃秉周 346
- 황사용 黃思溶 245, 250, 263
- 황산덕 黃山德 285
- 황상규 黃尙奎 314
- 황상호 黃尙鎬 353
- 황성기독교청년회 皇城基督教青年會 274
- 《황성신문》 《皇城新聞》 128
- 황애덕 黃愛德 7, 157
- 황해철 黃海轍 144
- 〈회사령〉 〈會社令〉 5, 52, 70, 87, 88, 131, 132, 156
- 〈회사법〉 〈會社法〉 65
- 훼기죄 毀棄罪 75
- 휘문중학교 徽文中學校 152
- 흑우회 黑友會 283

집 필 자

개 요 김운태

I.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김운태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정재정
3.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질 강창일

II.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1. 국내민족운동 강영심
2. 해외민족운동
 - 1) 만주 반병률
 - 2) 러시아 반병률
 - 3) 중국 관내지역 한상도
 - 4) 미주 김도훈
 - 5) 일본 김인덕

III. 3·1운동

1. 3·1운동의 배경 이정은
2. 3·1운동의 전개 이정은
3. 3·1운동의 해외 확산 이정은
4. 3·1운동의 영향과 의의 이정은

한 국 사

47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2001년 12월 1일 인쇄

2001년 12월 5일 발행

발행국사편찬위원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쇄탐구당문화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